

貿易學博士 學位論文

서비스 무역의 결정요인과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Service Trade



2012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 易 學 科  
金 暎 桓

本 論 文 을 金 暎 桓 의 貿 易 學 博 士  
學 位 論 文 으 로 認 准 함

委員長	崔宗洙	(印)
委員	俞日善	(印)
委員	鄭鴻悅	(印)
委員	羅昊洙	(印)
委員	俞昌根	(印)

2011年 12月 23日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 <목 차>

## Abstract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제3절 논문의 구성 .....	7
<b>제2장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의 현황</b> .....	<b>8</b>
제1절 서비스와 서비스 산업 및 서비스 무역 .....	8
1.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	8
2. 서비스 산업의 범위와 분류 .....	11
3. 서비스 무역의 개념과 유형 .....	14
제2절 서비스 산업의 현황 .....	17
1. 세계 서비스 산업의 현황 .....	17
2.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현황 .....	22
제3절 서비스 무역의 동향 .....	31
1.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이 .....	31
2.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의 추이 .....	41
<b>제3장 서비스 무역의 결정요인 분석</b> .....	<b>51</b>
제1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51
1. 중력 모형과 이론적 배경 .....	51
2. 중력모형을 활용한 서비스 무역 선행연구 .....	54

제2절 분석 모형 및 자료 .....	57
1. 분석 모형 및 변수 .....	57
2. 분석대상 자료 및 기초 통계치 .....	59
제3절 결정요인 분석결과 .....	62
제4절 요약 및 결론 .....	66
<b>제4장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b>	<b>69</b>
제1절 국제경쟁력 분석방법과 우리나라의 지표 현황 .....	69
1. 국제시장점유율(IMS) .....	70
2. 무역특화지수(TSI) .....	74
3.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	77
제2절 서비스 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	82
1. 서비스 무역 전체 .....	83
2. 운송서비스 부문 .....	86
3. 여행 부문 .....	92
4. 통신 부문 .....	97
5. 건설 부문 .....	104
6. 보험 부문 .....	112
7. 금융 부문 .....	119
8. 컴퓨터 및 정보 부문 .....	126
9.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	131
10.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	137
11. 개인·문화·오락 부문 .....	144
제3절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 .....	150
1. 서비스 무역 전체 .....	150
2. 운송서비스 부문 .....	151

3. 여행 부문 .....	152
4. 통신 부문 .....	153
5. 건설 부문 .....	154
6. 보험 부문 .....	155
7. 금융 부문 .....	156
8. 컴퓨터 및 정보 부문 .....	157
9.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	158
10.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	159
11. 개인·문화·오락 부문 .....	160
제5장 요약 및 결론 .....	162
참고문헌 .....	169
부    록 .....	181



## <표 목 차>

표 2-1. 제품 대 서비스 비교 .....	9
표 2-2. 서비스의 분류 .....	10
표 2-3. UR에서의 서비스 분류 .....	11
표 2-4.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서비스 산업 분류 .....	12
표 2-5. 서비스의 공급형태 .....	15
표 2-6.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	18
표 2-7.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별 GDP 비교 (2008년) .....	19
표 2-8.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 .....	21
표 2-9. 한국의 경제활동별 실질 GDP .....	23
표 2-10.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2000년~2008년) .....	25
표 2-11.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2004년~2010년) .....	27
표 2-12.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현황 .....	32
표 2-13. 세계 주요 상품 무역국 순위 (2010년) .....	34
표 2-14. 세계 주요 서비스 무역국 순위 (2010년) .....	36
표 2-15. 세계 서비스 무역의 부문별 수출입 비중 .....	38
표 2-16.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성장률 .....	39
표 2-17.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구성비 (2010년) .....	40
표 2-18. 한국의 서비스 무역의 발전단계 .....	43
표 2-19. 한국의 서비스 무역 업종별 현황 .....	45
표 2-20. 한국의 서비스 무역 업종별 비중 변화 .....	48
표 2-21. 한국의 서비스 업종별 수출입 비중 변화 .....	49
표 3-1. 각 변수 현황 및 기초 통계치 .....	61
표 3-2. 서비스 무역(수출량) 결정요인 분석 .....	63

표 4-1.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IMS (연도별) .....	71
표 4-2.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TSI (연도별) .....	75
표 4-3.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RSCA지수 (연도별) .....	80
표 4-4. 서비스 무역 전체 IMS 비교 (연도별) .....	84
표 4-5. 서비스 무역 전체 TSI 비교 (연도별) .....	86
표 4-6. 운송 서비스 부문 IMS 비교 (연도별) .....	88
표 4-7. 운송 서비스 부문 TSI 비교 (연도별) .....	90
표 4-8. 운송 서비스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	92
표 4-9. 여행 부문 IMS 비교 (연도별) .....	93
표 4-10. 여행 부문 TSI 비교 (연도별) .....	95
표 4-11. 여행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	97
표 4-12. 통신 부문 IMS 비교 (연도별) .....	99
표 4-13. 통신 부문 TSI 비교 (연도별) .....	101
표 4-14. 통신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	103
표 4-15. 건설 부문 IMS 비교 (연도별) .....	106
표 4-16. 건설 부문 TSI 비교 (연도별) .....	109
표 4-17. 건설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	111
표 4-18. 보험 부문 IMS 비교 (연도별) .....	113
표 4-19. 보험 부문 TSI 비교 (연도별) .....	116
표 4-20. 보험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	118
표 4-21. 금융 부문 IMS 비교 (연도별) .....	121
표 4-22. 금융 부문 TSI 비교 (연도별) .....	123
표 4-23. 금융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	125
표 4-24. 컴퓨터 및 정보 부문 IMS 비교 (연도별) .....	127
표 4-25. 컴퓨터 및 정보 부문 TSI 비교 (연도별) .....	129
표 4-26. 컴퓨터 및 정보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	131
표 4-27.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IMS 비교 (연도별) .....	133

표 4-28.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TSI 비교 (연도별) .....	135
표 4-29.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	137
표 4-30.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IMS 비교 (연도별) .....	139
표 4-31.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TSI 비교 (연도별) .....	141
표 4-32.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	143
표 4-33. 개인·문화·오락 부문 IMS 비교 (연도별) .....	145
표 4-34. 개인·문화·오락 부문 TSI 비교 (연도별) .....	147
표 4-35. 개인·문화·오락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	149
표 4-36. 연도별 부여 가중치 .....	150



## 〈그림 목 차〉

그림 2-1. 주요국의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	17
그림 2-2. 주요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 .....	20
그림 2-3. 한국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비중 .....	24
그림 2-4. 한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 (2000년~2008년) .....	26
그림 2-5. 한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 (2004년~2010년) .....	28
그림 2-6. 주요 서비스 업종 고용비중의 변화 .....	29
그림 2-7.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추이 .....	31
그림 2-8. 한국의 경상수지 추이 .....	41
그림 2-9. 한국의 서비스 무역 추이 .....	42
그림 2-10. 한국의 서비스 부문별 누적 수출입 (2000년~2010년) .....	44
그림 4-1.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IMS (평균) .....	72
그림 4-2.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TSI (평균) .....	76
그림 4-3.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RSCA지수 (평균) .....	81
그림 4-4. 서비스 무역 전체 IMS 추이 .....	83
그림 4-5. 서비스 무역 전체 TSI 추이 .....	85
그림 4-6. 운송 서비스 부문 IMS 추이 .....	87
그림 4-7. 운송 서비스 부문 TSI 추이 .....	89
그림 4-8. 운송 서비스 부문 RSCA지수 추이 .....	91
그림 4-9. 여행 부문 IMS 추이 .....	93
그림 4-10. 여행 부문 TSI 추이 .....	94
그림 4-11. 여행 부문 RSCA지수 추이 .....	96
그림 4-12. 통신 부문 IMS 추이 .....	98
그림 4-13. 통신 부문 TSI 추이 .....	100

그림 4-14. 통신 부문 RSCA지수 추이 .....	102
그림 4-15. 건설 부문 IMS 추이 .....	105
그림 4-16. 해외건설 총괄 계약현황 .....	106
그림 4-17. 해외 건설사업 점유율 추이 .....	107
그림 4-18. 건설 부문 TSI 추이 .....	108
그림 4-19. 건설 부문 RSCA지수 추이 .....	110
그림 4-20. 보험 부문 IMS 추이 .....	112
그림 4-21. 보험 부문 TSI 추이 .....	115
그림 4-22. 보험 부문 RSCA지수 추이 .....	117
그림 4-23. 금융 부문 IMS 추이 .....	120
그림 4-24. 금융 부문 TSI 추이 .....	122
그림 4-25. 금융 부문 RSCA지수 추이 .....	124
그림 4-26. 컴퓨터 및 정보 부문 IMS 추이 .....	126
그림 4-27. 컴퓨터 및 정보 부문 TSI 추이 .....	128
그림 4-28. 컴퓨터 및 정보 부문 RSCA지수 추이 .....	130
그림 4-29.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IMS 추이 .....	132
그림 4-30.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TSI 추이 .....	134
그림 4-31.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RSCA지수 추이 .....	136
그림 4-32.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IMS 추이 .....	138
그림 4-33.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TSI 추이 .....	140
그림 4-34.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RSCA지수 추이 .....	142
그림 4-35. 개인·문화오락 부문 IMS 추이 .....	144
그림 4-36. 개인·문화오락 부문 TSI 추이 .....	146
그림 4-37. 개인·문화오락 부문 RSCA지수 추이 .....	148
그림 4-38. 서비스 전체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151
그림 4-39. 운송 서비스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152
그림 4-40. 여행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153

그림 4-41. 통신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154
그림 4-42. 건설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155
그림 4-43. 보험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156
그림 4-44. 금융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157
그림 4-45. 컴퓨터 및 정보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158
그림 4-46.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159
그림 4-47.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160
그림 4-48. 개인·문화·오락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161



## <부 록 목 차>

부록 1.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대분류별 주요개정내용 .....	181
부록 2. 세계 주요 상품 무역국 순위 (2009년) .....	182
부록 3. 세계 주요 서비스 무역국 순위 (2009년) .....	183
부록 4. BPM6 1단계 이행에 따라 변경된 국제수지 체계 .....	184
부록 5. 주요 국가 해외 건설사업 매출액 및 점유율 추이 .....	185



# ABSTRACT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Service Trade

by Kim, Young Hwa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industry has been expanded continuously as the economy has progressed recently. In the past, the service industry was regarded as a field with low productivity, compared with the manufacturing industry, because it was characterized by a low level of technical standards and its labor-intensity.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industry begins to be newly recogniz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which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t not only enables commodities to be delivered in the long distances, but also makes the previous services embodied in the goods now more separate from those goods.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trade is highly emphasized as the international trade volume h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service trade will be expanded because the value added ratio it has created is over 70%. On

the contrary, the ratio of the service trade over world is just 20%. Compared with the classic manufacturing industry, the service industry is highly value-added. It also encourages a stable national economy by stimulating other industries like manufacturing, creating jobs and promoting consumption.

Although Korean economy has enjoyed it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has been burdened with the service trade defici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what is going on in Korean service industry by analyzing the situation of the service industry, present progress of the service trade, Korea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service trade and the main causes which decide the amount of exports in the service trade.

In order to analyze all of facts mentioned above in the service trade, several statistical researches are required. First, I took advantage of the evaluation index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uch as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IMS). IMF's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BOP) was used as statistical data. The results are that the transportation service has shown the most competitive sector in Korean service trade while the financial service and the construction service are slightly competitive rather than other services. Secondly, I made an attempt to know what factors affects the service industry's growth. Gravity Model was utilized in doing that with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which targets 34 OECD members. It is found that the GDP growth of the importing country contributes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trade volume. It is also found that cultural

accessibility (e.g. language, historical relation, and colonial experiences etc.) and economic freedom have a meaningful effect on servic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sequently, in order to expand the service trade, the policies which aims at expanding the freedom for both domestic trade and business are acutely required.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가 간 교역의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구조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 분업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의 확대와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물결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 자유화의 추세 속에서 자유화의 대상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상품교역 부문에서의 자유화를 넘어 서비스 산업에서도 무역 자유화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는 재화와 함께 인간의 삶에 있어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정신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생산활동 또는 경제활동의 산물로, 재화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부문을 서비스업 또는 서비스 산업으로 칭하고 있다.<sup>1)</sup>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3차 산업의 경제적 비중이 증대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 부문의 경제적 비중은 경제발전 단계와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2)</sup>

‘산업의 서비스화’ 또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국제경제에 있어 경제의 글로벌화 및 정보화와 함께 큰 변화의 물줄기를 이루어 왔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선진국(OECD 가입 30개 회원국)<sup>3)</sup>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각국의 국민경제에

- 1) 강준구,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12, p.17
- 2) 이성준,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1호, 한국무역학회, 2000.4, p.196
- 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61년 경제발전과 세계무역의 촉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써, 2011년 11월 현재 총 회원국은 34개국이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평균 68.7%에 이르며, 고용 측면에서도 서비스 산업은 각국의 전체 고용 인구에서 평균 68.3%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 경제의 산출과 고용측면에서 서비스 산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서비스의 특성상 그 형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비스 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식하여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산업으로 여겨왔다. 또한 국내산업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측면에서도 서비스라는 무형상품의 특성상 그 교역의 성과를 정확한 통계수치로 나타낸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도 크지 못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수송기술의 발달로 재화 속에 체화된 서비스가 상품으로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 또한 원격지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금융·보험 서비스, 사업 서비스 등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세계경제를 선도해온 미국은 이제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신 서비스 산업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역흑자를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제조업의 주도권을 이어받았던 독일과 일본이 서비스 무역에서 많은 적자를 내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를 줄여가고 있다.<sup>4)</sup> 이는 국가의 경제구조가 고도화 되어갈 수록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분야에서 먼저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에서도 자유화의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20세기 말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세계무역 자유화와 특히 서비스 무역에서의 자유화 흐름을 주

---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한국은 1996년 12월 29번째 OECD 정회원국이 되었다. 2007년도 기준 OECD 가입국에는 4개국(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이 포함되지 않았다.

4) 유창근,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 「영산논총」, Vol.16, 영산대학교, 2006, p.157

도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10월 28일 현재 WTO에서 집계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발효 건수는 총 310건이며<sup>5)</sup>, 이 중에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 181건, 서비스 협정(Service Agreement)이 92건, 개도국간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이 15건<sup>6)</sup>, 관세동맹(CU : Customs Union)이 2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또한 현재도 세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협상 중 또는 체결 후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무역협정들이 있어 향후 협정 건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 수의 증가와 함께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제경제기구들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과, 점증적으로 서비스 무역량이 세계의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이러한 흐름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해 왔으며, 정부의 경제정책 및 무역정책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체 무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상수지에서 서비스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서비스무역에서의 적자는 상품무역에서 흑자를 상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로 이어지는 세계

5) 보통 지역무역협정 체결시 서비스협정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상기 수치는 서비스협정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 개도국간 특혜협정, 관세동맹인 경우 해당 지역무역협정과 서비스협정이 각각 중복하여 집계되었다. 예를 들면, 한-칠레 FTA의 경우 FTA 1건, 서비스협정 1건으로 총 2건으로 집계되었다.

6) WTO 통계에서 서비스협정(Service Agreement)과 개도국간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은 각각 EIA(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와 PSA(Partial Scope Agreement)라는 명칭으로 나타내고 있다.

7) 자료출처 <http://rtais.wto.org/WebControl/exportgrid.aspx>

무역에 있어서의 자유화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상품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 무역에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기구 또는 서비스협정들에 의한 자유화의 진전이나,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기대이익은 교역 상대국의 시장, 특히 서비스 시장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국 간 협정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한 서비스 무역 자유화 이익은 자국의 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의 도입으로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세계의 서비스 무역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서비스 무역에서의 적자가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서비스 무역에 관한 분석과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제조업과 상품 무역과는 달리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에 비켜서있던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그 개념과 중요성을 알아보고, 세계 서비스 산업 및 무역의 추이와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부문의 고용, 서비스 무역의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의 GDP, 국가 간 거리, 회원국 쌍무간 서비스 수출입액 등을 변수로 하는 중력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출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및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수출입액으로 무역특화지수(TSI) 등의 국제경쟁력 추정지표를 추출하여 서비스 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기초로 하여 국내 및 국제통계 수치

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으로는 각종 국내외 학술논문과 전문서적, 학위논문 그리고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국내 유관기관의 자료와 외교통상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의 경제부처 웹사이트 및 통계연감,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과 그 산하기관 등 국제기구와 프레이저연구소(Fraser Institute) 등의 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 산업 전체 또는 서비스 무역 전체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는 무형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가지므로 그러한 특성의 한계로 제조업 또는 상품 무역에 비해 서비스 산업 또는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국내외의 통계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교역국 상호간의 직접적인 서비스 무역 통계수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IMF의 국제수지(BOP) 통계치를 대용하여 한국과 비교대상 국가들 간의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 하였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의 현황에 대한 파악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세계의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 동향에 대해서는 대표적 국제경제기구들의 통계자료인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비스 무역에 있어 양국 간의 교역규모가 증대되는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무역결정요인을, 만유인력의 법칙을 근원으로 하고 국제무역시 양국 간 교역규모가 양국의 GDP의 곱에 비례하고 양국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 중력모형 이론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WB(세계은행, World Bank)의 *WDI(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 DB로부터 추출한, 2000년 기준 실질 데이터인 자국과 상대국의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와 여기에 WDI DB의 인구수로 계산한 1인당 GDP, 그리고 Fraser Institute에서 제공되는 상대국의 경제자유도(EFW, Economic Freedom World index), Rose(2004)가 제공한 데이터로써 양국 간의 거리 및 문화적 근접성, 지리적 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sup>8)</sup>를 투입하여, OECD Statistics에서 얻은, 교역규모를 대리하는 서비스 무역 수출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교역국들의 쌍무적(bilateral) 무역량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Detailed by Partner Country*에서 OECD 34개 회원국들 간의 서비스 무역 데이터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과 선진 5개국, 그리고 중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경쟁력 및 비교우위 관계를 유형재인 상품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방법에 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로 중국을 포함한 것은 경제발전단계에서는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교역규모에 있어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등의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국제수지통계(BOP,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를 바탕으로 추출한 한국, 중국 및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수출입액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화무역에 대한 분석에 적용되는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 RCA지수), 국제시장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 IMS) 지표를 산출하고 서비스 무역 부문별<sup>9)</sup>로 7개국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8) 문화적 근접성과 지리적 여건에는 양국의 영토가 공통 국경으로 접해있는지 여부, 양국이 식민지국과 피식민지국의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양국이 함께 1945년 이전에 동일 국가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는지 여부, 양국이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지 여부, 양국의 영토가 각각 섬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9) 서비스 무역 전체에 대한 비교와 서비스 무역 11개 부문별(운송 서비스,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정부 서비스)로 비교분석함. 정부

###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 및 논문의 구성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의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서비스 산업과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현황, 그리고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이와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동향 및 업종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 무역에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중력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OECD가입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OECD 통계의 교역국간 쌍무적 서비스 수출입액, WDI의 DB에서 추출한 GDP, Fraser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경제자유도 등의 통계수치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산업의 무역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에 상품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측정지표를 도입하여 분석한다. 한국과 중국 및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서비스 무역의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의 연도별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지수, 국제시장점유율(IMS)을 측정하여 서비스 무역 전체와 부문별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가중평균값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고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문제점을 재정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한다.

---

서비스는 상업 서비스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별 비교분석에서는 제외함.

## 제2장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의 현황

### 제1절 서비스와 서비스 산업 및 서비스 무역

#### 1.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소비자로서 지속적으로 수많은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금융을 소비하며, 저녁 식탁을 차리기 위해 슈퍼마켓이나 잡화점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 다치거나 아플 때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는다. 사람들의 일과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시간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의식하지 않고 소비활동을 해왔던 것들 즉, 교통, 도소매, 금융, 통신, 여행, 운송 등 매우 포괄적 범위가 모두 서비스에 포함된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서비스는 흔히 ‘재화와 용역’이라고 일컫는 것 중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할 때 인간에게 즐거움(편의)을 제공하며 시장에서 사고파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화’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다를 뿐이다.<sup>10)</sup>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sup>11)</sup>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을 제품과 비교할 때 크게 네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무형성(Intangibility)이다.

10) 유장희,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국경제연구원, 2009, p.25

11)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과급효과 및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121

서비스는 보이는 형태로 제공할 수 없고, 제품과 같이 만지거나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결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둘째, 이질성(Heterogeneity)이다.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할 때 여러 가지 가변요소가 많으므로 동일한 공급자라 할지라도 각각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규격화하거나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서비스의 질 또한 균일화하기 어렵게 된다.

표 2-1. 제품 대 서비스 비교

제 품	서 비 스
유형성	무형성(intangibility)
동질성	이질성(heterogeneity)
분리성	비분리성(inseparability)
재고, 보관 가능	소멸성(perishability)
물건	일련의 행위 또는 과정(process)
소유권의 이전 가능	소유권이 이전 불가능
주 가치는 공장에서 생산	주 가치는 구매자·판매자의 상호작용에서 생산

자료 : 성일석, 「국제서비스통상론」,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11, p.41

셋째, 비분리성(Inseparability)이다.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특성을 가진다. 상품의 경우 생산되고 판매된 후 소비되지만, 서비스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이를 분리할 수 없어 대량생산이나 공급과정에서의 품질관리가 곤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멸성(Perishability)이다. 상품의 경우 판매되지 않는다면 재고로 보관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상품의 경우 반복적으

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1회의 소비에 의해 소멸한다. 이와 같이 공급측면에서 저장성이 불가능하고 한 번의 소비로 소멸되기 때문에 수요량에 대한 예측, 그리고 거기에 맞춘 생산량 조절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그 분류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랐으며, 또한 서비스에 대하여 연구한 많은 학자의 연구결과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서비스의 분류

학 자	분류기준	분 류	주요내용
엘프링	서비스가 제공하는 업무나 활동	생산자 서비스	중간재투입재적 요소 서비스 : 금융·보험, 부동산업, 사업 및 전문서비스업 등
		유통 서비스	유통 및 운송 관련 서비스 :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개인 서비스	소비자 관련 서비스 : 음식 및 숙박업, 이·미용업, 가사서비스업 등
		사회 서비스	공공재적 서비스 : 공공행정·국방, 의료보험, 교육 등
그루벨과 위커	지출	소비자 서비스	소비자 구매서비스 (엘프링의 개인서비스) : 호텔, 금융·보험업, 이·미용업
		생산자 서비스	요소 및 중간투입서비스 : 회계, 광고, 정보·통신 등
		정부 서비스	공공재적 서비스 (엘프링의 사회서비스) : 교육, 의료, 보건, 국방, 치안 등
하타	매매대상	물적 서비스	물자매매수단 서비스 : 임대 및 리스, 오락·게임업
		인적 서비스	인간행위관련 서비스 : 가사서비스, 의료서비스, 이·미용업 등
		시스템적 서비스	조직화된 제도적 서비스 : 정보·통신업, 보험업 등
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중간투입성격 서비스 : 금융, 수리, 컨설팅 서비스 등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소비자·물리적·심리적 상태관련 서비스 : 여객운송, 의료, 교육, 통신 등

자료 : 김우규, “서비스무역과 그 유형”,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p.683

## 2. 서비스 산업의 범위와 분류

서비스업 또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생산의 객체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이라면,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 이외의 산업을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 즉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차, 2차, 3차 산업으로 3분류를 하면 제1차 산업을 채취산업으로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수렵업 등을 포함하는 농림어업, 제2차 산업을 가공산업으로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광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1, 2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제3차 산업, 즉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을 서비스업 또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표 2-3. UR에서의 서비스 분류

분 야	하 위 분 류
사업서비스	전문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임대, 기타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우편, 통신, 시청각, 기타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일반빌딩, 일반토목엔지니어링, 설치 및 조립,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기타 서비스
유통서비스	위탁에이전트, 도매·소매 서비스
교육서비스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하수, 폐기물, 위생 및 유사, 기타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보험 관련, 은행 및 기타 금융, 기타 서비스
보건 및 사회서비스	병원, 기타 인간건강, 사회, 기타 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 여행사 및 여행업, 여행가이드, 기타 서비스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유흥, 뉴스에이전시,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 등 문화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기타 서비스
운송서비스	해상, 내수면, 항공, 우주, 철도, 도로, 관로, 운송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자료 : WTO,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MTN.GNS/W/120)", 1991.

12) 성일석, 「국제서비스통상론」,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11, p.65

최초의 다자간 서비스 협상인 UR 협상 과정에서는 [표 2-3]과 같이 서비스를 12개 부문(sector)으로 나누고, 이 12개 서비스 부문을 다시 155개의 세부 부문(subsector) 혹은 업종으로 세분하였다. 이 분류는 대체로 UN의 잠정중심생산물분류(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분류체계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sup>13)</sup>

통계와 관련하여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서는 5개의 분류(대분류 5~9)를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제정된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서는 현재 대분류 코드 G에서 U까지에 해당하는 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서비스 산업 분류**

대 분류	중 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 제외
H. 운수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13) 윤창인, “한·중일 FTA :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협동 연구총서」, 05-04-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38

표 2-4. 계속

대 분류	중 분류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69. 임대업;부동산 제외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주 : 1.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7년) 기준

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 3. 서비스 무역의 개념과 유형

무형성, 소멸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가 사고 팔수 있는 경제재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무형의 용역을 생산하는 산업을 서비스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비스 산업으로부터 제공되는 용역의 국제적 교역을 서비스 무역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정의)에 명시하고 있는 ‘수출’과 ‘수입’의 의미를 해석하면 외화의 영수 또는 지급 등을 조건으로 거주자<sup>14)</sup>와 비거주자 간<sup>15)</sup>에 용역<sup>16)</sup>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용역 즉,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으로 볼 수 있다.

국가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일관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무역의 유형에 대하여 GATT/UR에서 합의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 GATS)에서는 공급 및 소비형태가 재화와 다른 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비스의 공급형태에 의한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은 서비스의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 위치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공급받는 형태를 말한다. 서비스의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이동하지 않고 제공되는 서비스만이 국경을 넘는 형태를 나타낸다. 서비스 공급자는 수출국내에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입국에

1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16)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공급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의 이동 없이 서비스 자체의 국가 간 공급으로 국제 전화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는 서비스의 소비가 수입국의 국경 밖, 즉 수출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관광을 들 수 있다. 서비스 소비자가 외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또는 항공기, 선박 등을 해외에서 수선 받는 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표 2-5. 서비스의 공급형태

공급자 주재	기 준	형 태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 영토 내에 주재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회원국의 영토내로 서비스가 인도됨 <sup>17)</sup>	국경간 공급
	회원국의 영토 밖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인도됨 <sup>18)</sup>	해외소비
서비스 공급자가 회원국 영토 내에 주재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 서비스가 인도됨 <sup>19)</sup>	상업적 주재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자연인으로서 주재하는 공급자에 의해 서비스가 인도됨 <sup>20)</sup>	자연인의 주재

자료 : WTO, "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S/L/92, 28 March 2001, p.9

셋째, 상업적 주재(駐在) (commercial presence)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에 상업적 시설 등을 설립하여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 수입국에서 서비스 소비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공급

17) Service deliver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18) Service deliver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Member,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to a service consumer of the Member

19) Service deliver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through the commercial presence of the supplier

20) Service deliver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with supplier present as a natural person

하기 위해 법률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등이다.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수입국 내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해외간접투자와 같이 자회사나 지사의 설립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넷째, 자연인의 주재(駐在) (presence of natural persons)는 상업적 주재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공급주체가 법인인 상업적 주재와는 달리 공급주체가 자연인일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 공급업체의 임직원이 현지 주재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 파견에 의한 공급이나 컨설턴트, 엔지니어 등과 같이 개인이 수입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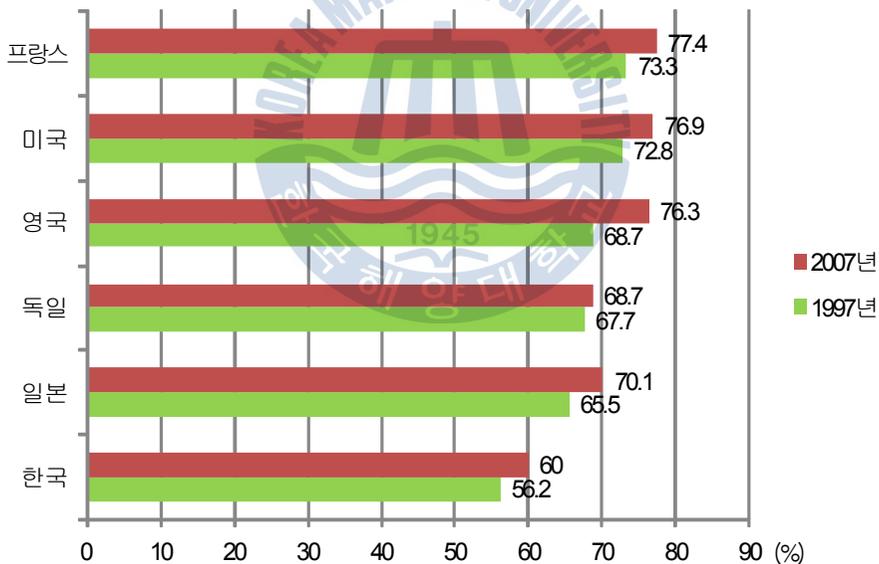


## 제2절 서비스 산업의 현황

### 1. 세계 서비스 산업의 현황

국가의 경제가 공업화를 지나 선진화 되어 갈수록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것은 전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진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선진국들의 경제기구인 OECD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자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약 70%에 이르고 있어 높은 수준이다.

그림 2-1. 주요국의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9 Edition*

그리고 10년 전인 1997년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의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비교대상이 되는 5개국의 통계를 보면 2007년 현재 프랑스는

77.4%, 미국 76.9%, 영국 76.3%, 독일 68.7%, 일본 70.1%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3개국은 모두 80%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다. 1997년의 서비스 산업 비중인 프랑스 73.3%, 미국 72.8%, 영국 68.7%, 독일 67.7%, 일본 65.5%와 비교해보면 10년간 모두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4~7% 증가하였다.

표 2-6.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단위 : %)

국 가	1997년	2007년	국 가	1997년	2007년	국 가	1997년	2007년
호 주	68.9	68.4	헝가리	61.1	66.3	노르웨이	60.4	55.9
오스트리아	66.8	67.7	아이슬란드	61.3	70.5	폴란드	60.0	63.8
벨기에	70.1	75.3	아일랜드	56.2	64.8	포르투갈	66.3	73.0
캐나다	66.6	66.1	이탈리아	67.3	70.4	슬로바키아	59.5	57.2
체 코	55.2	58.7	일 본	65.5	70.1	스페인	65.7	67.4
덴마크	71.2	72.4	한 국	56.2	60.0	스웨덴	68.4	70.3
핀란드	63.7	64.2	룩셈부르크	78.2	84.0	스위스	69.8	70.8
프랑스	73.3	77.4	멕시코	59.2	60.9	터 키	52.2	63.5
독 일	67.7	68.7	네덜란드	70.7	73.6	영 국	68.7	76.3
그리스	72.2	75.9	뉴질랜드	67.6	69.2	미 국	72.8	76.9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9 Edition*, p.16-17

2007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60%로 선진 5개국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준이나, 1997년 기준 56.2% 보다 약 4% 증가하여 한국도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2-7]에서 보듯이 다른 선진국이나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별 GDP 비교 (2008년)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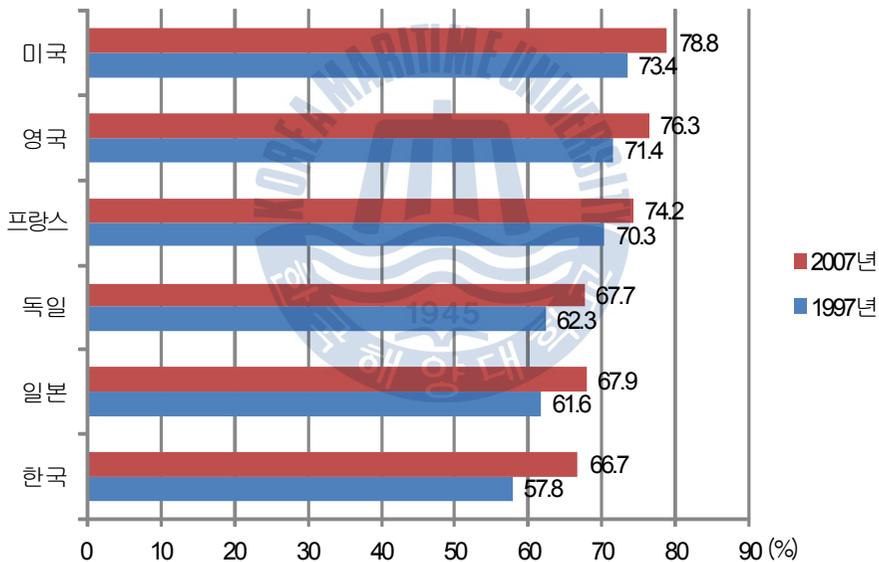
국 가	국내총생산	농림어업	2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한 국	930,946	2.7	36.4	(27.9)	60.8
중 국	4,521,827	10.7	47.4	(32.9)	41.8
인 도	1,213,783	17.6	28.2	(15.5)	54.2
일 본	4,879,861	1.5	28.0	(19.9)	70.6
터 키	730,337	8.6	27.7	(18.3)	63.7
멕시코	1,096,176	3.7	36.4	(17.5)	59.9
미 국	14,296,900	1.2	21.3	(13.4)	77.5
브라질	1,652,632	5.9	27.9	(16.6)	66.2
오스트리아	414,671	1.7	30.2	(20.4)	68.0
벨기에	505,374	0.7	23.2	(15.4)	76.1
덴마크	341,467	1.0	25.8	(14.3)	73.2
핀란드	270,479	2.9	32.3	(22.4)	64.9
프랑스	2,831,794	2.0	20.3	(11.9)	77.7
독 일	3,634,526	0.9	29.6	(22.7)	69.5
그리스	347,042	3.1	17.9	( 9.8)	79.0
헝가리	155,444	4.3	29.4	(21.7)	66.2
아일랜드	263,653	1.3	31.1	(21.5)	67.6
이탈리아	2,296,497	2.0	26.9	(18.1)	71.1
룩셈부르크	58,072	0.4	14.6	( 7.9)	85.1
네덜란드	873,367	1.8	25.6	(13.7)	72.6
노르웨이	446,241	1.2	45.1	( 9.0)	53.7
폴란드	529,401	3.7	32.0	(17.3)	64.2
포르투갈	251,925	2.3	24.2	(14.0)	73.5
러시아	1,660,846	4.4	35.9	(17.4)	59.7
스페인	1,593,912	2.7	28.4	(14.5)	68.9
스웨덴	486,159	1.8	27.5	(18.4)	70.7
스위스	502,447	1.3	27.7	(20.1)	71.0
영 국	2,657,482	0.8	22.6	(11.6)	76.7
오스트레일리아	1,039,415	2.5	29.1	(10.5)	68.4

주 : 2차 산업에는 제조업 및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포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일국의 전체 고용인원에서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 또한 증가하게 된다. 서비스 산업을 고용측면에서 보면, OECD 가입국들의 경우 2007년 현재 서비스 산업의 고용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전체 산업의 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각각 78.8%, 76.3%, 74.2%로 전체 고용수준에서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이 80%에 가까워지고 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도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이 각각 67.7%, 67.9%로 70%에 육박하고 있다.

그림 2-2. 주요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9 Edition*

1997년 기준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과 비교할 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 모두 4%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증가와 함께 고용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기준 57.8%의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을 보였으나 2007년 현재 66.7%

의 고용비중을 나타내어 약 9%의 높은 고용비중 증가세를 보였다.

OECD 회원국들과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전체 산업의 고용 인구에서 서비스 산업의 고용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보다 앞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어온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제성장과 고용 문제를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비중 증가를 통하여 풀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과 비교하여 2007년의 GDP 대비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증가와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를 보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8.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

(단위 : %)

국 가	1997년	2007년	국 가	1997년	2007년	국 가	1997년	2007년
호 주	72.9	75.1	헝가리	58.1	62.4	노르웨이	72.1	76.0
오스트리아	61.6	66.9	아이슬란드	65.9	73.4	폴란드	47.5	54.5
벨기에	72.5	73.7	아일랜드	62.6	67.0	포르투갈	54.7	57.6
캐나다	74.1	75.9	이탈리아	60.5	65.5	슬로바키아	51.5	56.4
체 코	52.6	56.1	일 본	61.6	67.9	스페인	61.7	66.0
덴마크	69.5	73.6	한 국	57.8	66.7	스웨덴	71.3	76.1
핀란드	65.5	69.7	룩셈부르크	72.2	76.1	스위스	69.2	72.4
프랑스	70.3	74.2	멕시코	54.2	59.3	터 키	34.6	49.8
독 일	62.3	67.7	네델란드	74.1	77.9	영 국	71.4	76.3
그리스	57.7	66.1	뉴질랜드	67.5	71.0	미 국	73.4	78.8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9 Edition*, p.30-31

## 2.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현황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었고, 생산 측면에서나 고용 측면에서나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의 경제활동별 GDP 통계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전체 산업을 포함하는 총 GDP는 2001년 722.2조 원에서 2004년 832.3조 원, 2006년 910.1조 원, 2010년 1,042.1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4.16%이다.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의 총 부가가치는 2001년 394.9조 원에서 2004년 441.9조 원, 2007년 502.1조 원, 2010년 540.3조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63%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61.15%, 2004년 59.22%, 2006년 58.56%, 2008년 58.54%, 2010년 57.43%를 기록하여 2000년대 들어 조금씩 그 비중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은 2001년 3.91%, 2005년 3.33%, 2010년 3.03%를 보이며 그 비중이 꾸준히 축소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대상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도 1.4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의 경우에는 2001년 0.30%에서 2005년 0.26%, 2010년에는 0.19%로 비중도 축소되었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1.01%로 해당 산업의 GDP 금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은 그 GDP가 2001년 159.7조 원에서 2004년 201.2조 원, 2007년 247.4조 원, 2010년 287.6조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40% 성장하여 타 산업들 보다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 비중은 2001년 24.72%, 2004년 26.96%, 2006년 28.31%, 2008년 28.87%, 2010년 30.57%를 기록하며 대상기간 동안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규모면에서 서비스업의 약 40~60% 정도에 해당하는 비중을 보였다.

표 2-9. 한국의 경제활동별 실질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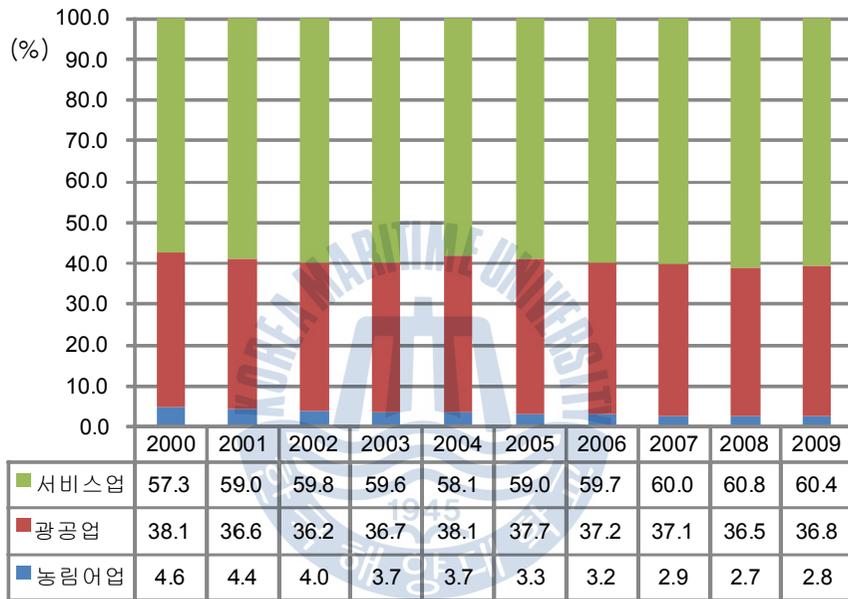
(단위 : 백억 원, %)

항 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농림어업	2,528 (3.91)	2,472 (3.57)	2,339 (3.28)	2,551 (3.42)	2,585 (3.33)	2,624 (3.22)	2,729 (3.18)	2,883 (3.27)	2,976 (3.36)	2,848 (3.03)	1.45
광업	194 (0.30)	194 (0.28)	201 (0.28)	200 (0.27)	199 (0.26)	199 (0.24)	191 (0.22)	192 (0.22)	191 (0.22)	176 (0.19)	-1.01
제조업	15,965 (24.72)	17,361 (25.08)	18,294 (25.66)	20,117 (26.96)	21,365 (27.54)	23,089 (28.31)	24,741 (28.78)	25,447 (28.87)	25,057 (28.27)	28,760 (30.57)	6.40
전기·가스·수도사업	1,369 (2.12)	1,476 (2.13)	1,534 (2.15)	1,639 (2.20)	1,761 (2.27)	1,833 (2.25)	1,903 (2.21)	2,020 (2.29)	2,102 (2.37)	2,202 (2.34)	5.61
건설업	5,173 (8.01)	5,353 (7.73)	5,825 (8.17)	5,944 (7.97)	5,928 (7.64)	6,056 (7.43)	6,213 (7.23)	6,061 (6.88)	6,172 (6.96)	6,168 (6.56)	2.36
서비스업	39,489 (61.15)	42,423 (61.28)	43,172 (60.56)	44,186 (59.22)	45,750 (58.96)	47,766 (58.56)	50,205 (58.41)	51,598 (58.54)	52,192 (58.89)	54,029 (57.43)	3.6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920 (12.26)	8,341 (12.05)	8,082 (11.34)	8,075 (10.82)	8,247 (10.63)	8,579 (10.52)	9,029 (10.50)	9,151 (10.38)	9,073 (10.24)	9,688 (10.30)	2.49
운수 및 통신업	3,098 (4.80)	3,202 (4.62)	3,233 (4.53)	3,438 (4.61)	3,529 (4.55)	3,708 (4.55)	3,914 (4.55)	4,103 (4.66)	3,867 (4.36)	4,237 (4.50)	3.77
금융보험업	4,077 (6.31)	5,028 (7.26)	5,060 (7.10)	5,052 (6.77)	5,339 (6.88)	5,561 (6.82)	6,161 (7.17)	6,461 (7.33)	6,743 (7.61)	6,908 (7.34)	6.36
부동산 및 임대업	5,763 (8.93)	5,900 (8.52)	6,006 (8.42)	6,116 (8.20)	6,322 (8.15)	6,460 (7.92)	6,552 (7.62)	6,649 (7.54)	6,637 (7.49)	6,657 (7.08)	1.65
정보통신업	2,668 (4.13)	3,044 (4.40)	3,188 (4.47)	3,399 (4.56)	3,626 (4.67)	3,824 (4.69)	3,966 (4.61)	4,102 (4.65)	4,193 (4.73)	4,347 (4.62)	6.80
사업서비스	3,130 (4.85)	3,400 (4.91)	3,632 (5.09)	3,711 (4.97)	3,789 (4.88)	3,972 (4.87)	4,180 (4.86)	4,299 (4.88)	4,273 (4.82)	4,321 (4.59)	3.47
공공행정 및 국방	4,382 (6.79)	4,479 (6.47)	4,582 (6.43)	4,690 (6.29)	4,820 (6.21)	5,052 (6.19)	5,218 (6.07)	5,290 (6.00)	5,489 (6.19)	5,582 (5.93)	2.58
교육 서비스업	4,001 (6.20)	4,211 (6.08)	4,416 (6.19)	4,547 (6.09)	4,650 (5.99)	4,853 (5.95)	4,997 (5.81)	5,162 (5.86)	5,214 (5.88)	5,266 (5.60)	3.31
보건 및 사회복지	2,236 (3.46)	2,380 (3.44)	2,527 (3.54)	2,679 (3.59)	2,856 (3.68)	3,039 (3.73)	3,291 (3.83)	3,420 (3.88)	3,690 (4.16)	3,951 (4.20)	5.40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867 (1.34)	995 (1.44)	966 (1.36)	975 (1.31)	1,011 (1.30)	1,074 (1.32)	1,178 (1.37)	1,218 (1.38)	1,248 (1.41)	1,256 (1.34)	5.80
기타 서비스	1,346 (2.08)	1,443 (2.08)	1,480 (2.08)	1,504 (2.02)	1,561 (2.01)	1,642 (2.01)	1,718 (2.00)	1,742 (1.98)	1,767 (1.99)	1,816 (1.93)	3.44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64,575	69,229	71,294	74,614	77,589	81,568	85,952	88,144	88,624	94,085	4.26
순생산물세	7,635	8,146	8,260	8,616	8,935	9,437	9,699	9,709	9,551	10,140	3.30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72,223	77,387	79,556	83,231	86,524	91,005	95,651	97,850	98,163	104,211	4.16

주 : 1.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2. ( ) 안은 총부가가치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연평균성장률은 2000년 이후 2010년까지의 연간 평균 성장률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WTO/GATS에서는 서비스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소득 부속표의 GDP 통계에서는 서비스업과 별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의 경우, 대상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5.61% 및 2.3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약 2.23%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건설업은 평균 약 7.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3. 한국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비중



주 : 광공업은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제조업에 광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을 포함하여 광공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등 3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하면 서비스업은 2000년 57.3%를 기록한 후 소폭 상승하여 2009년에는 60.4%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광공업은 2000년 38.1%에서 2009년에는 36.8%를 차지하여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0년 4.6%에서 2009년 2.8%로 40% 정도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표 2-10.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2000년 ~ 2008년)

(단위 : 천 명,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성장률
농림어업	2,243 (10.60)	2,148 (9.96)	2,069 (9.33)	1,950 (8.81)	1,825 (8.09)	1,815 (7.94)	1,785 (7.71)	1,726 (7.37)	1,693 (7.18)	-3.44
광업	17 (0.08)	18 (0.08)	18 (0.08)	17 (0.08)	16 (0.07)	17 (0.07)	18 (0.08)	18 (0.08)	21 (0.09)	2.91
제조업	4,293 (20.29)	4,267 (19.78)	4,241 (19.13)	4,205 (18.99)	4,290 (19.02)	4,234 (18.52)	4,167 (18.00)	4,119 (17.58)	4,079 (17.30)	-0.63
전기·가스·수도사업	64 (0.30)	58 (0.27)	52 (0.23)	76 (0.34)	72 (0.32)	71 (0.31)	76 (0.33)	86 (0.37)	91 (0.39)	5.72
건설업	1,580 (7.47)	1,585 (7.35)	1,746 (7.88)	1,816 (8.20)	1,820 (8.07)	1,814 (7.94)	1,835 (7.93)	1,850 (7.89)	1,819 (7.72)	1.83
서비스업	12,958 (61.25)	13,497 (62.57)	14,044 (63.35)	14,075 (63.58)	14,535 (64.44)	14,903 (65.20)	15,272 (65.97)	15,634 (66.72)	15,877 (67.34)	2.58
도매 및 소매업	3,833 (18.12)	3,931 (18.22)	3,991 (18.00)	3,871 (17.48)	3,805 (16.87)	3,748 (16.40)	3,713 (16.04)	3,677 (15.69)	3,635 (15.42)	-0.65
숙박 및 음식점업	1,919 (9.07)	1,943 (9.01)	2,007 (9.05)	1,981 (8.95)	2,057 (9.12)	2,058 (9.00)	2,049 (8.85)	2,049 (8.74)	2,042 (8.66)	0.79
운수업	1,068 (5.05)	1,114 (5.16)	1,140 (5.14)	1,084 (4.90)	1,128 (5.00)	1,149 (5.03)	1,163 (5.02)	1,214 (5.18)	1,203 (5.10)	1.54
통신업	192 (0.91)	208 (0.96)	231 (1.04)	249 (1.12)	248 (1.10)	279 (1.22)	308 (1.33)	284 (1.21)	269 (1.14)	4.58
금융 및 보험업	752 (3.55)	760 (3.52)	734 (3.31)	751 (3.39)	738 (3.27)	746 (3.26)	786 (3.40)	809 (3.45)	827 (3.51)	1.23
부동산 및 임대업	351 (1.66)	381 (1.77)	413 (1.86)	423 (1.91)	453 (2.01)	497 (2.17)	500 (2.16)	505 (2.16)	488 (2.07)	4.30
사업 서비스업	1,010 (4.77)	1,149 (5.33)	1,251 (5.64)	1,303 (5.89)	1,461 (6.48)	1,540 (6.74)	1,669 (7.21)	1,845 (7.87)	1,920 (8.14)	8.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58 (3.58)	701 (3.25)	702 (3.17)	757 (3.42)	768 (3.40)	791 (3.46)	801 (3.46)	797 (3.40)	840 (3.56)	1.38
교육 서비스업	1,191 (5.63)	1,236 (5.73)	1,335 (6.02)	1,484 (6.70)	1,507 (6.68)	1,568 (6.86)	1,658 (7.16)	1,687 (7.20)	1,747 (7.41)	4.9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28 (2.02)	484 (2.24)	551 (2.49)	539 (2.43)	594 (2.63)	646 (2.83)	686 (2.96)	745 (3.18)	852 (3.61)	9.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65 (1.73)	393 (1.82)	418 (1.89)	425 (1.92)	458 (2.03)	501 (2.19)	499 (2.16)	493 (2.10)	532 (2.26)	4.90
기타 공공, 개인 서비스업 등	1,091 (5.16)	1,197 (5.55)	1,271 (5.73)	1,208 (5.46)	1,318 (5.84)	1,380 (6.04)	1,440 (6.22)	1,529 (6.52)	1,522 (6.46)	4.35
총 취업자수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1.37

주 : 1. 산업별 -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200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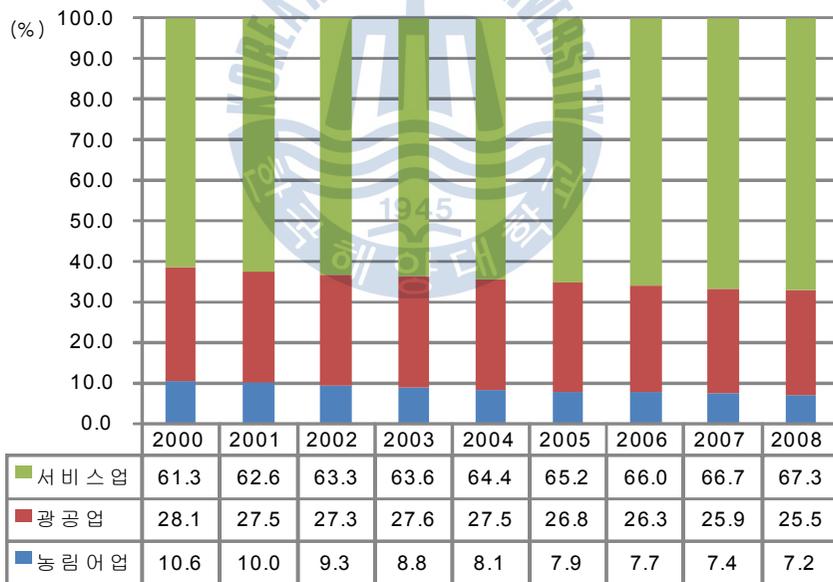
2.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3. ( ) 안은 총 취업자 수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GDP와 부가가치 현황에 이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산업별 고용 현황으로 살펴보면, 먼저 총 취업자 수는 2000년 2,116만 명, 2005년 2,286만 명, 2010년 2,383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취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1.37%이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0.92%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고용 현황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2000년~2008년과 2004년~2010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가 8차 개정(2000년) 기준에서 9차 개정(2007년) 기준으로 변경되어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sup>21)</sup> 이에 2008년까지는 8차 개정(2000년) 기준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2009년과 2010년에 한하여 9차 개정(2007년)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4. 한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 (2000년~2008년)



주 : 1. 광공업은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을 포함

2. 산업별 -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2000년)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1) [부록 1.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대분류별 주요개정내용] 참조,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표 2-11.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2004년 ~ 2010년)

(단위 : 천 명, %)

항 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농업, 임업 및 어업	1,824 (8.09)	1,813 (7.93)	1,781 (7.69)	1,723 (7.35)	1,686 (7.15)	1,648 (7.01)	1,566 (6.57)	-2.50
광업	15 (0.07)	17 (0.07)	16 (0.07)	17 (0.07)	23 (0.10)	23 (0.10)	21 (0.09)	6.72
제조업	4,177 (18.52)	4,130 (18.07)	4,057 (17.52)	4,014 (17.13)	3,963 (16.81)	3,836 (16.32)	4,028 (16.90)	-0.5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72 (0.32)	71 (0.31)	76 (0.33)	86 (0.37)	90 (0.38)	96 (0.41)	78 (0.33)	1.90
건설업	1,818 (8.06)	1,813 (7.93)	1,833 (7.92)	1,849 (7.89)	1,812 (7.69)	1,720 (7.32)	1,753 (7.36)	-0.58
서비스업	14,653 (64.96)	15,013 (65.69)	15,392 (66.49)	15,747 (67.20)	16,004 (67.88)	16,183 (68.85)	16,384 (68.76)	1.8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50 (0.22)	56 (0.25)	62 (0.27)	62 (0.26)	66 (0.28)	72 (0.31)	65 (0.27)	4.76
도매 및 소매업	3,802 (16.86)	3,746 (16.39)	3,711 (16.03)	3,673 (15.67)	3,631 (15.40)	3,600 (15.32)	3,580 (15.02)	-1.00
운수업	1,136 (5.04)	1,165 (5.10)	1,193 (5.15)	1,247 (5.32)	1,248 (5.29)	1,247 (5.31)	1,280 (5.37)	2.02
숙박 및 음식점업	2,057 (9.12)	2,058 (9.00)	2,049 (8.85)	2,049 (8.74)	2,044 (8.67)	1,936 (8.24)	1,889 (7.93)	-1.3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6 (2.69)	638 (2.79)	651 (2.81)	634 (2.71)	627 (2.66)	652 (2.77)	668 (2.80)	1.67
금융 및 보험업	737 (3.27)	745 (3.26)	786 (3.40)	806 (3.44)	821 (3.48)	766 (3.26)	808 (3.39)	1.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53 (2.01)	496 (2.17)	500 (2.16)	505 (2.16)	489 (2.07)	500 (2.13)	517 (2.17)	2.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6 (2.69)	625 (2.73)	681 (2.94)	702 (3.00)	756 (3.21)	844 (3.59)	883 (3.71)	6.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86 (3.04)	742 (3.25)	819 (3.54)	954 (4.07)	974 (4.13)	944 (4.02)	1,023 (4.29)	7.0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68 (3.40)	791 (3.46)	801 (3.46)	797 (3.40)	840 (3.56)	1,032 (4.39)	960 (4.03)	4.17
교육 서비스업	1,545 (6.85)	1,604 (7.02)	1,702 (7.35)	1,740 (7.43)	1,784 (7.57)	1,831 (7.79)	1,799 (7.55)	2.6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0 (2.62)	639 (2.80)	681 (2.94)	740 (3.16)	842 (3.57)	998 (4.25)	1,153 (4.84)	11.9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46 (1.53)	383 (1.68)	379 (1.64)	371 (1.58)	419 (1.78)	390 (1.66)	380 (1.59)	1.83
기타 공공, 개인 서비스업 등	1,271 (5.63)	1,325 (5.80)	1,377 (5.95)	1,467 (6.26)	1,463 (6.21)	1,371 (5.83)	1,379 (5.79)	1.46
계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0.92

주 : 1. 산업별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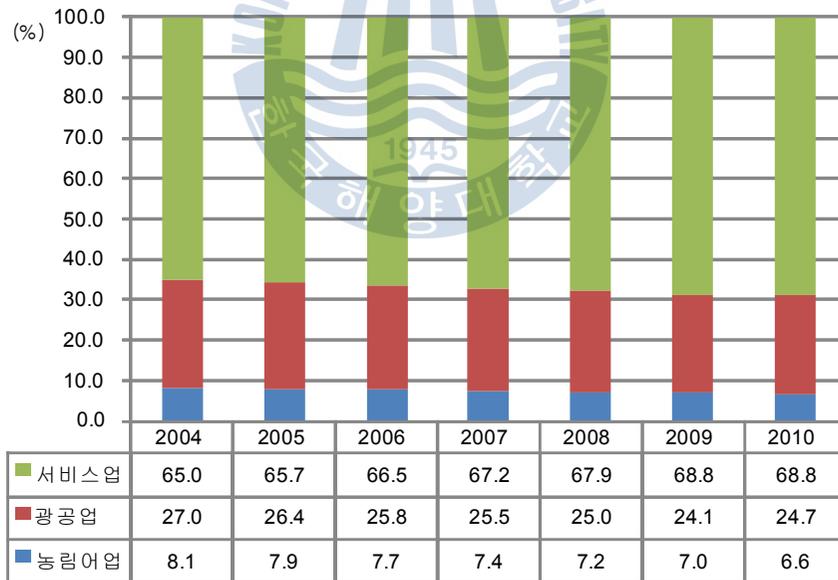
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총 취업자 수에서 산업별로 차지하고 있는 고용비중을 보면, 농림어업은 2000년에 10.60%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6.5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상대적 비중뿐만 아니라 절대적 취업자 수도 2000년 224만 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157만 명을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종사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업은 대상기간 동안 약 1만 5천명에서 2만 3천명 수준으로 0.1% 미만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2000년 429만 명을 기록한 후 2009년 384만 명을 기록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403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취업자 수는 대상기간 동안 약 0.3~0.4%의 비중을 유지하였으며 건설업은 약 7%~8%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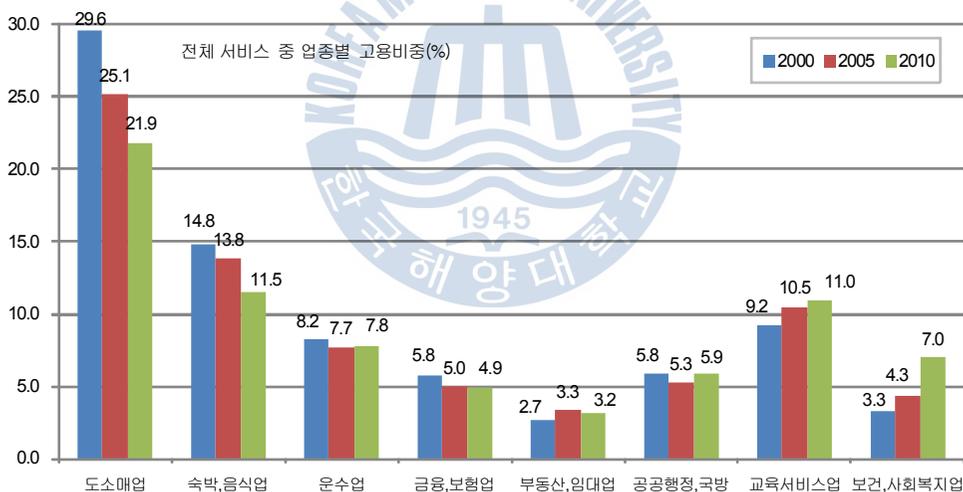
표 2-5. 한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 (2004년~2010년)



주 : 1. 광공업은 제조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포함  
 2. 산업별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7년)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반면에 서비스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2000년에 1,298만 명을 기록한 후 2002년 1,404만 명, 2006년 1,527만 명, 2009년 1,618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최대치인 1,638만 명을 기록하였다.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2000년 61.25%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68.76%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 수준의 2/3를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이로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고용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WTO/GATS의 분류와 같이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서비스 산업에 포함한다면 2010년 현재 총 취업자 수에서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6.45%에 이르러 전체 고용 수준의 3/4을 초과하고 있다.

그림 2-6. 주요 서비스 업종별 고용비중의 변화



주: 1. 2000년과 2005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2000년) 기준이며, 2010년은 9차(2007년) 기준으로 작성함.

2.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의 변동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고용 비중의 변화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2000년 29.6%, 2005년 25.1%, 2010년 21.9%로 계속해서 서비스업에서 높은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2000년 14.8%, 2005년 13.8%, 2010년 11.5%로 도매 및 소매업 다음으로 높은 고용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찬가지로 그 비중의 변화 추이는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비중이 2000년에 9.2%, 2005년에 10.5%, 2010년에 11.0%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비중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도 2000년 3.3%, 2005년 4.3%, 2010년 7.0%로 나타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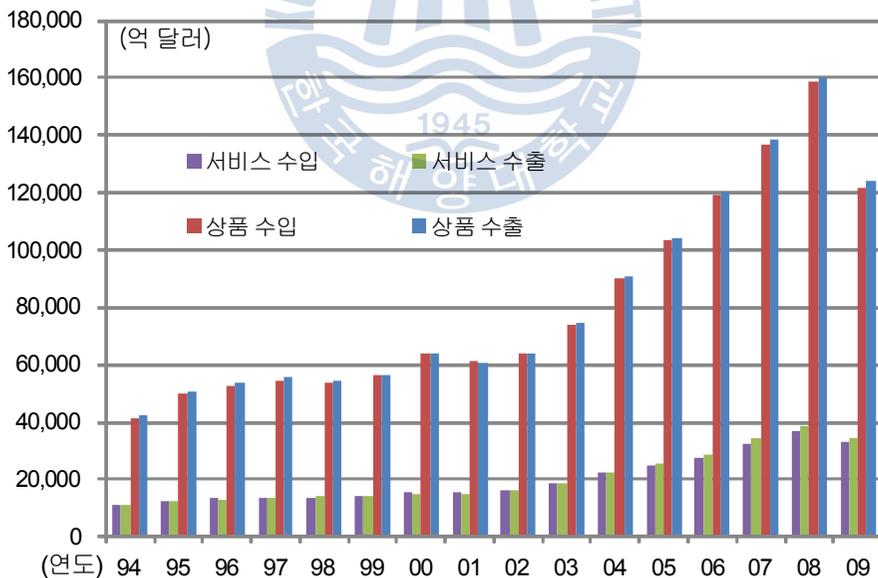


### 제3절 서비스 무역의 동향

#### 1.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이

1990년대부터 점증하던 전세계 무역량은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MF의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에 따르면 전세계 상품 총수출입액은 1994년 8조 3,68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31조 8,619억 달러로 380% 이상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의 총수출입액도 1994년 2조 1,812억 달러에서 2008년 6조 7,294억 달러로 30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에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무역규모 또한 줄어들었다.<sup>22)</sup>

그림 2-7.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의 수치로 작성

22)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전세계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왔으며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정점에 다다랐다. 2011년 현재에도 여파가 있는 상황이다.

상품 무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무역의 규모도 2008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상품 무역은 연평균 10.3% 증가하였고, 서비스 무역은 연평균 9.49% 증가하였다. 국제무역량이 급락한 2009년의 무역액까지 합치면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모두 연평균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대비 2009년에 상품 무역은 22.8%나 감소하였으나 서비스 무역의 감소는 11.4%에 그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기 때문이다.

표 2-12.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

연도	전체 무역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4년	53,119	52,373	42,288	(79.6)	41,392	(79.0)	10,832	(20.4)	10,981	(21.0)
1995년	63,305	62,454	50,987	(80.5)	49,825	(79.8)	12,318	(19.5)	12,629	(20.2)
1996년	66,757	65,887	53,539	(80.2)	52,523	(79.7)	13,217	(19.8)	13,364	(20.3)
1997년	69,294	68,164	55,585	(80.2)	54,436	(79.9)	13,708	(19.8)	13,728	(20.1)
1998년	68,438	67,788	54,446	(79.6)	53,865	(79.5)	13,992	(20.4)	13,923	(20.5)
1999년	70,773	70,589	56,542	(79.9)	56,243	(79.7)	14,231	(20.1)	14,347	(20.3)
2000년	78,724	78,973	63,639	(80.8)	63,695	(80.7)	15,085	(19.2)	15,278	(19.3)
2001년	76,181	76,633	61,044	(80.1)	61,190	(79.8)	15,137	(19.9)	15,443	(20.2)
2002년	80,336	80,193	64,014	(79.7)	63,771	(79.5)	16,322	(20.3)	16,422	(20.5)
2003년	93,612	92,953	74,798	(79.9)	74,214	(79.8)	18,814	(20.1)	18,739	(20.2)
2004년	113,576	112,711	90,835	(80.0)	90,485	(80.3)	22,741	(20.0)	22,227	(19.7)
2005년	129,291	128,061	103,909	(80.4)	103,420	(80.8)	25,382	(19.6)	24,642	(19.2)
2006년	148,918	146,483	120,173	(80.7)	118,992	(81.2)	28,746	(19.3)	27,491	(18.8)
2007년	173,391	169,526	138,859	(80.1)	137,043	(80.8)	34,532	(19.9)	32,482	(19.2)
2008년	198,888	195,630	160,053	(80.5)	158,566	(81.1)	38,834	(19.5)	37,064	(18.9)
2009년	158,395	154,946	124,158	(78.4)	121,889	(78.7)	34,236	(21.6)	33,058	(21.3)

주 : 1. 전체무역은 수출액(상품+ 서비스)와 수입액(상품+ 서비스)를 뜻함

2. ( ) 안은 전체무역의 수출액 또는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세계 주요 무역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0년도 상품 수출에서 중국이 1조 5,780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10.4%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수출액과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의 공장이라고 애기될 정도로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상품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sup>23)</sup>에도 중국은 1조 2,020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여 세계 시장의 9.6%를 차지하고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조 2,780억 달러를 수출하며 8.4%의 점유율을 보인 미국이며,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한 독일은 1조 2,690억 달러를 수출하여 8.3%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독일이 1조 1,260억 달러를 수출하고 9.0%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1조 560억 달러 수출 및 8.5%의 점유율을 보여 3위를 차지하였다.

이상 상위 3개국은 2010년과 2009년에 모두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한 국가들이며, 2010년과 2009년 모두 4위를 차지한 일본은 2010년에 7,700억 달러 수출 및 5.1%의 점유율, 2009년에 5,810억 달러 수출 및 4.6%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상위 3개국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과 2009년 모두 5위는 네덜란드, 6위는 프랑스가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가 2010년에 상품 수출 세계 7위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 수출액 3,640억 달러 및 점유율 2.9%로 7위 이탈리아, 8위 벨기에 다음으로 세계 9위를 차지한 한국은 2010년에는 4,660억 달러 수출 및 3.1%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2단계 상승한 7위를 기록하였다. WTO의 통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국은 상품 수출에서는 세계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품의 수입에서는 2010년, 2009년 모두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품 수지에서 지속적으로 큰 적자를 보이고 있는 미국은 2010년과 2009년 모두 수출액 보다 약 6,000억 달러 가까이 더 많은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 1조 9,690억 달러 치를 수입하여 12.8%의 점유율을, 2009년에는 1조 6,050억 달러 치를 수입하여 12.7%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상품 수입액에서

23) [부록 2. 세계 주요 상품 무역국 순위 (2009년)] 참조

는 미국만이 1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2위국인 중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13. 세계 주요 상품 무역국 순위 (2010년)

(단위 : 10억 달러, %)

수출국				수입국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1	중국	1,578	10.4	1	미국	1,969	12.8
2	미국	1,278	8.4	2	중국	1,395	9.1
3	독일	1,269	8.3	3	독일	1,067	6.9
4	일본	770	5.1	4	일본	696	4.5
5	네덜란드	573	3.8	5	프랑스	606	3.9
6	프랑스	521	3.4	6	영국	560	3.6
7	<b>대한민국</b>	<b>466</b>	<b>3.1</b>	7	네덜란드	517	3.4
8	이탈리아	448	2.9	8	이탈리아	484	3.1
9	벨기에	412	2.7	9	홍콩	442	2.9
10	영국	406	2.7	10	<b>대한민국</b>	<b>425</b>	<b>2.8</b>
11	홍콩	401	2.6	11	캐나다	402	2.6
12	러시아	400	2.6	12	벨기에	390	2.5
13	캐나다	388	2.5	13	인도	327	2.1
14	싱가포르	352	2.3	14	스페인	314	2.0
15	멕시코	298	2.0	15	싱가포르	311	2.0
16	대만	275	1.8	16	멕시코	311	2.0
17	사우디아라비아	250	1.6	17	대만	251	1.6
18	스페인	246	1.6	18	러시아	249	1.6
19	아랍에미리트	220	1.4	19	호주	202	1.3
20	인도	220	1.4	20	브라질	191	1.2
세계 전체		15,237	100.0	세계 전체		15,376	100.0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p.24

2010년과 2009년 모두 2위를 차지한 중국은 2010년에 1조 3,950억 달러의 수입액 및 9.1%의 점유율을, 2009년에 1조 60억 달러의 수입액 및 7.9%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경우 2010년, 2009년 모두 상품 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약 2,000억 달러 가까이 많아 상품 수지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상품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입에서도 상위 3개국은 미국, 중국, 독일로 나타났다. 2010년, 2009년 모두 독일이 상품 수입국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2010년에 1조 670억 달러의 수입액과 6.9%의 점유율을 보였고, 2009년엔 9,380억 달러의 수입액 및 7.4%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독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약 2,000억 달러 가까이 높아 상품 수지에서 큰 흑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수출국 순위에서 2단계 상승했던 우리나라는 상품 수입국에서도 2009년 12위에서 2단계 상승한 10위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3,230억 달러를 수입하여 2.5%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2010년에는 4,250억 달러를 수입하여 2.8%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도 상품 무역에서는 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약 400억 달러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위 3개국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상품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무역에서는 서비스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모두 미국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2010년 서비스 수출에서는 5,180억 달러 수출 및 14.0%의 점유율을 기록하였고, 서비스 수입에서는 3,580억 달러 수입 및 10.2%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2009년<sup>24)</sup>에도 1위를 차지한 미국은 서비스 수출액은 4,740억 달러, 수입액은 3,310억 달러로 각각 14.1%와 10.5%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는 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높아 2010년, 2009년 모두 수출액이 약 1,500억 달러 가까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상품 무역에서는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비스 무역에서 상품 무역 적자의 70%~80%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24) [부록 3. 세계 주요 서비스 무역국 순위 (2009년)] 참조

다.

표 2-14. 세계 주요 서비스 무역국 순위 (2010년)

(단위 : 10억 달러, %)

수출국				수입국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1	미국	518	14.0	1	미국	358	10.2
2	독일	232	6.3	2	독일	260	7.4
3	영국	227	6.1	3	중국	192	5.5
4	중국	170	4.6	4	영국	161	4.6
5	프랑스	143	3.9	5	일본	156	4.4
6	일본	139	3.8	6	프랑스	129	3.7
7	인도	123	3.3	7	인도	116	3.3
8	스페인	123	3.3	8	아일랜드	108	3.1
9	네덜란드	113	3.1	9	이탈리아	108	3.1
10	싱가포르	112	3.0	10	네덜란드	106	3.0
11	홍콩	106	2.9	11	싱가포르	96	2.7
12	이탈리아	97	2.6	12	<b>대한민국</b>	<b>93</b>	<b>2.6</b>
13	아일랜드	95	2.6	13	캐나다	90	2.6
14	벨기에	82	2.2	14	스페인	87	2.5
15	<b>대한민국</b>	<b>82</b>	<b>2.2</b>	15	벨기에	78	2.2
16	스위스	78	2.1	16	러시아	70	2.0
17	룩셈부르크	68	1.9	17	브라질	60	1.7
18	캐나다	67	1.8	18	사우디아라비아	51	1.5
19	스웨덴	64	1.7	19	홍콩	51	1.4
20	덴마크	59	1.6	20	호주	50	1.4
세계 전체		3,695	100.0	세계 전체		3,510	100.0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p.26

2010년에는 서비스 무역의 수출국 및 수입국 모두 독일이 2위를 차지하였다. 수출액 2,320억 달러로 6.3%의 점유율을, 수입액은 2,600억 달러로 7.4%

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수입국은 독일이 2위지만, 수출국은 영국이 2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에 독일은 2,530억 달러를 수입하여 8.1%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하고, 수출은 2,270억 달러로 6.8%의 점유율을 보이며 3위를 차지하였다. 영국은 2009년에 2,330억 달러 치를 수출하여 7.0%의 점유율로 2위를, 수입에서는 1,610억 달러 치를 수입하여 5.1%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하였다. 상품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독일은 서비스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은 상품 무역에서는 2010년과 2009년 모두 수출 10위, 수입 6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서비스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한 중국은 서비스 수출에서는 2010년 4위, 2009년 5위를 차지하였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아직까지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은 더딘 상황이라 판단할 수 있다. 중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품 수지에서 높은 흑자를 기록하는 것과 반대로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수출국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상품 수출국으로는 각각 9위, 7위를 차지하였으나 서비스 수출에서는 19위, 15위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570억 달러 수출액으로 점유율 1.7%, 수입액은 750억 달러로 2.4% 점유율을 기록하여 14위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수출액이 820억 달러로 2.2%의 점유율을 보여 2009년에 비해서는 4단계 상승한 15위를 기록했고, 수입액은 930억 달러로 2.6%의 점유율을 보여 2009년 보다 2단계 상승한 12위를 기록하였다.

일본은 서비스 무역에서 2009년, 2010년 모두 수출 6위, 수입 5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같이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의 경우 상품 무역에서는 두각을 보이고 나타내지 않았으나 서비스 무역에서는 2009년 수출 12위, 수입 12위, 2010년 수출 7위, 수입 7위로 우리나라 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무역을 운송, 여행 및 기타 상업서비스의 3개 부문으로 분류할 경우, 부문별 세계 수출입 비중을 보면 3개 부문의 서비스 중 기타 상업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기타 상업서비스 부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통신, 건설, 보험, 금융, 기술 서비스 및 문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 상업서비스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표 2-15. 세계 서비스 무역의 부문별 수출입 비중

(단위 : 10억 달러, %)

구 분		금액	비 중				
			2010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수출	전 체	3,695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송서비스	785	23.2	22.8	23.2	20.2	21.3
	여행	940	32.1	27.6	24.8	25.6	25.4
	기타 상업서비스	1,970	44.7	49.6	55.0	54.2	53.3
수입	전 체	3,510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송서비스	960	28.4	28.6	28.8	25.4	27.3
	여행	850	29.9	27.0	23.9	24.6	24.1
	기타 상업서비스	1,705	41.7	44.4	47.2	50.0	48.5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p.144

2000년 기준 전체 서비스 무역 수출입액에서 기타 상업서비스는 수출에서 44.7%, 수입에서 4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2008년까지 55.0%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에서는 2009년까지 50.0%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기타 상업서비스의 수출액이 1조 9,700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출액에서 5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1조 7,050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입액에서 48.5%를 차지하였다.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2010년에 일시적 비중 감소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기타 상업서비스의 서비스 무역액은 상대

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운송서비스와 여행 서비스의 무역액 보다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서비스 무역에 있어 3개 부문별 서비스 수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운송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7%, 여행의 경우 6%, 기타 상업서비스의 경우 9%로 나타나 기타 상업서비스의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품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8%이고 서비스 전체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도 8%를 보이고 있다.

표 2-16.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성장률

(단위 : 10억 달러, %)

구 분	금액	연평균 성장률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품	15,238	15	- 22	22	8
상업 서비스	3,665	13	- 12	8	8
운송서비스	783	16	- 23	14	7
여행	936	10	- 9	8	6
기타 상업서비스	1,945	13	- 8	6	9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Report 2011*, p.24

2008년에는 각각의 연평균 성장률이 상품 수출 15%, 상업 서비스 전체 13%, 운송서비스 16%, 여행 10%, 기타 상업서비스 13% 등 모두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한해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상품 부문의 성장률이 -22%로 감소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상품의 무역액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운송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23%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여행과 기타 상업서비스는 -9%, -8%로 10% 이내의 하락률을 보였다. 2010년에 다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의 큰 하락세 때문에 2005년~2010년 평균 성장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IMF의 BOP 통계에서는 서비스를 운송서비스,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정부서비스 등 총 11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도를 기준으로 서비스 부문별 수출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행 부문과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두 부문 모두 24.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여행의 경우 전통적으로 서비스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지만, 사업서비스 부문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무역에 관련된 서비스, 운용리스 서비스와 법률, 회계, 광고, 건축서비스 등 전문·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업서비스 부문은 제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장소적·시간적 제약의 극복과 서비스 공급의 국제적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sup>25)</sup>의 확대 추세로 인하여 계속해서 사업서비스 부문의 무역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7.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구성비 (2010년)

(단위 : 억 달러, %)

운송 서비스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정부 서비스	서비스 합 계
7,854 (20.8)	9,384 (24.9)	834 (2.2)	945 (2.5)	841 (2.2)	2,660 (7.1)	2,152 (5.7)	2,451 (6.5)	9,374 (24.9)	430 (1.1)	748 (2.0)	37,673 (100.0)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 부문은 20.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운송서비스 부문이다. 운송서비스 부문은 화물운송 서비스,

25)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내 핵심역량을 제외한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전략적 차원의 아웃소싱 방식을 말한다. BPO는 기획, 운영, 모니터링까지 거의 모든 단계를 아웃소싱하는 개념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단순업무를 위탁하는 수준의 기존 아웃소싱과는 구분된다.

여객운송 서비스, 기타 운송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화물운송 서비스의 경우 제조업의 업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어 상품의 교역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비스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운송서비스, 여행, 사업서비스 등 3가지 서비스 부문이 세계 서비스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 특허권 등 사용료, 컴퓨터 및 정보, 건설, 보험, 통신, 정부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부문 순으로 점유율의 순위를 이루고 있다.

## 2.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추이

1990년 이후 경상수지의 적자기조를 유지했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1998년에는 환란의 여파로 서비스 수지도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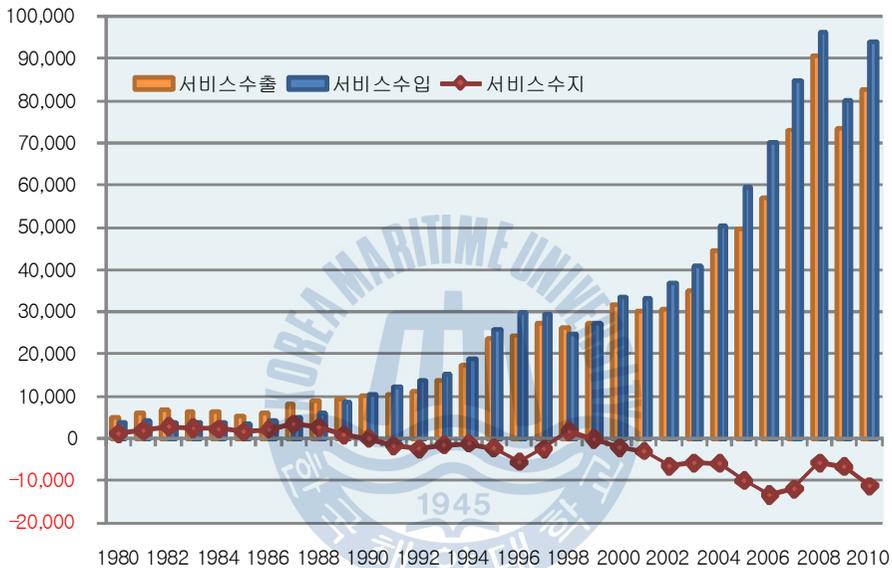
그림 2-8. 한국의 경상수지 추이



주 : 경상수지에는 상품 및 서비스 수지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환란에 의하여 1998년에 일시적으로 기록한 최고치의 경상수지를 제외하고는 2004년에 323억 달러의 경상수지로 정점의 흑자폭을 보였으나 다시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327억 달러의 경상수지를 기록하였다. 1998년부터 상품 수지는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지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림 2-9. 한국의 서비스 무역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서비스 무역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전에는 소득수준이 낮았던 데다 해외여행의 통제, 거주자의 대외송금한도 규제 등 정부의 외환규제로 서비스 수지가 흑자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세계화 등의 정책과 해외여행 자유화 등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서비스 무역 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었다.

서비스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1990년 이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1998년 한 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은 계속해서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 총수출입 금액은 2000년에 651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08년에 1,870억 달러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서비스 무역량이 감소하여 서비스 수지 적자가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2010년에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1980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 무역의 발전단계를 구분하자면 태동기(흑자기) → 적자 전환기 → 적자 확대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동안 서비스 무역의 적자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1982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은 서비스 무역 흑자구조를 보였으나 1990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계속해서 적자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는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더욱 확대되기 시작하여 서비스 수출보다 서비스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표 2-18. 한국의 서비스 무역의 발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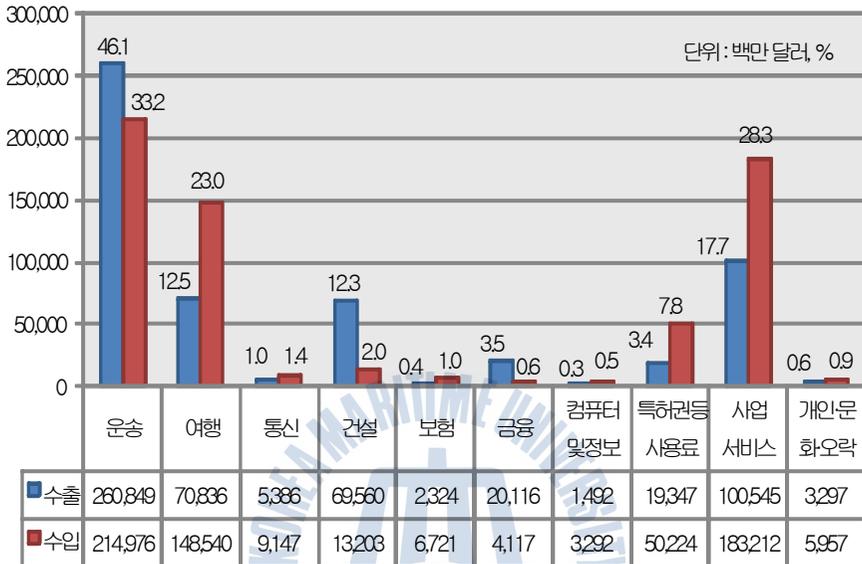
구분	태동기	적자 전환기	적자 확대기
시기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무역 본격화</li> <li>- 연간 교역액 94억 달러</li> <li>▶ 무역 흑자기</li> <li>- '82~'89년 흑자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파른 교역증가</li> <li>- 연평균 11.7% 증가</li> <li>▶ 적자 전환기</li> <li>- 연평균 21.6억 달러 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역증가세 둔화</li> <li>- 연평균 8.6% 증가</li> <li>▶ 적자 심화기</li> <li>- 연평균 116.6억 달러 적자</li> </ul>

자료 : 최용민 외,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 *Trade Focus*, Vol.9 No.46, 국제무역연구원, 2010.9, p.4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문별 누적 수출입액을 살펴보면, 운송서비스가 수출액 2,608억 달러, 수입액 2,15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서비스 수출 및 수입 모두에서 가장 큰 누적 수출입액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액에서 운송서비스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사업서비스 부문은 수출액 1,005억 달러, 수입액 1,832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 및 수입에서 운송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누적 수출입액을 기록하고 있다. 여행 부문은 수출액 708억 달러, 수입액 1,485억 달러로 수출 및 수

입에서 세 번째로 큰 누적 수출입액을 나타냈다. 3개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 부문에서는 교역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한국의 서비스 부문별 누적 수출입 (2000년~2010년)



주 : 데이터 레이블은 비중(%)을 나타내며 데이터 표는 금액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 서비스 무역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운송 부문에서는 2000년 약 137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후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448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수입액은 2000년 약 1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 약 3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운송 서비스 수지도 2000년 약 26억 달러에서 2008년 약 80억 달러, 2010년 약 9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한국 서비스 무역에서 가장 교역규모도 크며 주요 수출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송과 함께 건설, 금융, 정부서비스 부문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여행, 통신, 보험, 컴퓨터 및 정보,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개인·문화·오락 부문 등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표 2-19. 한국의 서비스 무역 업종별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서비스 전체	수지	-2,037	-2,969	-6,442	-5,792	-5,958	-9,952
	수출	31,540	30,200	30,557	34,975	44,540	49,745
	수입	33,577	33,169	36,999	40,767	50,498	59,696
운송	수지	2,639	2,138	1,915	3,567	4,875	3,733
	수출	13,687	13,180	13,216	17,180	22,529	23,877
	수입	11,048	11,043	11,301	13,613	17,655	20,144
여행	수지	-298	-1,233	-4,529	-4,745	-6,281	-9,600
	수출	6,834	6,384	5,936	5,358	6,069	5,806
	수입	7,132	7,617	10,465	10,103	12,350	15,406
통신서비스	수지	-235	-344	-308	-352	-190	-330
	수출	387	398	378	341	446	443
	수입	623	742	685	693	636	773
건설서비스	수지	746	964	1,753	1,645	2,169	3,828
	수출	933	1,190	2,184	2,038	2,659	4,707
	수입	187	226	431	394	490	879
보험서비스	수지	-78	-314	-534	-356	-323	-564
	수출	68	60	37	34	139	169
	수입	146	374	571	390	461	733
금융서비스	수지	514	450	625	597	957	1,416
	수출	705	533	695	699	1,083	1,651
	수입	191	83	70	101	127	235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수지	-81	-88	-105	-104	-132	-126
	수출	11	16	20	30	25	57
	수입	92	104	124	134	157	183
지적재산권등 사용료	수지	-2,533	-2,129	-2,167	-2,259	-2,585	-2,652
	수출	688	924	835	1,311	1,861	1,908
	수입	3,221	3,053	3,002	3,570	4,446	4,561
유지보수 서비스	수지	79	6	18	11	15	-17
	수출	103	37	25	17	99	19
	수입	24	31	7	6	85	36
사업서비스	수지	-3,128	-2,849	-3,602	-4,362	-5,037	-6,115
	수출	7,200	6,388	6,006	6,687	8,125	9,422
	수입	10,328	9,237	9,607	11,049	13,163	15,538
개인,문화, 오락 서비스	수지	-23	-68	-99	-185	-248	-209
	수출	137	138	185	76	128	268
	수입	160	206	283	261	376	477
정부서비스	수지	363	499	589	751	823	686
	수출	787	952	1,043	1,203	1,377	1,418
	수입	425	454	454	453	554	73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2-19. 계속

(단위 : 백만 달러, %)

항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서비스 전체	수지	-13,332	-11,967	-5,734	-6,641	-11,229	27.91
	수출	56,842	72,995	90,635	73,580	82,719	11.09
	수입	70,174	84,962	96,369	80,221	93,949	11.50
운송	수지	2,674	4,481	7,998	5,242	9,252	22.98
	수출	25,807	33,556	44,768	28,693	38,044	13.19
	수입	23,133	29,076	36,770	23,451	28,791	12.01
여행	수지	-13,063	-15,837	-9,292	-5,221	-7,904	69.52
	수출	5,788	6,138	9,774	9,819	9,765	5.05
	수입	18,851	21,975	19,065	15,040	17,669	10.98
통신서비스	수지	-370	-366	-425	-502	-575	13.75
	수출	642	547	724	725	742	8.30
	수입	1,012	913	1,149	1,227	1,317	8.71
건설서비스	수지	5,695	7,869	11,079	11,747	9,608	32.88
	수출	7,003	9,698	13,686	14,553	11,842	32.79
	수입	1,308	1,828	2,608	2,806	2,235	32.51
보험서비스	수지	-580	-585	-277	-395	-469	41.77
	수출	274	415	466	340	391	38.54
	수입	854	1,000	744	735	860	27.80
금융서비스	수지	1,996	3,304	3,095	1,573	1,987	20.76
	수출	2,543	4,001	3,785	2,280	2,847	20.51
	수입	547	696	691	708	860	26.69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수지	-350	-204	-268	-183	-242	21.73
	수출	248	340	304	218	235	57.66
	수입	598	544	571	401	477	28.64
지적재산권등 사용료	수지	-2,605	-3,399	-3,274	-3,989	-5,819	9.98
	수출	2,046	1,735	2,382	3,199	3,146	18.80
	수입	4,650	5,134	5,656	7,188	8,965	11.35
유지보수 서비스	수지	64	48	4	-4	-28	-23.79
	수출	82	77	47	27	14	47.35
	수입	18	29	44	31	42	124.42
사업서비스	수지	-7,173	-7,409	-14,279	-15,005	-16,836	20.61
	수출	10,532	14,421	12,965	12,088	13,910	7.85
	수입	17,705	21,829	27,245	27,094	30,746	12.06
개인,문화, 오락 서비스	수지	-302	-482	-364	-323	-381	42.89
	수출	369	448	528	523	635	25.08
	수입	671	929	891	846	1,016	21.94
정부서비스	수지	681	612	270	419	179	0.69
	수출	1,509	1,620	1,206	1,115	1,150	4.70
	수입	828	1,009	936	696	971	10.2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여행 부문의 경우 2000년 수출 약 68억 달러, 수입 약 71억 달러로 약 3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며 2007년에 수출 약 61억 달러, 수입 약 220억 달러로 약 15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의 서비스 무역에서 대표적인 수입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도 2000년에 수출액이 약 72억 달러, 수입액이 약 103억 달러로 약 31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수출액이 약 139억 달러, 수입액이 약 307억 달러로 약 16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사업서비스 부문 또한 여행 부문과 함께 주요 수입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 부문과 사업서비스 부문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부문도 2000년 수출 약 7억 달러, 수입 약 32억 달러로 약 25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며, 2010년에 수출 약 31억 달러, 수입 약 90억 달러로 약 5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 부문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수입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건설서비스의 흑자가 약 96억 달러, 운송서비스는 약 93억 달러, 금융서비스는 약 20억 달러, 정부서비스는 약 1억 달러 순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나머지 부문에서는 사업서비스의 적자가 약 168억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여행서비스가 약 79억 달러,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부문이 약 58억 달러, 통신서비스가 약 6억 달러, 보험서비스가 약 5억 달러, 개인·문화·오락 서비스가 약 4억 달러,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부문이 약 2억 달러 순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서비스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하여 전체 서비스 무역량에서 업종별로 차지하는 무역량 비중을 살펴보면, 운송서비스가 평균 3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서비스가 평균 23.4%, 여행이 19.0%, 건설서비스가 평균 6.0%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가 평균 5.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서비스 무역의 대부분인 93.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서비스, 금융서비스가 각각 1.8%, 통신서비스가 1.3%를 차지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1% 미만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0. 한국의 서비스 무역 업종별 비중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항 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 균
서비스 전체	63,369 (100.0)	67,556 (100.0)	75,741 (100.0)	95,039 (100.0)	109,441 (100.0)	127,016 (100.0)	157,957 (100.0)	187,004 (100.0)	153,801 (100.0)	176,668 (100.0)	121,359 (100.0)
운송	24,223 (38.2)	24,517 (36.3)	30,793 (40.7)	40,184 (42.3)	44,021 (40.2)	48,940 (38.5)	62,632 (39.7)	81,538 (43.6)	52,144 (33.9)	66,835 (37.8)	47,583 (39.1)
여행	14,001 (22.1)	16,400 (24.3)	15,461 (20.4)	18,419 (19.4)	21,212 (19.4)	24,638 (19.4)	28,114 (17.8)	28,839 (15.4)	24,858 (16.2)	27,434 (15.5)	21,938 (19.0)
통신서비스	1,139 (1.8)	1,063 (1.6)	1,034 (1.4)	1,081 (1.1)	1,216 (1.1)	1,654 (1.3)	1,460 (0.9)	1,873 (1.0)	1,952 (1.3)	2,060 (1.2)	1,453 (1.3)
건설서비스	1,415 (2.2)	2,614 (3.9)	2,432 (3.2)	3,149 (3.3)	5,586 (5.1)	8,311 (6.5)	11,526 (7.3)	16,294 (8.7)	17,359 (11.3)	14,077 (8.0)	8,276 (6.0)
보험서비스	434 (0.7)	608 (0.9)	424 (0.6)	600 (0.6)	901 (0.8)	1,128 (0.9)	1,415 (0.9)	1,210 (0.6)	1,075 (0.7)	1,251 (0.7)	905 (0.7)
금융서비스	616 (1.0)	764 (1.1)	800 (1.1)	1,210 (1.3)	1,886 (1.7)	3,090 (2.4)	4,697 (3.0)	4,476 (2.4)	2,988 (1.9)	3,707 (2.1)	2,423 (1.8)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120 (0.2)	144 (0.2)	163 (0.2)	182 (0.2)	240 (0.2)	846 (0.7)	884 (0.6)	875 (0.5)	618 (0.4)	712 (0.4)	478 (0.4)
지적재산권등 사용료	3,976 (6.3)	3,838 (5.7)	4,881 (6.4)	6,307 (6.6)	6,469 (5.9)	6,696 (5.3)	6,869 (4.3)	8,037 (4.3)	10,387 (6.8)	12,110 (6.9)	6,957 (5.8)
유지보수 서비스	69 (0.1)	31 (0.0)	23 (0.0)	184 (0.2)	55 (0.1)	100 (0.1)	105 (0.1)	91 (0.0)	58 (0.0)	55 (0.0)	77 (0.1)
사업서비스	15,626 (24.7)	15,613 (23.1)	17,737 (23.4)	21,288 (22.4)	24,960 (22.8)	28,237 (22.2)	36,250 (22.9)	40,210 (21.5)	39,182 (25.5)	44,656 (25.3)	28,376 (23.4)
개인,문화, 오락 서비스	345 (0.5)	468 (0.7)	338 (0.4)	504 (0.5)	745 (0.7)	1,039 (0.8)	1,377 (0.9)	1,419 (0.8)	1,369 (0.9)	1,651 (0.9)	925 (0.7)
정부 서비스	1,406 (2.2)	1,496 (2.2)	1,656 (2.2)	1,931 (2.0)	2,151 (2.0)	2,338 (1.8)	2,629 (1.7)	2,143 (1.1)	1,810 (1.2)	2,121 (1.2)	1,968 (1.8)

주 : 1. 무역량은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임.

2. ( ) 안은 서비스산업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2-21. 한국의 서비스 업종별 수출입 비중 변화

(단위 : %)

항 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 균
서비스 전체	수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송	수출	43.6	43.2	49.1	50.6	48.0	45.4	46.0	49.4	39.0	46.0	46.0
	수입	33.3	30.5	33.4	35.0	33.7	33.0	34.2	38.2	29.2	30.6	33.1
여행	수출	21.1	19.4	15.3	13.6	11.7	10.2	8.4	10.8	13.3	11.8	13.6
	수입	23.0	28.3	24.8	24.5	25.8	26.9	25.9	19.8	18.7	18.8	23.7
통신서비스	수출	1.3	1.2	1.0	1.0	0.9	1.1	0.7	0.8	1.0	0.9	1.0
	수입	2.2	1.9	1.7	1.3	1.3	1.4	1.1	1.2	1.5	1.4	1.5
건설서비스	수출	3.9	7.1	5.8	6.0	9.5	12.3	13.3	15.1	19.8	14.3	10.7
	수입	0.7	1.2	1.0	1.0	1.5	1.9	2.2	2.7	3.5	2.4	1.8
보험서비스	수출	0.2	0.1	0.1	0.3	0.3	0.5	0.6	0.5	0.5	0.5	0.4
	수입	1.1	1.5	1.0	0.9	1.2	1.2	1.2	0.8	0.9	0.9	1.1
금융서비스	수출	1.8	2.3	2.0	2.4	3.3	4.5	5.5	4.2	3.1	3.4	3.3
	수입	0.2	0.2	0.2	0.3	0.4	0.8	0.8	0.7	0.9	0.9	0.5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수출	0.1	0.1	0.1	0.1	0.1	0.4	0.5	0.3	0.3	0.3	0.2
	수입	0.3	0.3	0.3	0.3	0.3	0.9	0.6	0.6	0.5	0.5	0.5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출	3.1	2.7	3.7	4.2	3.8	3.6	2.4	2.6	4.3	3.8	3.4
	수입	9.2	8.1	8.8	8.8	7.6	6.6	6.0	5.9	9.0	9.5	8.0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0.1	0.1	0.0	0.2	0.0	0.1	0.1	0.1	0.0	0.0	0.1
	수입	0.1	0.0	0.0	0.2	0.1	0.0	0.0	0.0	0.0	0.0	0.0
사업서비스	수출	21.2	19.7	19.1	18.2	18.9	18.5	19.8	14.3	16.4	16.8	18.3
	수입	27.8	26.0	27.1	26.1	26.0	25.2	25.7	28.3	33.8	32.7	27.9
개인,문화, 오락 서비스	수출	0.5	0.6	0.2	0.3	0.5	0.6	0.6	0.6	0.7	0.8	0.5
	수입	0.6	0.8	0.6	0.7	0.8	1.0	1.1	0.9	1.1	1.1	0.9
정부서비스	수출	3.2	3.4	3.4	3.1	2.9	2.7	2.2	1.3	1.5	1.4	2.5
	수입	1.4	1.2	1.1	1.1	1.2	1.2	1.2	1.0	0.9	1.0	1.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출액과 수입액을 나누어 전체 서비스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각각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수출액 비중에서는 역시 운송서비스가 평균 4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서비스가 평균 18.3%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여행이 1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서비스도 10.7%로 수출액과 수입액 합계 비중에서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와 금융서비스가 각각 평균 3.4%, 3.3%를 차지하여 금융서비스도 수출액·수입액 합계 비중에서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부서비스가 평균 2.5%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등은 1% 이하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수입액 비중에서도 운송서비스가 평균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업서비스가 평균 27.9%, 여행이 23.7%,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가 8.0%를 차지하였다. 수출액 비중과는 달리 수입액에서 건설서비스는 평균 1.8%의 비중에 그쳤다. 그리고 통신서비스가 평균 1.5%, 보험서비스와 정부서비스가 각각 1.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등은 1% 미만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 제3장 서비스 무역의 결정요인 분석

### 제1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앞서 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서비스 무역의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상품 무역에서 무역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모형의 하나인 중력모형을 서비스 무역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중력 모형과 이론적 배경

중력모형(Gravity Model)은 17세기 과학혁명의 상징적 인물로 대표되는 영국 출신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였던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국가 간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도입한 모형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물리학에서 다루는 자연현상 중 기본이 되는 것으로 우주 속의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법칙이다. 이러한 원리를 국제무역이론에 응용한 모형으로서 모든 경제를 각각의 독립된 유기체 덩어리로 간주하여 각 유기체간의 무역패턴(인력)이 경제규모(질량) 및 거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쌍무적 무역규모 및 형태를 예측하는 모형이다.<sup>26)</sup>

이 중력방정식의 기본전제는 양국 간 무역규모가 양국의 GDP의 곱에 비례하고 양국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정식으로 단순히 표현할 수 있다.<sup>27)</sup>

26) 손찬현, 윤진나,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기초한 韓國의 교역패턴 및 지역경제권의 영향”, 「대의 경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p5

27) 문병철, “FTA의 교역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 서비스교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2, p29

$$T_{ij} = A \cdot \left( \frac{Y_i Y_j}{D_{ij}} \right) \quad (\text{식 3-1})$$

$T_{ij}$  : 양국(i국 및 j국)간 교역규모 (수출+수입)

$Y_i$  : i국의 GDP

$Y_j$  : j국의 GDP

$D_{ij}$  : i국과 j국 사이의 거리

A : 비례상수

(식 3-1)과는 달리 최근에는 기본적인 중력모형에서 보다 확장된 형태의 모형이 실증분석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즉, 무역당사국의 GDP, 국가 간 거리뿐 아니라 인구, 국가 간의 인접 정도, 국토면적 등 지리적 요인과 공통언어 사용 여부, 지역경제의 통합 여부, 경제개방 정도, 역사적 유대성 등의 문화적 근접성을 설명하는 변수를 포함하여 국가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관계를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즉, 확장된 형태의 중력모형은 기본중력 모형에 다양한 정성적 요인들을 포함한 변수벡터를 추가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sup>28)</sup>

$$T_{ij} = A \cdot \left( \frac{Y_i Y_j}{D_{ij}} \right) \cdot Z_{ij} \quad (\text{식 3-2})$$

여기에서  $Z_{ij}$ 는 주요 변수인 양국의 GDP와 국가 간 거리 이외에도 양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다른 변수나 국토면적 그리고 양국 간 무역을 촉진시키거나 저해하는 더미변수로 공통국경, 공통언어, 내륙성, 해양성, 경제통합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중력모형이 도입된 초기에는 모형의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중력모형은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Tinbergen(1962)과

28) 조현승, 박문수, 이경희, 김친곤, “서비스산업 무역구조 및 무역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제550호, 산업연구원, 2009.12, p.93

Pöynönen(1963)에 의해 국제무역이론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중력 방정식을 바탕으로 하여 양국 간 교역에 대한 최초의 계량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이론화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실증적 분석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근 20여 년 동안 중력모형은 계량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의 부족으로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하였다.<sup>29)</sup>

Pöynönen(1963)은 중력법칙의 질량에 상응하는 것으로 국민소득 혹은 일인당 국민소득을 사용하였고, 중력법칙의 거리에 상응하는 것으로 운송비를 사용하였다. 이후 중력모형의 이용은 Linnemann(1966)을 비롯한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sup>30)</sup> 중력모형의 이론적 토대는 Anderson(1979)의 연구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이후 Krugman & Helpman(1985), Bikker(1987), Bergstrand(1989), Biessen(1991), Deardorff(1995), Eventt & Keller(1998) 등에 의해 많은 이론적 모형이 제시되었다.

중력모형의 주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국제무역이론으로 제품차별화모형(Differentiated Products model)과 헉셔-올린모형(H-O model: Heckscher-Ohlin model)을 들 수 있다. Anderson(1979)과 Krugman & Helpman(1985)은 독점적 경쟁하의 제품차별화모형에 입각하여 쌍무적 무역규모와 무역 당사자국인 양국 GDP의 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Krugman & Helpman(1985)은 기업 간의 독점적 경쟁시장구조 및 제품차별화를 전제로 하는 불완전대체제모형(Imperfect Substitute Model)하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은 상품의 양이 아니라 상품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커지면 상품의 생산량이 아닌 상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국가 간 무역을 통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대시키면 효용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국제무역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양국 간의 제품차별화를 통한 무역확대는 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상호간 무역도 확대될 것이라는 중력모형의 설정을 충족하고 있다.

29) 손찬현, 윤진나, 전개서, p5

30) 이 철, “중력모형을 적용한 한국무역(1996-2000)의 실증적 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6.2, p44

Bikker(1987)는 중력모형이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적하였으며, Hummels and Levinsohn(1995)은 非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독점적 경쟁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산업간 교역이 활발한 개발도상국들의 교역패턴을 설명하는데 중력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밝혀내어 헥서-올린모형이 중력모형의 또 다른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증명하였다.

또한 Deardorff(1995)는 동일 상품의 생산과 완전경쟁체제를 기본전제로 하는 헥서-올린모형의 가정을 적절하게 적용할 경우 중력모형의 기본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Evenett & Keller(1998)는 완전특화가 아닌 불완전특화, 즉 각 국별로 동일 상품과 차별화된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불완전 분업체제를 전제로 할 경우 헥서-올린모형과 제품차별화 모형 둘 다 중력모형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중력모형과 관련한 국내 연구로, 함시창(1997)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한국의 주요교역국들의 교역과정에서 지리적 여건들과 경제통합화 현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리적 거리 또는 인접성이 교역 수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력모형으로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무역량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대상국들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에 따라 교역형태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2. 중력모형을 활용한 서비스 무역 선행연구

세계 각국에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 무역규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무역패턴과 비교우위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서비스무역의 특성 또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Freund & Weinhold(2002)는 미국과 31개 국가 간의 1995년부터 1999년 동안의 14개 서비스무역 부문(교육, 금융, 통신, 광고, 컴퓨터 등)에 대해 GDP, 인터넷 성숙도, 환율, 거리, 인구, 언어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세계 서비스 산업의 총 산출량이 60%에 이르지만 무역규모는 20%에 머무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면성, 동일언어, 동일법률 등 서비스산업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분석결과는 인터넷의 발달이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서비스 무역규모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산 유발로 이어져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Grünfeld & Moxnes(2003)는 OECD 22개 회원국과 이를 포함한 55개 무역 상대국간의 서비스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하여 지역무역협정, 부패지수, 교역장벽지수 등의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와 서비스무역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벽은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음(-)의 효과를 가지므로 이러한 장벽의 제거를 통해 수출증대 효과가 있으며 대상국들 모두가 혜택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서비스무역은 자국시장편향성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며, 지역무역협정은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산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 무역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Mirza & Nicoletti(2004)는 OECD 20개 회원국과 27개 상대국간의 5개 서비스 무역 부문에 대하여 임금, 인적자본 등의 설명변수로 그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수출국과 수입국이 동시에 교역 대상 서비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그 과정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서비스 무역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러한 연유로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상품 무역의 비중보다 낮다고 보았다.

Jansen & Piermartini(2004)는 미국과 영국의 일시적 고용통계를 활용하여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나타난 네 가지 서비스 공급형태 중 mode 4(자연인의 주재)의 개방으로 인한 서비스 무역의 변화와 이에 따른 mode 1(국경간 공급) 및 mode 2(해외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mode 4의 증가가 상품 교역량의 증가를 초래하며, mode 1의 서비스 수출입과 FDI의 유출입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Lejour & Verheijden(2004)는 EU 회원국과 캐나다 연방간의 서비스 무역

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EU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시장규모가 무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캐나다 연방의 경우에는 자국의 시장규모가 무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수입국의 규제와 언어차이는 서비스 무역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상품 무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Kimura & Lee(2006)는 지역무역협정, 상대적 거리, 경제자유도 등의 설명 변수를 사용하여 1999년부터 2000년까지 OECD 10개 회원국과 47개 상대국 간 서비스 무역과 상품 무역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품 무역에서 보다 서비스 무역에서 거리 및 경제자유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지역무역협정은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둘 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Dihel & Eschenbach & Shepherd(2006)는 OECD 회원국과 비OECD 회원국을 포함한 53개국의 7개 서비스 무역 부문(금융, 보험, 통신 등)을 대상으로 남-남 서비스 무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 간의 서비스 무역은 주로 지역권별로 이루어지며, 상품 무역에서 보다 서비스 무역에서 거리변수가 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분석한 국내 연구로, 문병철(2007)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OECD 26개 회원국을 포함한 28개국과 전 세계 175개국 간의 서비스 무역량과 OECD 30개 회원국과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50개국 간의 상품무역량을 데이터로 지역무역협정이 서비스 무역과 상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무역은 수입국의 소득보다는 수출국의 소득에 의존하는 자국시장편향의 특징을 보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 간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지역무역협정 효과의 추세는 상품 무역에 대한 지역무역협정 효과의 추세와 다른 형태를 나타내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추이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 제2절 분석 모형 및 자료

### 1. 분석 모형 및 변수

본 연구에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구성된 중력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 EX_{ij,t} = & \beta_0 + \beta_1 \ln GDP_{i,t} + \beta_2 \ln GDP_{j,t} + \beta_3 \ln PcGDP_{i,t} \\ & + \beta_4 \ln PcGDP_{j,t} + \beta_5 \ln Free_{j,t} + \beta_6 \ln Dist_{ij} + \beta_7 border_{ij} \\ & + \beta_8 colony_{ij} + \beta_9 comcol_{ij} + \beta_{10} comlang_{ij} + \beta_{11} island_{ij} \\ & + \beta_{12} land_{ij} + \epsilon_{ij,t} \end{aligned} \quad (\text{식 3-3})$$

(식 3-3)에서  $i$ 는 자국(수출국)을  $j$ 는 상대국(수출대상국),  $t$ 는 시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상기 (식 3-3)에 포함되어 있는 각 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n EX_{ij,t}$  :  $t$  시점에서의  $i$ 국과  $j$ 국의 교역규모 ( $i$ 국의  $j$ 국으로의 수출액)

$\ln GDP_{i,t}$  :  $t$  시점에서의  $i$ 국의 GDP

$\ln GDP_{j,t}$  :  $t$  시점에서의  $j$ 국의 GDP

$\ln PcGDP_{i,t}$  :  $t$  시점에서의  $i$ 국의 1인당 GDP

$\ln PcGDP_{j,t}$  :  $t$  시점에서의  $j$ 국의 1인당 GDP

$\ln Free_{j,t}$  :  $t$  시점에서의  $j$ 국의 경제자유도

$\ln Dist_{ij}$  :  $i$ 국과  $j$ 국 사이의 거리

$border_{ij}$  :  $i$ 국과  $j$ 국의 공통국경 여부(더미변수 : 양국의 영토가 접해 있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

$colony_{ij}$  :  $i$ 국과  $j$ 국이 식민지국과 피식민지국의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더미변수 : 식민지국-피식민지국 관계가 있었으면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

comcol<sub>ij</sub> : i국과 j국의 공통식민지 여부(더미변수 : 양국이 함께 1945년 이전에 동일 국가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

comlang<sub>ij</sub> : i국과 j국의 공통언어 여부(더미변수 : 양국이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

island<sub>ij</sub> : i국과 j국의 해양성 여부(더미변수 : 양국이 각각 섬인지의 여부로 섬인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되 이를 합산(2,1,0)한 값)

land<sub>ij</sub> : i국과 j국의 내륙성 여부(더미변수 : 양국이 각각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지의 여부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되 이를 합산(2,1,0)한 값)

상기의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  $\ln EX_{ijt}$ 는 전체 서비스 산업 무역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모형에서는 i국가에서 j국가로의 서비스 수출액을 말한다.

설명변수  $\ln GDP_{i,t}$ 와  $\ln GDP_{j,t}$ 는 서비스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양국의 생산능력이나 시장규모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의 GDP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출국 측면에서는 생산성의 증가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와 비교우위가 발생하여 자국의 수출품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여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국 측면에서는 자국의 시장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외국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국의 GDP가 증가할수록 서비스 무역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양국의 1인당 GDP를 나타내고 있는 설명변수  $\ln PcGDP_{i,t}$ 와  $\ln PcGDP_{j,t}$ 는 결국 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의미하므로, 이는 서비스 무역의 규모가 앞서 제시한 전체 GDP 즉, 상대국의 전반적 경제규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국의 소득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이다.

서비스 무역 상대국의 경제자유도를 나타내고 있는 설명변수  $\ln Free_{j,t}$ 는 무역

상대국의 제도나 정책이 얼마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상대국 경제자유도의 증가는 서비스 무역액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중력모형에서 대표적인 무역장벽의 요인으로 인식하는 양국 간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설명변수  $\ln Dist_{ij}$ 는, 계량적 측정이 쉽지 않은 운송비용이나 이동에 필요한 소요시간 또는 시장접근 등의 장벽요인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국 간 거리는 그 값이 클수록 서비스 무역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머지 더미변수들인  $border_{ij}$ ,  $colony_{ij}$ ,  $comcol_{ij}$ ,  $comlang_{ij}$ ,  $island_{ij}$ ,  $land_{ij}$ 는 중력모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국경의 인접여부, 과거 식민지 또는 피식민지 관계 여부, 동일언어의 사용여부, 해양국가인지 내륙국가인지의 여부 등과 같은 한 국가의 경제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나타내는 의미들 중에서 양국 간 국경이 인접하다거나, 공통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국 간 시장접근성이 높아 서비스 무역규모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의 분석모형에서 기타 더미변수 외에는 모두 로그선형을 취했기 때문에  $\beta$ 는 탄력성을 의미하게 된다. 즉,  $\beta_1 \sim \beta_6$ 는 각 설명변수의 1% 변화가 양국 간 서비스 교역액에 미치는 영향의 %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 2. 분석대상 자료 및 기초 통계치

모형의 분석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쌍무적(bilateral) 서비스 무역규모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OECD 34개 회원국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서비스 무역량은 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연도별 회원국 간 쌍무적 서비스 무역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서비스 수출액 데이터는 OECD의 통계 DB인 OECD.StatExtracts에 탑재된 *International Trade and Balance of Payments*의 *Trade in services by partner country*에서 추출하였다.<sup>31)</sup>

분석대상 국가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연도별 GDP 및 인구 자료는 세계은행(WB,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세계개발지표(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의 DB에서 2000년 기준 실질 데이터로 추출하였으며, 1인당 GDP는 이 데이터를 계산하여 산출하였다.<sup>32)</sup>

설명변수의 하나인 경제자유도는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세계경제자유도(EFW,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에서 추출하였다.<sup>33)</sup> EFW는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정부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은지, 자본·노동·기업과 그 활동에 대한 규제는 과다하지 않은지, 무역에 대한 장벽이 높지는 않은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경제적 자유를 측정하고 수치화하여 제시하고 있다.<sup>34)</sup>

한편 중력모형에서 주요한 무역장벽요인으로 간주되는 양국 간의 거리는 양국 주요 도시간의 위도와 경도로 측정된 대권거리(great circle distance)를 의미한다. 이 거리변수와 양국 간의 접경여부, 언어의 동질성, 과거 식민지 여부, 내륙 또는 섬의 여부 등 당사국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타 더미변수들은 Rose(2004)에서 추출하여 활용하였다.<sup>35)</sup>

31) 자료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

OECD 회원국 간 쌍무적 서비스 수출액 데이터는 OECD.StatExtracts / Browse Themes / International Trade and Balance of Payments / Trade in Services / Trade in services by partner country / EBOPS 2002 - Trade in services by partner country 에서 추출하였다.

32) 자료출처 [http://databank.worldbank.org/databank/download/WDIandGDF\\_excel.zip](http://databank.worldbank.org/databank/download/WDIandGDF_excel.zip)

33) 경제적 자유란, 타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자유의 수준을 실제로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에서는 세계 약 75개국의 연구소와 협력하여 1970년도부터 경제자유도라는 개념을 지수화해 국가별로 그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경제자유도(EFW)는 항목별 최대 10점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자유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평가항목은 1) 정부의 규모, 2) 법률체계와 재산권, 3) 통화의 건전성, 4) 국제무역에서의 자유, 5) 신용·노동시장과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 등 5개 항목으로 이를 평균하여 나타낸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The Wall Street Journal)에서도 공동으로 이와 유사한 경제자유지수(IEF, Index of Economic Freedom)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34) 자료출처 <http://www.freetheworld.com/2011/reports/world/EFWdataset2011.xls>

35) 자료출처 <http://faculty.haas.berkeley.edu/arose/StabData.zip>

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서비스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한 중력모형에서의 각 변수의 현황과 기초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표 3-1. 각 변수 현황 및 기초 통계치

변수명	내 용	출 처	평 균	표준편차
Export	자국의 상대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액 (단위 : \$백만)	OECD	1752.51	4555.92
Cty1_rGDP	자국의 실질GDP (단위 : \$억, 2000년 기준)	WDI	7427.65	15950.23
Cty2_rGDP	상대국의 실질GDP (단위 : \$억, 2000년 기준)	WDI	9680.94	21464.59
Cty1_rGDPpc	자국의 1인당 실질GDP (단위 : \$백만, 2000년 기준)	WDI	21980.00	11406.77
Cty2_rGDPpc	상대국의 1인당 실질GDP (단위 : \$백만, 2000년 기준)	WDI	21572.52	12069.21
Cty2_freedom	상대국의 경제자유도 (0~10점, 클수록 자유도가 높음)	EFW	7.4356	0.55
Dist	양국 간 거리 (단위 : mile)	Rose(2004)	2715.58	2914.26
Border	양국 국경이 접하는지 여부 (접경=1, 비접경=0)	Rose(2004)	0.09	0.28
Colony	과거 양국 간 식민-피식민지 관계 여부 (관계 있음=1, 없음=0)	Rose(2004)	0.03	0.17
Comcolony	과거 공통 피식민지 역사 경험 여부 (경험 있음=1, 없음=0)	Rose(2004)	0.00	0.52
Comlang	양국 공통 언어 사용 여부 (공통언어 사용=1, 미사용=0)	Rose(2004)	0.09	0.29
Island	영토의 해양성 (섬=1, 섬×=0) (양국의 값 합산하여 2, 1, 0)	Rose(2004)	0.17	0.39
Land	영토의 내륙성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면=1, 그렇지 않으면=0) (양국의 값 합산하여 2, 1, 0)	Rose(2004)	0.38	0.55
Observations	관측치 수		6208	

### 제3절 결정요인 분석결과

제2절에서 제시된 분석모형에 따라 추정된 서비스 무역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2]와 같다. 먼저 해당 모형의 적합성을 보았을 때  $R^2$ 값이 0.827로 나타났으므로, 이 모형이 서비스 무역에서 수출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수출액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GDP는 양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교역당사국의 생산능력 또는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GDP의 증가는 자국의 서비스 수출품에 대한 공급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GDP의 증가는 또한 외국의 서비스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는 여력, 즉 시장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비스 수출국 GDP와 수입국 GDP의 증가는 모두 서비스 교역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분석모형에 따라 추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자국(수출국) GDP와 상대국(수입국)의 GDP 모두 서비스 무역(자국에서 상대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에 양(+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치상으로 자국(수출국) GDP의 1% 증가는 0.76%의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의 증가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대국(수입국) GDP의 1% 증가는 자국(수출국) GDP 증가 효과와 비슷한 수준인 0.79%의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국(수출국)과 상대국(수입국)의 GDP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영향력으로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에 양(+ )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1인당 GDP의 영향을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국(수출국)의 1인당 GDP와 상대국(수입국)의 1인당 GDP 모두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에 양(+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GDP 변수와는 달리 1인당 GDP 변수에서는 자국

(수출국)의 1인당 GDP의 1% 증가는 0.62%의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상대국(수입국)의 1인당 GDP의 1% 증가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0.23%의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서비스 무역(수출량) 결정요인 분석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 수	-18.486	0.394		-46.891	0.000
lnGDP_Cty1	0.762	0.009	0.522	81.154	0.000
lnGDP_Cty2	0.789	0.009	0.570	88.477	0.000
lnGDPpc_Cty1	0.618	0.022	0.175	28.652	0.000
lnGDPpc_Cty2	0.225	0.023	0.071	9.573	0.000
lnFree_Cty2	5.319	0.199	0.184	26.689	0.000
lnDist	-0.969	0.017	-0.485	-57.463	0.000
Border	0.169	0.052	0.022	3.269	0.001
Colony	0.424	0.075	0.033	5.666	0.000
Comcolony	2.685	0.230	0.064	11.654	0.000
Comlang	0.430	0.047	0.056	9.092	0.000
Island	-0.133	0.038	-0.023	-3.469	0.001
Land	-0.023	0.025	-0.006	-0.919	0.358
R-squared	0.827				
Observations	6086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그 무역량(수출액)은 상대국(수입국)의 소득 보다는 자국(수출국)의 소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비스 수출의 경우 자국시장편향(home market effect)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제1절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인 Grünfeld & Moxnes(2003)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는 서비스 수출에서는 자국시장편향성이 존재하며,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은 수출시장의 규모 보다는 제품차별화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크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동질성을 특성으로 가지는 상품(특히 공산품)과 달리 이질성(차별성)을 특성으로 가지는 서비스의 경우 그 수출에 있어서 자국시장 편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출 상대국(수입국)의 경제자유도(Cty2\_freedom)가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자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 )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보면 경제자유도가 1% 증가하면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은 5.32%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력모형에서 주요한 설명변수로 운송비용, 소요시간, 시장접근성 등 계량화시키기 어려운 무역장벽 요인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양국 간 거리(Dist)가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에 대하여 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거리가 가까울수록(Dist값이 작을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멀어질수록(Dist값이 클수록) 효과가 감소되는 음(-)의 효과로 지리적 장애요인이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거리의 1% 증가는 0.97%의 서비스 무역량(수출액) 감소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은 분석모형에서 기타 더미변수로 포함된 자국(수출국)과 상대국(수입국) 간의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이나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양국 간 국경의 인접 여부, 식민지 또는 피식민지 경험 등 국가 간의 역사적 관계, 양국의 공통 언어 사용 여부, 영토가 육지로 둘러싸인 내륙국이나 아니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이나 등 다양한 국가

의 특성들이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무역당사국들의 역사적 또는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더미변수(Border, Colony, Comcolony, Comlang)와 당사국들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더미변수(Island, Land)로 나누어 분석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양국 간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는 양국 간 국경의 인접 여부나 식민지-피식민지 관계 또는 동일국에 대한 피식민지 경험 여부 등은 모두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에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국에 대한 피식민지 경험 여부는 다른 더미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양(+의 효과를 보였다. 당사국들의 지리적 특성을 의미하고 있는 내륙국 여부 및 해양국 여부의 경우에서 해양국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륙국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는 모형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에 나타나 있는 수치 중 표준화된 베타계수(Standardized beta coefficient)로 설명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수 값을 살펴보면, 상대국(수입국)의 GDP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변수가 종속변수인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에 양(+의 효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서로 자국(수출국)의 GDP값이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양국 간 거리가 서비스 무역량(수출액)에 대하여 음(-)의 효과로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국(수입국)의 경제자유도, 자국(수출국)의 1인당 GDP, 상대국(수입국)의 1인당 GDP 순으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4절 요약 및 결론

이번 장에서는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서비스 무역에 있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OECD 34개 회원국을 서비스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보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회원국 간 쌍무적(bilateral) 서비스 교역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는 서비스 무역규모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국(서비스 수출국)에서 상대국(수출 대상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액을 서비스 무역규모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생산능력이나 시장규모를 설명하는 양국의 GDP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양국의 1인당 GDP, 상대국(수입국)의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얼마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지를 측정해주는 경제자유도, 그리고 계량적으로 측정이 쉽지 않은 운송비용 등의 무역장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양국 간 거리가 포함되었다. 또한 기타 더미변수로 역사적·문화적·지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국경의 인접, 과거 식민지 경험, 공통언어, 해양국 또는 내륙국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수와 분석모형으로 서비스 무역에서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국(수출국)과 상대국(수입국)의 GDP는 모두 서비스 무역에 양(+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의 경우 자국(수출국)과 상대국(수입국)의 영향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GDP의 경우에는, 역시 자국(수출국)과 상대국(수입국) 모두 서비스 무역에 양(+ )의 영향을 보이고 있지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 상대국(수입국)의 1인당 GDP 보다 오히려 자국(수출국)의 1인당 GDP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품 수출의 경우 수입국의 구매력, 즉 소득이 높으면 소비가 더 많이 발생하여 수출이 더 많이 되는 형태로, 수출국의 소득 보다 수입국의 소득이 수출액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수입국의 소득 보다 수출국의 소득이 수출

액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 무역은 제품의 차별화에 따른 독점적 경쟁모형에 부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 수출이 상대국(수입국)의 소득 보다는 자국(수출국)의 소득에 의존하는 자국시장편향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무역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또는 확대에 의한 이득이 이미 서비스 산업에서 큰 시장규모를 확보한 국가, 주로 선진국이 더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서비스 무역에서의 이런 특성은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산업으로 무역패턴과 비교우위를 변화시킨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세계 서비스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세계 서비스 수출에서 매우 높은 국제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품 수지와는 달리 서비스 수지는 매우 큰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시 서비스 무역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서비스 무역에서 약한 국제경쟁력으로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어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하기 전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서비스 무역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자유도 또한 서비스 무역에 양(+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무역 당사국 간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무역이 더욱 활발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하였듯이 경제자유도는 한 국가에서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정부의 규모, 자본·노동·기업과 그 활동에 대한 규제, 무역에 대한 장벽 등을 측정하고 점수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환경에 자유도를 높이고 국내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장벽도 합리적으로 낮추고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그래서 높은 효율성

과 강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타 더미변수로 분석된 서비스 교역국 간의 언어 및 역사적 관계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들 또한 서비스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 근접성이 서비스 무역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근래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한류(韓流, Korean Wave)의 바람과 같이 국가 간 문화교류의 증가를 통한 친밀도 상승이 서비스 무역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한 단기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출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많은 국가들과 문화적 근접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 제4장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 제1절 국제경쟁력 분석방법과 우리나라의 지표 현황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평가와 비교를 위하여 서비스 무역 전체와 서비스 무역 각 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 평가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이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각 부문별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 지수를 통해 서비스 무역의 어느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여러 파트너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체결이나 서비스 협정의 체결 등 무역 자유화 협정 등의 추진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의 전면적 개방 또는 단계적 개방 등을 협상할 때 우리나라가 어떤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상대국의 적극적인 개방을 주문할지, 또한 어떤 서비스 부문에서는 아직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개방에 있어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협상에 임할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서비스 교역에 있어 국제경쟁력 평가는 당사국과 교역 상대국간의 서비스 수출입액 등 직접적인 통계수치를 토대로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품무역에 있어서는 특정국의 품목별 수출입액이나 특정 상대국에 대한 특정 산업 부문의 수출입액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만,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일부 OECD 회원국 등에 한하여 집계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교역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자국의 국제수지 통계를 제공받아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국제수지통계(BOP,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에서 서비스 무역 부문별 수출입액 통계를 활용하여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각 국별 국제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IMF의 BOP에서 서비스 무역 전체 및 부문별 통계를 추출하여 우리나라 및 비교대상국들의 대 세계 서비스 무역의 수출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대용치(Proxy)로 보아 유형재인 상품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방법에 준하여 분석하고 비교평가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산출하고자 하는 지표와 그 근거가 되는 통계수치는, IMF의 BOP에서 2000년~2009년까지 10년간의 각 연도별 서비스 무역 전체 및 부문별 수출입액을 추출하여 상품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에도 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시장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 IMS), 대 세계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 및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 RCA지수)를 계산하여 작성하고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과 함께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의 대리국가로 보아 한국을 포함 총 7개국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비교대상 국가로 중국을 포함한 것은 경제발전단계에서는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무역규모에 있어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등의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국제시장점유율(IMS)

국제시장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 IMS)은 한 나라의 특정 상품(서비스)의 수출입액이 해당 특정 상품(서비스)의 세계시장 전체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수입액은 제외하고 수출액을 기준으로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자 하므로 IMS의 산출에 있어서 일국의 수출액과 세계시장 전체의 수출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일국이 특정 상품(서비스)에서 국제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해당 특정 상품(서비스)의 세계시장 전체 수출액에

서 그 나라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이는 IMS의 값이 클수록 그 나라는 해당 특정 상품(서비스)의 수출시장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MS_{ij} = \frac{X_{ij}}{X_{iw}} \times 100 (\%) \quad (4-1)$$

$IMS_{ij}$  : j 국가의 i 상품(서비스) 무역에서의 국제시장 점유율

$X_{ij}$  : 일정기간중 j 국가의 i 상품(서비스) 대세계 총수출액

$X_{iw}$  : 일정기간중 i 상품(서비스) 전세계 총수출액

해당 식으로 우리나라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별 10년간 서비스 무역 전체와 서비스 무역 부문별 IMS를 산출하면 [표 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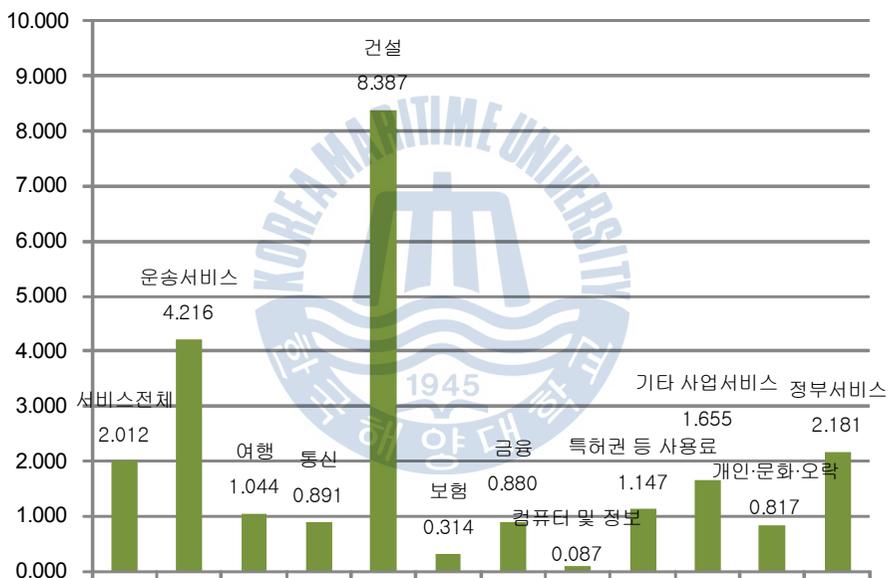
표 4-1.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IMS (연도별)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비스 전체	2.0737	1.9673	1.8454	1.8436	1.9358	1.9362	1.9546	2.0943	2.3274	2.1402
운송 서비스	3.9858	3.8777	3.7122	4.2556	4.4808	4.1941	4.0539	4.3744	5.0312	4.1955
여행	1.4352	1.3688	1.2151	0.9963	0.9513	0.8425	0.7677	0.7072	1.0250	1.1338
통신	1.1564	1.1390	1.0639	0.8105	0.8652	0.7470	0.9071	0.6649	0.7525	0.8011
건설	3.1207	3.9135	6.6368	5.3642	5.9220	8.4656	10.5626	11.6560	12.9237	15.3027
보험	0.2664	0.2146	0.0826	0.0628	0.2472	0.3422	0.4422	0.5442	0.5347	0.4045
금융	0.7055	0.5475	0.6624	0.5740	0.7130	0.9197	1.1383	1.3497	1.2801	0.9136
컴퓨터 및 정보	0.0218	0.0301	0.0324	0.0391	0.0262	0.0528	0.1898	0.2114	0.1508	0.1145
특허권 등 사용료	0.8134	1.1180	0.9271	1.2957	1.3983	1.2588	1.2527	0.8948	1.0637	1.4430
기타 사업 서비스	2.2705	1.9271	1.6608	1.5563	1.5550	1.5659	1.5322	1.7184	1.3687	1.3951
개인·문화·오락	0.5668	0.6174	0.7482	0.2781	0.3963	0.8317	1.0099	1.0893	1.2680	1.3658
정부 서비스	2.1674	2.5083	2.5445	2.4286	2.3870	2.2774	2.1642	2.1439	1.5782	1.6146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산출한 IMS 값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은 세계 시장 전체 서비스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2000년에 약 2.07%를 기록한 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2%에 미치지 못하는 약 1.84%에서 약 1.97%를 차지하였다. 2007년에 약 2.09%로 다시 2%대 수치로 회복하였고 2008년에 약 2.33%, 2009년에 약 2.14%를 각각 기록하였다. 결국 대상기간 동안 수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그림 4-1]과 같이 평균 약 2.012%로 2% 내외를 기록하였다.

그림 4-1.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IMS (평균)



주 : 2000년~2009년 기간 동안의 평균치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 부문별 IMS는 운송 서비스 부문과 건설 부문이 대상기간 동안 매년 계속해서 3% 이상을 기록하며 약 2% 내외를 나타낸 연도별 서비스 전체 IMS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IMS 수치로는 해당 2개 부문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에서 나

타난 수치와 같이 대상기간 동안의 운송 서비스와 건설 부문의 IMS 평균은 각각 4.216%와 8.387%로 서비스 무역 전체 IMS 평균인 2.01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4% 이상의 IMS 값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운송 서비스 부문은 다른 서비스 무역 부문 보다 전통적으로 점유율에서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 부문에서 평균 8% 이상의 높은 IMS 값을 나타내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플랜트 수출을 중심으로 해외건설서비스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요인도 있으나 IMF의 국제수지통계 매뉴얼의 BPM5에서 BPM6로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서비스 무역 건설 부문의 계상방식 변경에 따른 요인도 작용한다.<sup>36)</sup> 2010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BPM6의 1단계 이행을 완료하여 IMF의 BOP에 반영이 되었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BOP에 반영되지 못하여, IMS 값을 산출하는 식(4-1)의 분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건설 부문의 수출액<sup>37)</sup>은 증가하였으나 분모에 해당하는 세계 건설 부문 전체 수출액은 아직 각 국별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BPM6 1단계를 완료한 국가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하여 건설 부문 수출액이 크게 계산되어 IMS 값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운송 서비스와 건설 부문을 제외하고 다른 부문의 IMS 평균치는 서비스 전체 평균(2.012%)과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 서비스 부문이 2.181%로 전체 평균 보다 매우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1.655%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1.147%, 여행 부문 1.044%, 통신 부문 0.891%, 금융 부문 0.880%, 개인·문화·오락 부문 0.817% 순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과 컴퓨터 및 정보 부문은 각각 0.314% 및 0.087%로 매우 낮은 IMS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10년간 IMS 값을 살펴보았으나,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해당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데 그 나라의 특정 상품(서비스)에

36) [부록 4. BPM6 1단계 이행에 따라 변경된 국제수지 체계] 참조

37) BPM6 1단계의 이행을 완료한 우리나라는 금융계정의 직접투자로 분류되던 본사직영에 의한 장기건설 공사를 건설서비스에 계상함.

대한 수출액으로 산출한 IMS 값을 이용하여 판단하는 경우 각 국의 무역규모 또는 경제규모 같은 절대적 수치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상대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국제경쟁력 평가 또는 비교우위의 판단에 있어서 IMS만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IMS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연구방법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TSI(무역특화지수)와 RCA(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여 평가의 지표로 삼는다.

## 2. 무역특화지수(TSI)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는 한 나라의 특정 상품(서비스)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해당 상품(서비스)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의 차이를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을 합한 전체 무역액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상품(서비스)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데, 순수출비율지수 또는 국제경쟁력지수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특정 상품(서비스)의 순수출액이 해당 상품(서비스)의 무역총액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quad (4-2)$$

$TSI_{ij}$  : j 국가의 i 상품(서비스) 무역에서의 무역특화지수

$X_{ij}$  : 일정기간중 j 국가의 i 상품(서비스)에 대한 총수출액

$M_{ij}$  : 일정기간중 j 국가의 i 상품(서비스)에 대한 총수입액

TSI는 결국 무역수지를 무역액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무역규모를 감안한 흑자 또는 적자 정도를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sup>38)</sup> 한편, 서비스 수지

38) 유창근, 전계서(각주 4), p.168

의 약화에 대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는 TSI 보다 ‘무역수지/GDP’를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TSI가 해당 산업의 무역액 대비 무역수지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무역액이 적은 경우에는 적자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TSI로 보면 상당히 적자가 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39)</sup> TSI 값은 0을 기준으로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TSI 값이 -1 이면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그 나라는 ‘완전수입특화’ 상태인 것을 말하고, 중간 값인 0 이면 ‘비교우위중립’인 상태이며, +1 이면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완전수출특화’ 상태인 것을 나타낸다.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로써 TSI를 해석한다면 결론적으로 그 지수가 양의 값(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진다면 해당 상품(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지수가 음의 값(-1부터 0까지의 값)을 가진다면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2.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TSI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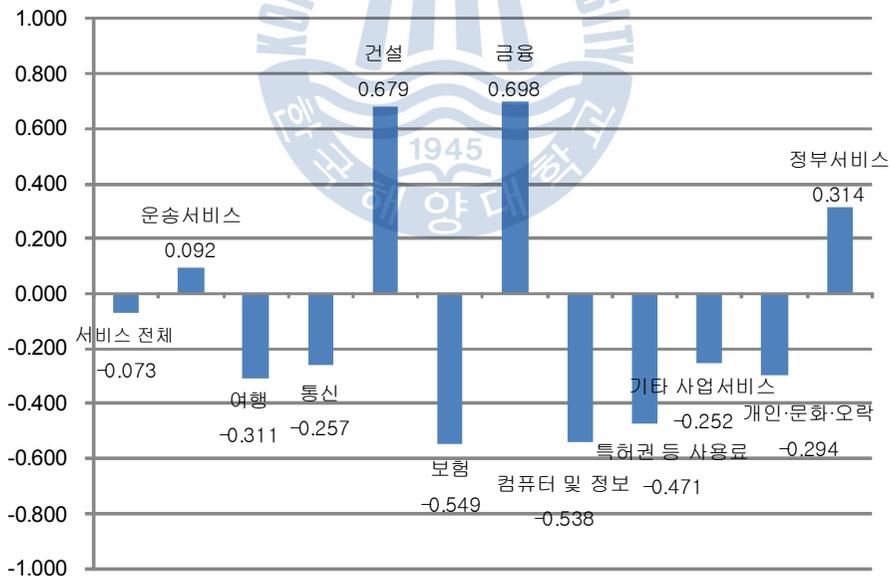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비스 전체	-0.0375	-0.0560	-0.1064	-0.0883	-0.0728	-0.0991	-0.1124	-0.0810	-0.0325	-0.0464
운송 서비스	0.1067	0.0882	0.0781	0.1158	0.1213	0.0848	0.0546	0.0715	0.0981	0.1005
여행	-0.0213	-0.0881	-0.2761	-0.3069	-0.3410	-0.4526	-0.5302	-0.5633	-0.3222	-0.2100
통신	-0.2329	-0.3022	-0.2894	-0.3401	-0.1758	-0.2714	-0.2234	-0.2506	-0.2269	-0.2572
건설	0.6657	0.6812	0.6704	0.6763	0.6890	0.6854	0.6852	0.6827	0.6799	0.6767
보험	-0.3632	-0.7230	-0.8785	-0.8397	-0.5376	-0.6257	-0.5146	-0.4138	-0.2293	-0.3671
금융	0.5732	0.7307	0.8182	0.7471	0.7908	0.7507	0.6457	0.7036	0.6914	0.5263
컴퓨터 및 정보	-0.7930	-0.7310	-0.7288	-0.6365	-0.7221	-0.5242	-0.4132	-0.2304	-0.3058	-0.2956
특허권 등 사용료	-0.6480	-0.5355	-0.5647	-0.4628	-0.4098	-0.4100	-0.3890	-0.4948	-0.4074	-0.3840
기타 사업 서비스	-0.1785	-0.1823	-0.2307	-0.2459	-0.2366	-0.2450	-0.2540	-0.2044	-0.3551	-0.3830
개인·문화·오락	-0.0786	-0.1971	-0.2104	-0.5484	-0.4922	-0.2809	-0.2905	-0.3497	-0.2565	-0.2360
정부 서비스	0.2993	0.3546	0.3937	0.4534	0.4260	0.3188	0.2913	0.2326	0.1261	0.2424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39) 유창근, “비교우위 변화와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사회과학연구」, Vol.33 No.3,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p.7

식(4-2)에 따라 우리나라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별 10년간 서비스 무역 전체와 서비스 무역 부문별 TSI를 산출하면 [표 4-2]와 같다. 이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의 10년 동안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의 TSI 값은 최대치(2008년) 약 -0.033에서 최소치(2006년) 약 -0.112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다. 10년간 계속해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전체는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 부문별로는 운송 서비스, 건설, 금융, 정부 서비스 부문 등 4개 부문은 10년간 계속해서 양(+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그 외 여행, 통신, 보험,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부문 등 7개 부문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TSI (평균)



주 : 2000년~2009년 기간 동안의 평균치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대상기간 동안 집계된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 전체 TSI에 대한 평균치는 [그림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0.073의 값을 보이고 있다. 0에 가까운 수치이나 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은 전체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평균치에 있어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서비스 무역 부문은 금융 0.698, 건설 0.679, 정부 서비스 0.314, 운송 서비스 0.092 순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의 값을 가지는 서비스 무역 부문은 기타 사업서비스 -0.252, 통신 -0.257, 개인·문화·오락 -0.294, 여행 -0.311, 특허권 등 사용료 -0.471, 컴퓨터 및 정보 -0.538, 보험 -0.549 순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Balassa(1965)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RCA) 지수는 어떤 국가의 특정 산업 수출구성비가 세계 전체의 그 산업 수출구성비에 비해 얼마나 큰가로 비교우위를 측정하고 이를 국제경쟁력의 척도로 삼는 방법이다.<sup>40)</sup> RCA 지수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지수로서 특정 상품(서비스) 또는 산업의 비교우위 체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다.

앞서 보았던 국제시장점유율(IMS)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은 절대적 수치이므로 경제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는 적절치 않은데 반해, RCA 지수는 국가별 시장점유율과 상품(서비스)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대적 수치이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도 비교가 용이하다 할 수 있다. 물론 TSI와는 달리 RCA 지수는 수입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으나 재화무역에서 보다 서비스 무역에서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입 왜곡의 문제가 심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RCA 지수가 보다 적절한 지

40) 유일선, 김영환, “한·중 서비스 무역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2009.6, p.601

표가 될 수 있다.<sup>41)</sup>

RCA 지수는 한 나라의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그 나라 전체 상품(서비스)에 대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즉, 세계시장에서 그 나라의 ‘특정 상품(서비스) 수출점유율’을 ‘전체 상품(서비스) 수출점유율’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다. 이는 한 나라가 수출하는 전체 상품(서비스)과 비교하였을 때 특정 상품(서비스)을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비율로 수출하는 것은 그 나라가 그 특정 상품(서비스)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CA_{ij} = \frac{(X_{ij}/X_{iw})}{(X_j/X_w)} \quad (4-3)$$

RCA<sub>ij</sub> : 일정기간중 상품(서비스) i 무역에서 j국가의 현시비교우위지수

X<sub>w</sub> : 일정기간중 전체 상품(서비스)의 전세계 총수출

X<sub>iw</sub> : 일정기간중 상품(서비스) i 의 전세계 총수출

X<sub>j</sub> : 일정기간중 전체 상품(서비스)의 j국의 대세계 수출

X<sub>ij</sub> : 일정기간중 상품(서비스) i 의 j국의 대세계 수출

위 식에 따라 RCA 지수 산출시 전체 상품(서비스)에 대한 전세계 총수출과 특정국 대세계 수출은 상품 수출을 제외한 서비스 무역 전체 수출액, 즉 서비스 무역 부문별 수출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전세계 총수출과 특정국 대세계 수출은 서비스 무역 부문별 수출액을 의미한다.<sup>42)</sup>

이에 따라 산출되는 RCA 지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1을 기준으로 영(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RCA 지수 값이 1보다 클 때 그 나라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그 값이 1보다 작을

41) 유창근, 전계서(각주 39), p.7

42) 이에 따라 RCA 지수는 IMS 및 TSI와는 달리 서비스 무역 부문별 RCA 지수만 산출되며 서비스 무역 전체 RCA 지수는 산출되지 않는다.

때 해당 상품(서비스)의 수출이 비교열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RCA 지수가 1보다 크면 그 나라의 해당 상품(서비스)은 세계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이 있고, RCA 지수가 1보다 작으면 그 나라의 해당 상품(서비스)은 세계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RCA 지수만으로 국가들 간 또는 상품(서비스) 부문별 간에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고자 할 때는 1을 기준으로 영(0)까지의 값, 1을 기준으로 무한대(∞)의 값을 가져도 평가가 가능하겠으나, 0을 기준으로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TSI(무역특화지수)와 함께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 RCA 지수는 TSI와 달리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RCA 지수도 0을 기준으로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칭적 구조를 가지도록 변형을 유도한 변형된 RCA 지수 즉, RSCA(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SCA_{ij} = \frac{RCA_{ij} - 1}{RCA_{ij} + 1} \quad (4-4)$$

본 논문에서는 RCA 지수의 활용에 있어서 TSI와 동일한 구간의 값을 가지며 지수의 대칭성이 있는 변형된 현시비교우위(RSCA)지수를 활용한다. RSCA 지수는 TSI와 마찬가지로, 0을 기준으로 양(+ )의 값을 가지면 국제경쟁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음(-)의 값을 가지면 국제경쟁력이 열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식(4-3)에 따라 우리나라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별 10년간 서비스 무역 부문별 RCA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식(4-4)에 따라 RSCA 지수를 계산하면 [표 4-3]와 같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운송 서비스와 건설 부문은 10년간 계속해서 양(+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서비스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양(+ )의 값을 나타냈으나 2008년, 2009년은 연속으로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사업서비스

는 2000년에 양(+)<sup>43)</sup>의 값을 가졌으나 이후 2009년까지 계속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 여행, 통신,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문화·오락 등 7개 부문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RSCA지수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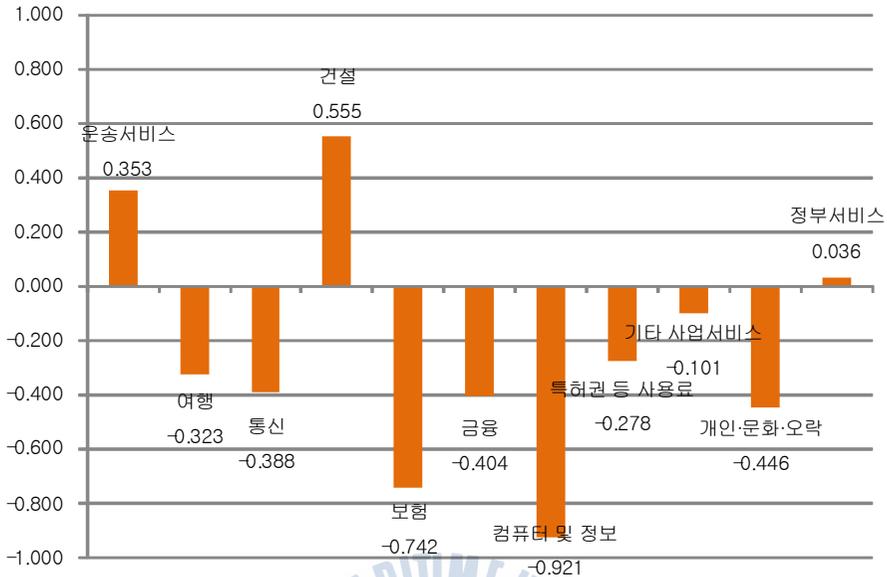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운송 서비스	0.3156	0.3268	0.3359	0.3955	0.3966	0.3683	0.3494	0.3525	0.3674	0.3244
여행	-0.1820	-0.1794	-0.2060	-0.2984	-0.3410	-0.3936	-0.4360	-0.4951	-0.3885	-0.3074
통신	-0.2840	-0.2667	-0.2686	-0.3893	-0.3822	-0.4432	-0.3661	-0.5181	-0.5114	-0.4553
건설	0.2016	0.3309	0.5649	0.4884	0.5073	0.6277	0.6877	0.6954	0.6948	0.7546
보험	-0.7723	-0.8033	-0.9144	-0.9341	-0.7735	-0.6996	-0.6310	-0.5875	-0.6263	-0.6821
금융	-0.4923	-0.5646	-0.4717	-0.5252	-0.4616	-0.3559	-0.2639	-0.2162	-0.2903	-0.4017
컴퓨터 및 정보	-0.9792	-0.9698	-0.9655	-0.9584	-0.9733	-0.9469	-0.8230	-0.8166	-0.8783	-0.8985
특허권 등 사용료	-0.4365	-0.2753	-0.3312	-0.1746	-0.1612	-0.2120	-0.2189	-0.4013	-0.3727	-0.1946
기타 사업 서비스	0.0453	-0.0103	-0.0527	-0.0845	-0.1091	-0.1057	-0.1212	-0.0986	-0.2594	-0.2108
개인·문화·오락	-0.5707	-0.5223	-0.4231	-0.7379	-0.6602	-0.3991	-0.3187	-0.3157	-0.2946	-0.2209
정부 서비스	0.0221	0.1209	0.1592	0.1369	0.1044	0.0810	0.0509	0.0117	-0.1918	-0.1400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그림 4-3]에서 나타난 수치와 같이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치에 있어 양(+)<sup>43)</sup>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서비스 무역 부문은 건설 0.555, 운송 서비스 0.353, 정부 서비스 0.036 순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의 평균 값을 가지는 7개 서비스 무역 부문은 기타 사업서비스 -0.101, 특허권 등 사용료 -0.278, 여행 -0.323, 통신 -0.388, 금융 -0.404, 개인·문화·오락 -0.446, 보험 -0.742, 컴퓨터 및 정보 -0.921 순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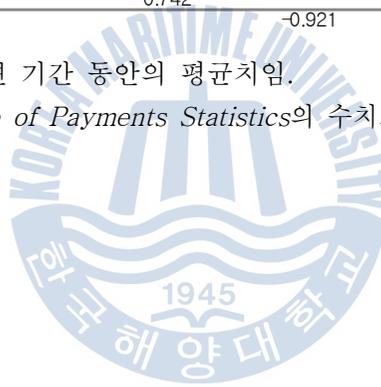
43) RSCA 지수와 TSI 모두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나, RSCA 지수에서 비교 우·열위를 나타내는 서비스 무역 부문과 그 우·열위의 정도가 앞서 제시한 TSI 값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서비스 무역 부

그림 4-3.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RSCA지수 (평균)



주 : 2000년~2009년 기간 동안의 평균치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문별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무역 부문별 시장개방의 정도가 다른 경우, 개방도가 낮은 부문에서는 RSCA 지수 값이 낮게 나타나더라도 TSI 값은 높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또한 서비스 무역 부문별로 산업내 무역의 정도가 다른 경우 무역적자로 TSI 값이 낮아도 산업내 무역이 활발한 경우 RSCA 지수 값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 제2절 서비스 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상황과 그 변화 추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및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앞 절에서 설명한 국제경쟁력 평가 지표를 산출한다. IMF에서 제공하는 BOP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7개국(한국, 중국, 선진 5개국)의 서비스 무역 전체를 비롯하여 서비스 무역 부문별로 지수를 산출하고 비교한다. 서비스 무역 부문은 BOP 통계에서 운송서비스,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정부서비스 등 11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정부 서비스<sup>44)</sup>의 경우 상업적인 서비스의 수출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수 산출 및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여 본 논문에서는 총 10개 부문에 대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산출대상 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연도별로 국제시장점유율(IMS), 무역특화지수(TSI), 변형된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를 산출하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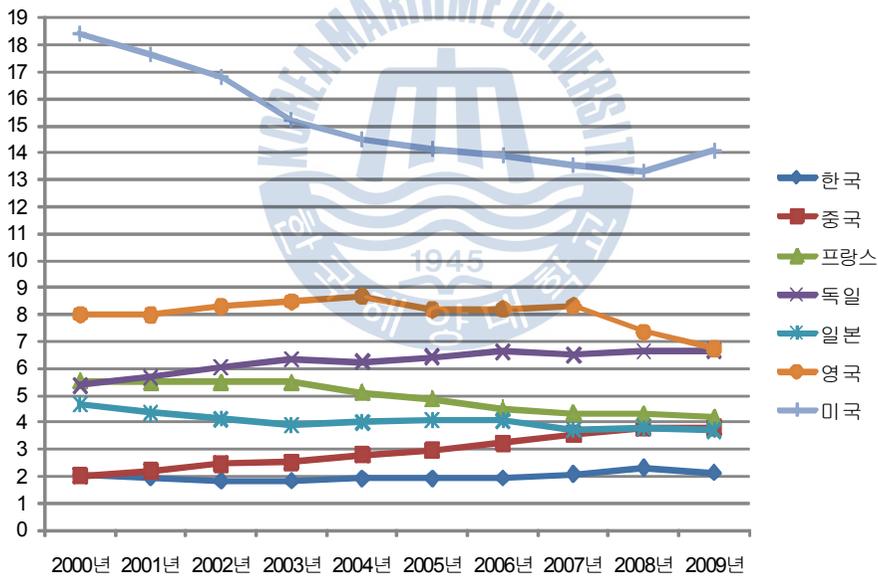
산출된 지수들의 해석에 있어서, 먼저 IMS 값은 국가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 특정 연도의 값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의 그 추이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TSI와 RSCA 지수 모두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본 논문에서 RSCA 지수는 TSI와는 달리 상품 무역 부분을 제외한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만 계산하였기 때문에 두 지표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수지가 적자이면 해당국의 서비스 무역 전체의 TSI가 음(-)의 값이고, 서비스 무역 부문별로 TSI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서비스 수지 흑자국에 비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RSCA 지수는 서비스 전체 무역수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무역 부문 간의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서비스 무역 부문에 대한 RSCA 지수는 해당국가의 다른 서비스 무역 부문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44) 정부서비스는 여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화 및 서비스거래를 계상하는 잔여항목을 포괄한다.

## 1. 서비스 무역 전체

한국과 중국 및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서비스 무역 전체 IMS 값을 비교한 결과 그 비중이 2000년 약 18.45%에서 2009년 14.06%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 약 5.37%에서 2009년 약 6.67%로 IMS 값이 약간 증가한 독일을 제외하고는 3개국 모두 2000년에 비해 2009년에 약 1%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 서비스 무역 전체 IMS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2000년까지 한국 보다 낮은 점유율에 머물던 중국은 급속한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약 2.21%의 IMS 수치를 나타낸 2001년을 기준으로 약 1.97%의 IMS 수치를 나타낸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2008년에는 약 3.81%로 일본과 동

등한 점유율을 보였고 약 3.80%를 기록한 2009년에는 약 3.72%를 기록한 일본도 추월하였다. 중국은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점유율이 하락세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IMS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중국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 연도를 제외하고는 대상연도 동안 계속해서 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0년간 별다른 증가세 없이 계속해서 2.0% 내외로 정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4. 서비스 무역 전체 IMS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2.0737	1.9673	1.8454	1.8436	1.9358	1.9362	1.9546	2.0943	2.3274	2.1402
중 국	2.0328	2.2130	2.4624	2.5317	2.7831	2.9612	3.2294	3.5695	3.8113	3.7980
프랑스	5.5371	5.4953	5.4962	5.5023	5.1083	4.8671	4.5105	4.3483	4.3033	4.1930
독 일	5.3715	5.6682	6.0517	6.3561	6.2478	6.4343	6.6350	6.5118	6.6570	6.6673
일 본	4.6817	4.3566	4.1302	3.9188	4.0215	4.0896	4.0672	3.7282	3.8112	3.7188
영 국	7.9951	7.9899	8.3122	8.4865	8.6945	8.1780	8.2055	8.3217	7.3453	6.7412
미 국	18.4494	17.6562	16.8447	15.2236	14.4738	14.1254	13.8968	13.5715	13.2853	14.0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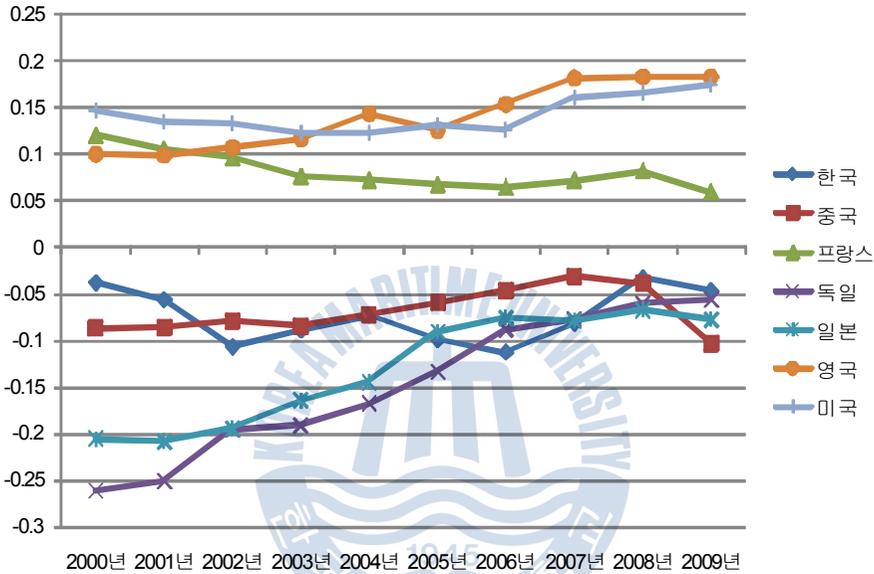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7개국의 서비스 무역 전체 TSI 값을 산출한 결과는 영국, 미국, 프랑스가 양(+)의 값을 가지는 그룹으로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한국, 독일, 일본은 음(-)의 값을 가지는 그룹으로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우위 그룹의 3개국 중 2009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TSI 값을 기록하고 있는 영국은 2000년 0.1006으로 미국보다 낮은 값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점증하여 2004년과 2006년부터는 미국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TSI 값이 2000년 0.1477에서 2004년 0.1225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여 2009년에는 0.1748을 기록하였다. 프랑스

는 다른 비교우위 그룹 국가들과는 달리 2000년에는 영국보다 앞선 0.1209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7년 0.0721, 2008년 0.0819로 근소하게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 0.0569로 다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TSI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5. 서비스 무역 전체 TSI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비교열위 그룹의 4개국 중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무역에서 계속 많은 적자를 내고 있어 낮은 TSI 값을 나타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 서비스 무역의 적자를 줄여간 결과 TSI 값은 2000년 독일 -0.2606, 일본 -0.205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독일 -0.0560, 일본 -0.0771을 기록하여 아직 비교열위 상태인 음(-)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4-5. 서비스 무역 전체 TSI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0375	-0.0560	-0.1064	-0.0883	-0.0728	-0.0991	-0.1124	-0.0810	-0.0325	-0.0464
중 국	-0.0865	-0.0852	-0.0784	-0.0837	-0.0714	-0.0590	-0.0464	-0.0303	-0.0380	-0.1029
프랑스	0.1209	0.1054	0.0965	0.0764	0.0724	0.0678	0.0649	0.0721	0.0819	0.0596
독 일	-0.2606	-0.2505	-0.1953	-0.1909	-0.1672	-0.1336	-0.0880	-0.0765	-0.0599	-0.0560
일 본	-0.2050	-0.2079	-0.1941	-0.1638	-0.1444	-0.0904	-0.0753	-0.0784	-0.0669	-0.0771
영 국	0.1006	0.0992	0.1073	0.1168	0.1439	0.1259	0.1541	0.1821	0.1835	0.1834
미 국	0.1477	0.1345	0.1341	0.1229	0.1225	0.1315	0.1266	0.1605	0.1661	0.1748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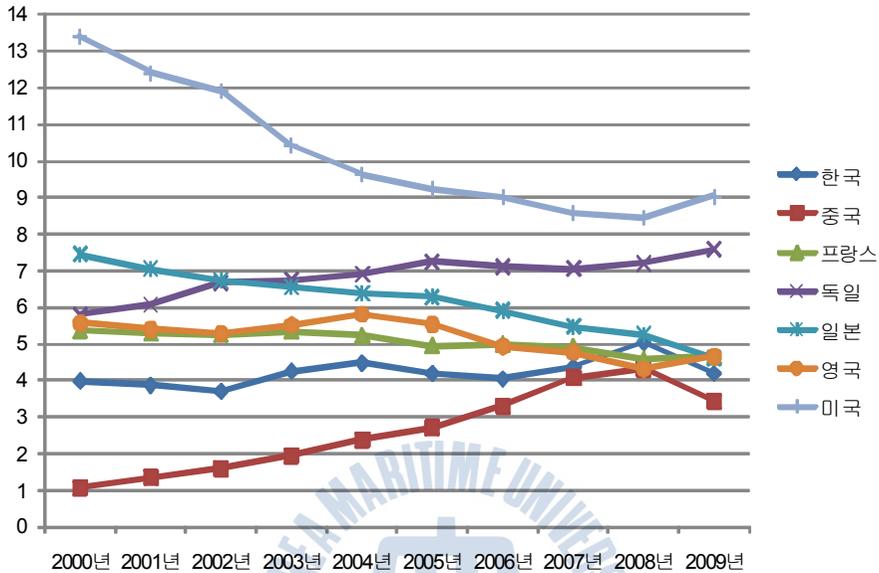
비교열위 그룹의 나머지 2개국 중 중국은 TSI 값이 2000년 -0.0865에서 2007년 -0.0303으로 개선되는듯 하였으나 최근 2008년, 2009년에 각각 -0.0380, -0.1029로 떨어져 2009년에는 대상연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TSI 값은 2000년 -0.0375을 기록한 후 근소하게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다 2009년에는 -0.0464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독일이나 일본과는 달리 서비스 무역의 적자에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2. 운송 서비스 부문

운송 서비스 부문은 서비스 무역 전체 IMS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역시 7개국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 약 13.40%를 차지하던 IMS 값이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약 8.44%를 기록하고 2009년에는 약 9.04%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나 운송 서비스의 경우 상품무역에 수반되어 일어나므로 중국 등 여타국들의 재화무역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대

적으로 운송 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출점유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6. 운송 서비스 부문 IMS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독일의 IMS 값은 2000년 약 5.81%에서 2005년 약 7.24%로 점증하다 2006년, 2007년 잠시 주춤한 뒤 다시 증가하여 2009년 약 7.59%를 기록하였다. 미국, 중국과 함께 상품무역에서의 수출점유율이 높은 독일은 운송 서비스에서도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상품무역에서 수출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IMS 값이 2000년에는 독일보다 높은 약 7.46%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보다 낮은 약 4.62%를 기록하였다. 영국의 경우 IMS 값이 2000년에 약 5.58%를 기록한 후 감소하다 2003년 약 5.52%, 2004년 약 5.82%로 잠시 상승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2009년에는 전년도(약 4.32%)에 비해 다시 약간 상승한 약 4.66%를 기록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IMS의 값이 2000년에 약 5.38%를 기록한 후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3년에 다시 근소하게

상승하여 약 5.35%를 기록하고 다시 하락 후 2006년에 약 5.00%로 약간 상승 후 하락하였고, 2009년에는 전년도(약 4.60%)에 비해 다시 약간 상승한 약 4.67%를 나타내었다. 일부 상승한 연도도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약 1%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6. 운송 서비스 부문 IMS 비교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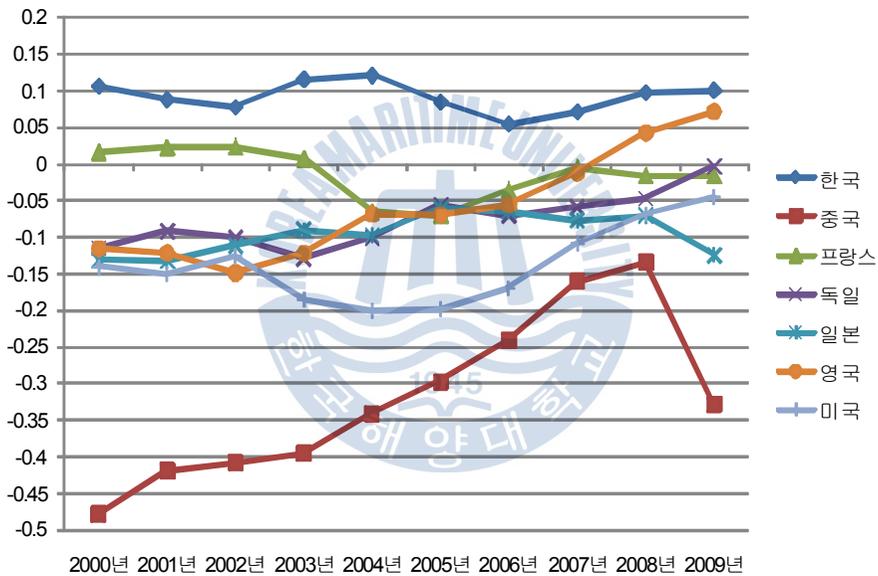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3.9858	3.8777	3.7122	4.2556	4.4808	4.1941	4.0539	4.3744	5.0312	4.1955
중 국	1.0690	1.3636	1.6068	1.9585	2.4001	2.7097	3.3012	4.0834	4.3176	3.4462
프랑스	5.3762	5.2954	5.2580	5.3508	5.2482	4.9613	5.0030	4.9159	4.6009	4.6715
독 일	5.8109	6.0832	6.6768	6.7587	6.9129	7.2440	7.1263	7.0569	7.2016	7.5880
일 본	7.4559	7.0624	6.7423	6.5606	6.3928	6.2800	5.9139	5.4778	5.2636	4.6223
영 국	5.5762	5.4049	5.2925	5.5180	5.8210	5.5374	4.9409	4.7774	4.3176	4.6620
미 국	13.3969	12.4160	11.9188	10.4043	9.6154	9.2524	9.0383	8.5987	8.4421	9.0406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 상품시장에서의 수출점유율이 급증하여 현재 미국 및 독일과 함께 재화무역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출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1.07%에 불과했던 운송 서비스 부문의 IMS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는 4.32%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2000년 3.99%의 IMS 값을 기록하고 2001년, 2002년 각각 3.88%, 3.71%로 감소한 후 2003년, 2004년에 각각 4.26%, 4.48%로 증가한 뒤 2005년, 2006년에 다시 각각 4.19%, 4.05%로 감소하였고 2007년, 2008년에 각각 4.37%, 5.03%로 다시 상승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상승추세에서 2009년에 각각 약 3.45%, 약 4.20%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많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2008년 9월 정점에 다다랐던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해 상품교역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7개국의 운송 서비스 부문 TSI 값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만 대상기간의 모든 연도에 대하여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 비교국들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0.1067을 기록하고 최대치는 2004년 0.1213, 최소치는 2006년 0.0546이며 2009년에는 0.1005를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양(+)의 값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은 2000년 -0.1151을 기록한 후 계속 음(-)의 값을 가지다가 2008년, 2009년에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4-7. 운송 서비스 부문 TSI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우리나라와 프랑스, 영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국(독일, 일본, 미국, 중국)은 대상기간 동안 계속해서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 독일은 2000년에 -0.1148을 기록한 후 하락한 연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며 2009년에는 양(+)의 값에 근접한 -0.0030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2000년에 -0.1310의 값을 나타낸 후 2005년에 -0.0607 값을 기록하기 까지는 대체적으로 상승 추

이였으나 이후 다시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0.1239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IMS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지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비교우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 -0.1997을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하여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0.0691, -0.0443 값을 가져 일본보다 높은 비교우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 TSI 값의 경우 대상기간의 모든 연도에서 다른 6개국 보다 낮게 나타나 가장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0년에는 -0.4781을 기록하여 다른 나라들과 큰 격차로 뒤쳐져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는 -0.1342의 값을 나타내어 격차를 좁혔지만 2009년에 -0.3280으로 다시 격차가 생겼다.

표 4-7. 운송 서비스 부문 TSI 비교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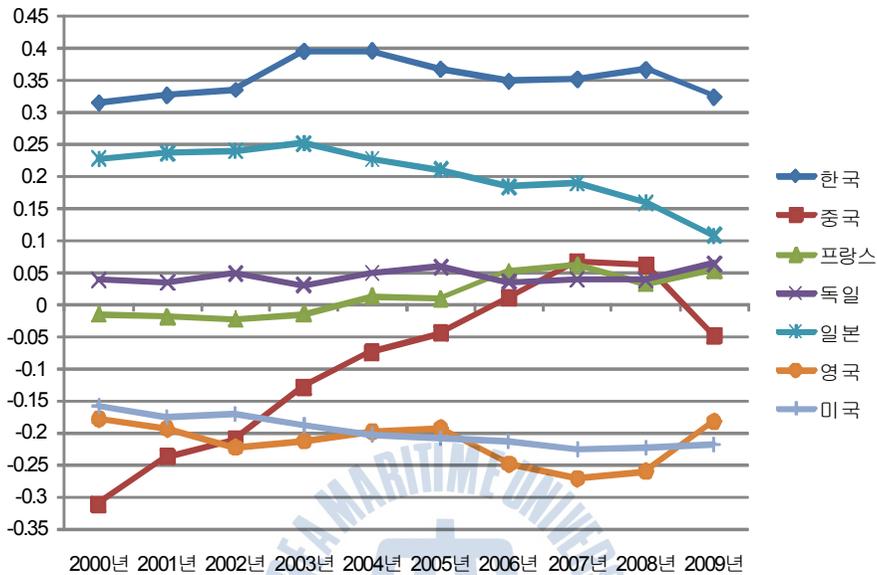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1067	0.0882	0.0781	0.1158	0.1213	0.0848	-0.0546	0.0715	0.0981	0.1005
중 국	-0.4781	-0.4192	-0.4082	-0.3951	-0.3408	-0.2968	-0.2411	-0.1602	-0.1342	-0.3280
프랑스	0.0166	0.0229	0.0238	0.0075	-0.0650	-0.0700	-0.0356	-0.0047	-0.0159	-0.0157
독 일	-0.1148	-0.0914	-0.1003	-0.1290	-0.1000	-0.0557	-0.0703	-0.0587	-0.0471	-0.0030
일 본	-0.1310	-0.1325	-0.1116	-0.0901	-0.0971	-0.0607	-0.0645	-0.0771	-0.0706	-0.1239
영 국	-0.1151	-0.1212	-0.1486	-0.1220	-0.0685	-0.0688	-0.0556	-0.0124	0.0427	0.0718
미 국	-0.1400	-0.1501	-0.1259	-0.1857	-0.1997	-0.1976	-0.1692	-0.1081	-0.0691	-0.0443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RSCA 지수에서도 TSI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대상기간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SCA 지수의 값이 모든 연도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비교우위 그룹으로는 한국과 일본,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대상연도에서 RSCA 지수 최소치는 2000년의 0.3156, 최대치는 2004년의 0.3966이다. 일본의 경우 2003년에 0.2521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0.1083을 기록하였다. 독일은 큰 상승·하락 없이

2000년에 0.0393, 2009년에 0.0646을 기록하였다.

그림 4-8. 운송 서비스 부문 RSCA지수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프랑스의 경우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음(-)의 값을 가져 비교열위국으로 볼 수 있지만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양(+)의 값을 가지면서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0.0518, 0.0613을 기록하면서 독일을 앞질러 전체적으로 RSCA 지수는 비교우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RSCA 지수에서 비교열위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나머지 3개국 중 영국과 미국은 대상연도 기간 동안 계속해서 -0.2 정도의 음(-)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또한 대상연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음(-)의 값을 나타내어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00년 -0.310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2009년에 다시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 2009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8. 운송 서비스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3156	0.3268	0.3359	0.3955	0.3966	0.3683	0.3494	0.3525	0.3674	0.3244
중 국	-0.3107	-0.2375	-0.2103	-0.1277	-0.0739	-0.0443	0.0110	0.0671	0.0623	-0.0486
프랑스	-0.0147	-0.0185	-0.0221	-0.0140	0.0135	0.0096	0.0518	0.0613	0.0334	0.0540
독 일	0.0393	0.0353	0.0491	0.0307	0.0505	0.0592	0.0357	0.0402	0.0393	0.0646
일 본	0.2286	0.2370	0.2403	0.2521	0.2277	0.2112	0.1850	0.1901	0.1600	0.1083
영 국	-0.1782	-0.1930	-0.2220	-0.2120	-0.1980	-0.1925	-0.2483	-0.2706	-0.2596	-0.1823
미 국	-0.1587	-0.1743	-0.1713	-0.1881	-0.2017	-0.2084	-0.2118	-0.2243	-0.2229	-0.2172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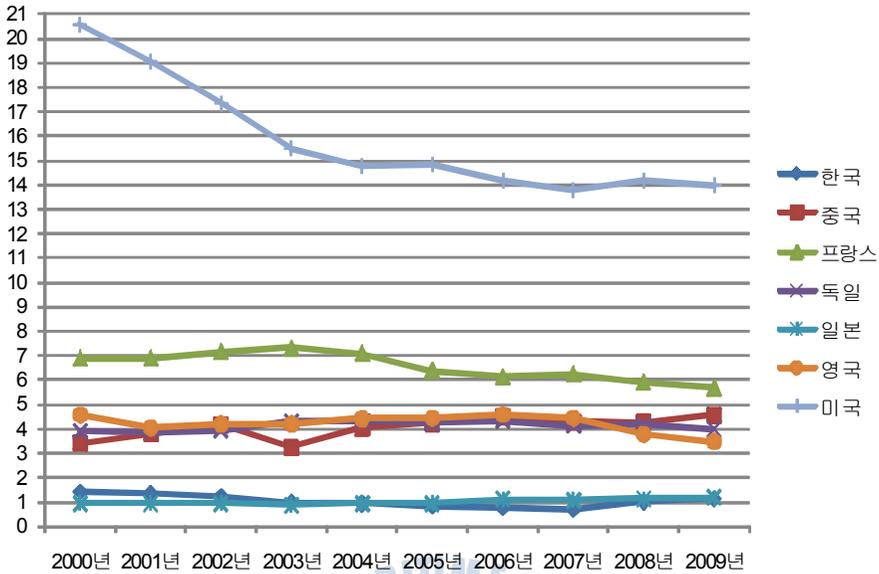
### 3. 여행 부문

여행 부문은 한국의 경우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 부문이다. 여행 부문에서도 IMS의 값이 대상기간 동안 하락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00년 약 20.57%의 점유율을 보인 미국이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4년 약 14.75%로 4년간 약 6% 정도 감소하였다. 2005년부터는 큰 폭의 등락 없이 IMS값이 유지되어 2009년에는 약 13.99%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가 대상연도 기간 동안 IMS 값이 약 7.0~6.0%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에 약 6.90%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추이를 보여 2009년에는 약 5.68%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영국, 독일, 중국 3개국이 비슷한 수준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상연도 기간 동안 IMS의 값이 약 5.0~3.0%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에 영국, 독일, 중국 순으로 약 4.57%, 약 3.90%, 약 3.40%를 기록한 후 3개국 모두 등락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2009년에는 중국, 독일, 영국 순으로 약 4.58%, 약 3.99%, 약 3.48%를 기록하였다.

그림 4-9. 여행 부문 IMS 추이



자료 :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비교대상국들 중 한국과 일본이 가장 낮은 점유율의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상연도 기간 동안 등락 없이 매년 약 1.0% 정도의 점유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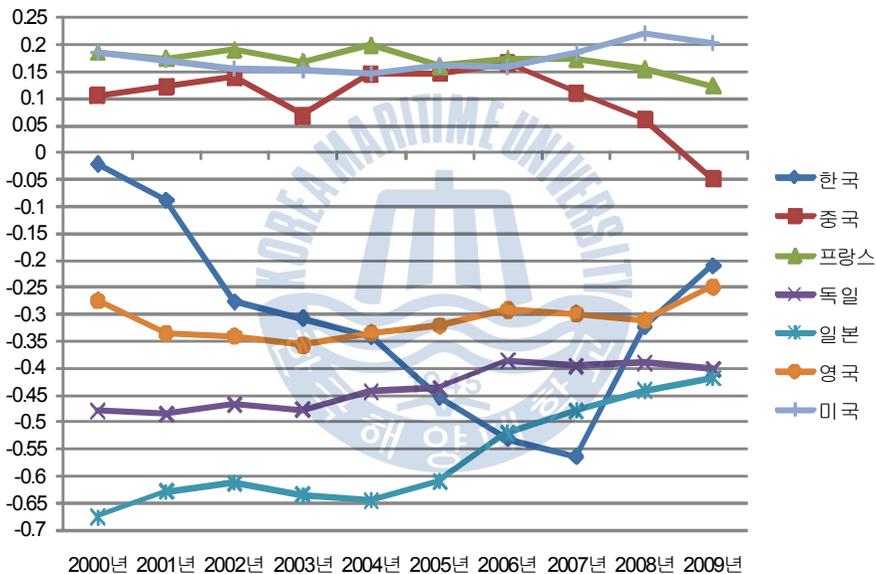
표 4-9. 여행 부문 IMS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1.4352	1.3688	1.2151	0.9963	0.9513	0.8425	0.7677	0.7072	1.0250	1.1338
중 국	3.4084	3.8148	4.1730	3.2365	4.0343	4.2513	4.5031	4.2895	4.2835	4.5814
프랑스	6.8995	6.8999	7.1670	7.3241	7.0859	6.3858	6.1421	6.2441	5.9092	5.6814
독 일	3.9082	3.8659	3.9464	4.2998	4.3289	4.2318	4.3470	4.1464	4.1803	3.9919
일 본	0.9438	0.9447	0.9540	0.8770	0.9411	0.9615	1.1235	1.0767	1.1347	1.1927
영 국	4.5714	4.0447	4.2066	4.2150	4.4203	4.4525	4.5895	4.4451	3.7810	3.4845
미 국	20.5676	19.0347	17.3496	15.4922	14.7505	14.8119	14.1803	13.7772	14.1553	13.9873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여행 부문 TSI 값은 대상연도 기간 동안 미국, 프랑스, 중국이 양(+)<sup>의 값을 가지고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TSI 값이 약 0.20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약 0.2000~0.1500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에는 0.1243으로 약간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최소치 0.0681(2003년), 최대치 0.1652(2006년) 사이를 확보하였으나,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0.0483의 음(-)의 값을 가져 비교우위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

그림 4-10. 여행 부문 TSI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국은 대상기간의 모든 연도에서 음(-)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 비교열위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 2000년에는 영(0)의 값에 가까운 -0.0213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큰 하락세를 보이며 2007년에는 -0.5633을 기록하면서 비교대상국들 중 가장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2009년에 상승세를 회복하여 2009년에는 비교

열위 그룹에서는 가장 높은 -0.2100을 기록하였다. 한국에 이어 영국은 TSI 값이 2000년 -0.2747을 기록하고 2003년에 -0.3571을 기록하기까지 하락세를 보인 후 상승하여 2006년에 -0.2917의 값을 나타냈다. 2009년에는 좀 더 회복하여 -0.2490을 기록하였다. 독일은 2000년 TSI 값이 -0.4789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 후 2006년에 최대치 -0.3885를 나타낸 후 횡보하여 2009년에는 -0.4009를 기록하였다. 일본은 2000년 가장 낮은 경쟁력을 보이며 TSI 값이 -0.6754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상승하여 2009년에는 독일과 비슷한 -0.4185를 기록하였다.

표 4-10. 여행 부문 TSI 비교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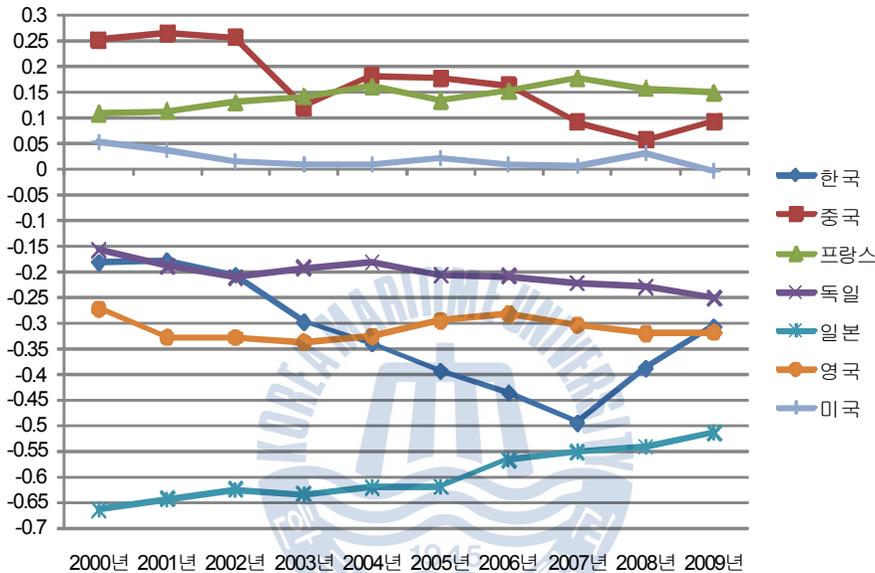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0213	-0.0881	-0.2761	-0.3069	-0.3410	-0.4526	-0.5302	-0.5633	-0.3222	-0.2100
중 국	0.1062	0.1225	0.1394	0.0681	0.1468	0.1476	0.1652	0.1111	0.0609	-0.0483
프랑스	0.1864	0.1746	0.1913	0.1680	0.2005	0.1608	0.1741	0.1734	0.1552	0.1243
독 일	-0.4789	-0.4845	-0.4666	-0.4766	-0.4424	-0.4364	-0.3855	-0.3949	-0.3890	-0.4009
일 본	-0.6754	-0.6283	-0.6125	-0.6342	-0.6451	-0.6098	-0.5207	-0.4787	-0.4411	-0.4185
영 국	-0.2747	-0.3357	-0.3402	-0.3571	-0.3340	-0.3204	-0.2917	-0.2983	-0.3106	-0.2490
미 국	0.1862	0.1700	0.1559	0.1538	0.1466	0.1605	0.1592	0.1858	0.2212	0.2039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여행 부문 RSCA 지수에서도 TSI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프랑스, 미국이 대 상기간 연도별로 계속해서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SI 값과는 달리 RSCA 지수에서는 중국과 프 랑스가 계속해서 미국보다 더 높은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2006년 까지 프랑스 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나타냈다. 2001년 0.2657의 최대치를 기 록한 중국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7년부터는 프랑스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 나 2009년에 0.0935를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RSCA 지수값이 2000년 0.1095 를 나타낸 후 2005년을 제외하고는 최대치 0.1790을 기록한 2007년까지 오름

세를 지속하다가 2008년, 2009년에는 일부 하락하여 2009년에 0.1507을 기록하였다. 미국은 2000년 0.0543을 기록한 후 오름세와 내림세가 이어졌으나 전체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며 2009년에는 -0.0025로 영(0)의 값에 미세하게 못 미치긴 하나 처음으로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

그림 4-11. 여행 부문 RSCA지수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비교열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독일, 영국, 한국, 일본 4개국 중에서는 독일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RSCA 지수 값이 -0.1577을 기록한 후 점차 하락 추이를 보이면 2009년에는 -0.2510을 기록하였다. 2003년까지는 영국보다 우위를 점한 한국은 2001년 -0.1794로 최대치를 보인 후 크게 하락하여 2007년 -0.4360으로 최소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반등하여 2009년에는 다시 영국보다 약간 높은 -0.3074를 기록하였다. 영국은 2000년 -0.2724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다 2009년에는 -0.3185를 나타내었다. 일본은 대상기간의 모든 연도에서 비교대상국들

보다 미치지 못하는 비교열위를 나타냈다. 2000년에 다른 대상국들 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0.6645로 최소값을 보였으나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0.5143을 기록하였다.

표 4-11. 여행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1820	-0.1794	-0.2060	-0.2984	-0.3410	-0.3936	-0.4360	-0.4951	-0.3885	-0.3074
중 국	0.2528	0.2657	0.2578	0.1222	0.1835	0.1789	0.1647	0.0916	0.0583	0.0935
프랑스	0.1095	0.1133	0.1319	0.1420	0.1622	0.1350	0.1532	0.1790	0.1572	0.1507
독 일	-0.1577	-0.1890	-0.2106	-0.1930	-0.1814	-0.2065	-0.2083	-0.2219	-0.2285	-0.2510
일 본	-0.6645	-0.6436	-0.6247	-0.6343	-0.6207	-0.6193	-0.5671	-0.5518	-0.5411	-0.5143
영 국	-0.2724	-0.3278	-0.3280	-0.3363	-0.3259	-0.2950	-0.2826	-0.3036	-0.3203	-0.3185
미 국	0.0543	0.0376	0.0148	0.0087	0.0095	0.0237	0.0101	0.0075	0.0317	-0.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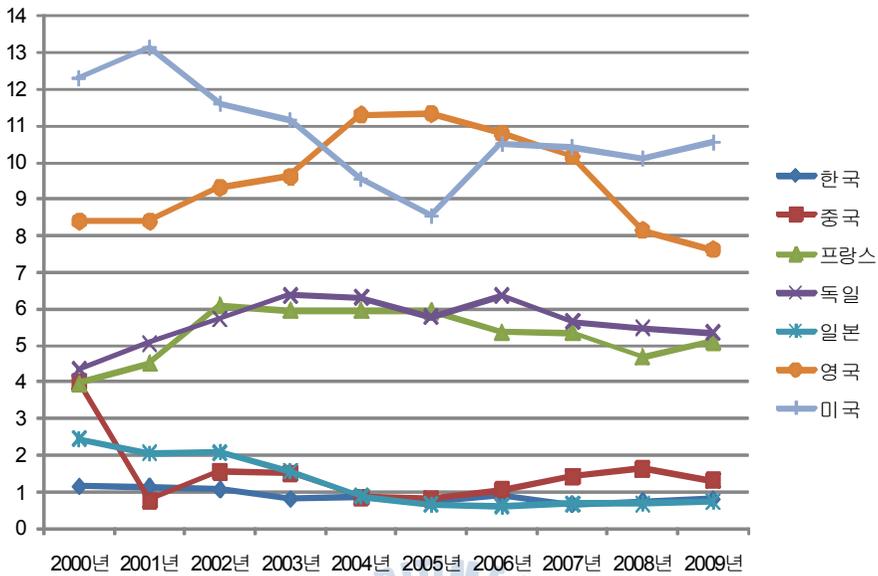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 4. 통신 부문

통신부문의 IMS에서도 서비스 무역 전반에서 높은 수출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 가장 높은 IMS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도 비교적 높은 IMS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 약 13.15%의 최대 IMS 값을 기록한 미국은 하락 추이를 보이며 2004년~2006년에는 영국보다 낮은 점유율을 기록한 뒤 2007년부터는 다시 최고 점유율을 보이며 2009년 약 10.55%의 IMS 수치를 기록하였다.

영국은 2000년 약 8.39%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하여 2004년, 2005년 각각 약 11.31%, 약 11.34%를 기록하면서 2006년까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지만 이후 하락 추이를 보며 2009년 약 7.63%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4-12. 통신 부문 IMS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그 다음 순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비슷한 추이로 점유율의 상승·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IMS 값이 약 4.34%를 기록한 독일은 2003년 약 6.37%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2006년 약 6.36%로 잠시 최고치에 다시 근접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9년 약 5.35%를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2000년 약 3.96%를 기록한 후 2002년 약 6.09%로 최대치를 보인 후 횡보하다 2005년 이후 하락 추이를 보이며 2009년 약 5.11%를 기록하였다.

하위 그룹은 중국, 일본, 한국 아시아 3개국이 형성하고 있다. 특이점은 중국의 경우 2000년의 IMS 값이 평균에 비해 훨씬 높아 중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독일 및 프랑스와 비슷한 점유율을 나타나고 있다.<sup>45)</sup>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면서 90년대에 외국기업의 중국 현지 법인들이 급격

45) 통신서비스의 수출입은 우편·상업송달·원격통신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수수료를 발신국이 수신국으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수출입 금액만으로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히 증가하였다. 이에 통신부문에서의 서비스 수출은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다.<sup>46)</sup> 2005년부터는 점유율이 다시 한국과 일본보다 높아졌으며 2009년 IMS 값은 약 1.32%를 기록하였다. 일본은 2000년 약 2.45%의 IMS 수치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비교대상국들 중에서 최하위 점유율인 약 0.74%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2000년 약 1.16%를 기록한 후 약 1% 내외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약 0.80%의 IMS 값을 기록하였다.

표 4-12. 통신 부문 IMS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1.1564	1.1390	1.0639	0.8105	0.8652	0.7470	0.9071	0.6649	0.7525	0.8011
중 국	4.0163	0.7765	1.5496	1.5164	0.8553	0.8183	1.0422	1.4272	1.6317	1.3240
프랑스	3.9645	4.5054	6.0855	5.9678	5.9528	5.9433	5.3599	5.3566	4.6899	5.1101
독 일	4.3396	5.0678	5.7306	6.3651	6.3120	5.7881	6.3557	5.6576	5.4802	5.3480
일 본	2.4534	2.0608	2.0857	1.5717	0.8816	0.6656	0.6151	0.6729	0.6798	0.7363
영 국	8.3943	8.3918	9.3237	9.6143	11.3079	11.3383	10.7940	10.1652	8.1500	7.6326
미 국	12.3224	13.1519	11.6197	11.1473	9.5320	8.5278	10.4889	10.4034	10.1109	10.5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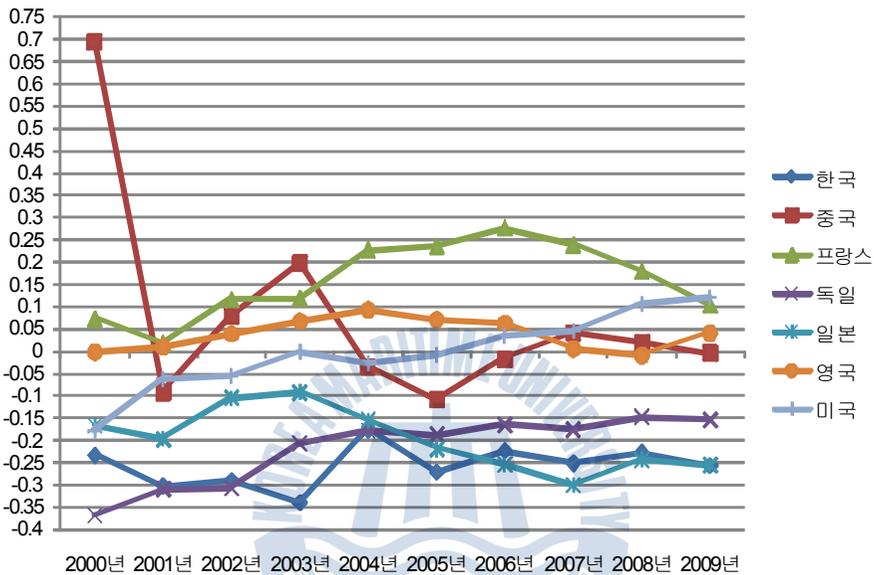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통신부문의 TSI 값을 산출한 결과 프랑스와 영국은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며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SI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2000년 TSI 값이 0.0726으로 기록된 후 2006년 0.2769를 기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후에는 하락 추이를 보이면서 2009년 0.1041을 기록하고 미국보다 낮은 우위를 보였다. 영국은 2000년에는 음(-)의 값이기는 하지만 영(0)의 값에 근접한 -0.0020의 TSI 값을 보인 후

46) IMF BOP 통계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부문에서 중국의 수출금액은 2000년 13.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6.1억 달러를 기록하고 2008년에 15.7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세계 전체 수출시장 규모가 2000년 335억 달러, 2008년 962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2000년의 수출 금액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0.0929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다 2008년 -0.0098로 다시 음(-)의 값을 보일 때까지 하락 추이를 보였다. 2009년 TSI 값은 다시 반등하여 0.0404를 기록하였다.

그림 4-13. 통신 부문 TSI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대상기간 중 일부 연도에서 양(+)<sup>47)</sup>의 값과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비교대상 7개국의 비교우위 수준에서 중위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은 2000년 TSI 값이 -0.1788의 음(-)의 값을 기록하여 경쟁력이 약한 상태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부터 0.0333으로 양(+)<sup>47)</sup>의 값을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상위그룹인 영국보다 경쟁우위에 있으며 대상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2009년에는 프랑스 보다 높은 비교우위를 보이면서 7개국 중 가장 높은 TSI 값인 0.1199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2000년에 0.6951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TSI 값<sup>47)</sup>을 보인 후 2001년에는 -0.0921

47) IMF BOP통계에 따르면 중국 통신서비스 부문의 2000년도 수출입액은 수출액 13.5억 달러, 수입액

로 음(-)의 값을 나타냈고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0.0781, 0.1980으로 양(+ )의 값을 기록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다시 음(-)의 값을 기록한 후 2007년, 2008년에는 각각 0.0412, 0.0193으로 또 양(+ )의 값을 보였다. 대상 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2009년에는 또 음(-)의 값인 -0.0047로 기록되었다.

표 4-13. 통신 부문 TSI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2329	-0.3022	-0.2894	-0.3401	-0.1758	-0.2714	-0.2234	-0.2506	-0.2269	-0.2572
중 국	0.6951	-0.0921	0.0781	0.1980	-0.0348	-0.1086	-0.0174	0.0412	0.0193	-0.0047
프랑스	0.0726	0.0171	0.1163	0.1180	0.2271	0.2359	0.2769	0.2391	0.1792	0.1041
독 일	-0.3682	-0.3096	-0.3070	-0.2063	-0.1778	-0.1869	-0.1643	-0.1748	-0.1472	-0.1531
일 본	-0.1672	-0.1965	-0.1040	-0.0919	-0.1553	-0.2191	-0.2537	-0.3001	-0.2436	-0.2553
영 국	-0.0020	0.0102	0.0398	0.0687	0.0929	0.0719	0.0635	0.0059	-0.0098	0.0404
미 국	-0.1788	-0.0624	-0.0543	-0.0007	-0.0250	-0.0094	0.0333	0.0443	0.1068	0.1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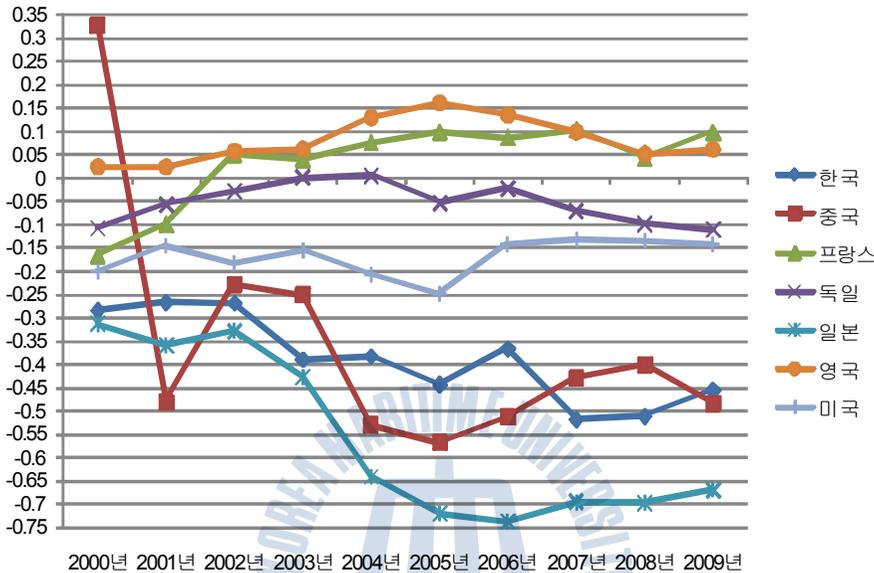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하위그룹은 독일, 일본, 한국 3개국이 형성하고 있는데, 먼저 독일은 2000년 TSI 값이 -0.3682로 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는 -0.2063을 기록하여 한국을 상회하였고, 2005년에는 -0.1778을 기록하여 일본을 상회하였으며 대상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2009년에는 -0.1531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2000년 TSI 값이 -0.1672를 기록한 후 2003년에 -0.0919로 최고치를 나타낸 뒤 점차 하락하여 2005년에는 -0.2191을 기록하여 독일을 하회하였고, 2006년에는 -0.2537을 기록하여 한국을 하회하였다. 2009년에는 -0.2553을 기록하여 한국을 조금 앞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2000년 TSI 값이 -0.2329를 기록하고 2003년에 -0.3401로 최저

2.4억 달러로 흑자가 11억 달러에 이르러 2000년~2009년 사이의 기간 중 가장 높은 흑자액을 기록하였다. 2000년도의 통신서비스 세계 전체 수출시장 규모가 335억 달러이고, 중국이 가장 많은 수출금액(15.7억 달러)을 기록했던 2008년의 세계 전체 수출시장 규모가 962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2000년의 수출금액과 흑자폭이 매우 큰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치를 기록한 후 2004년에 다시 -0.1758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점차 하락하여 2009년에는 -0.2572로 7개국 중 가장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통신 부문 RSCA지수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RSCA 지수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대상연도 동안 주로 양(+)의 값을 가져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2000년 0.0244를 나타낸 뒤 점차 상승하여 2005년에는 0.1619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프랑스 보다 낮은 0.0620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7개국 중 유일하게 대상기간의 모든 연도에서 RSCA 지수 값이 양(+)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TSI 값에서는 프랑스가 영국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RSCA 지수에서는 전체적으로 프랑스가 영국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과 2001년에는 RSCA 지수 값이 각각 -0.1655, -0.0990을 기록하여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2년간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2년에 최초로 양(+)의 값인 0.0509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상

승하여 2007년에 0.1039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난 뒤 2008년에 0.0430으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2009년에 0.0986으로 다시 상승하여 7개국 중 가장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통신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2840	-0.2667	-0.2686	-0.3893	-0.3822	-0.4432	-0.3661	-0.5181	-0.5114	-0.4553
중 국	0.3279	-0.4805	-0.2275	-0.2508	-0.5299	-0.5670	-0.5120	-0.4288	-0.4005	-0.4830
프랑스	-0.1655	-0.0990	0.0509	0.0406	0.0764	0.0996	0.0861	0.1039	0.0430	0.0986
독 일	-0.1063	-0.0559	-0.0273	0.0007	0.0051	-0.0529	-0.0215	-0.0702	-0.0970	-0.1098
일 본	-0.3123	-0.3577	-0.3289	-0.4275	-0.6404	-0.7200	-0.7373	-0.6942	-0.6973	-0.6694
영 국	0.0244	0.0245	0.0574	0.0623	0.1307	0.1619	0.1362	0.0997	0.0519	0.0620
미 국	-0.1991	-0.1462	-0.1836	-0.1546	-0.2059	-0.2471	-0.1397	-0.1321	-0.1357	-0.1425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국은 전체적으로 RSCA 지수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열위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간 그룹은 독일과 미국이 형성하고 있는데 먼저, 독일은 2000년에 RSCA 지수 값이 -0.1063을 나타낸 뒤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0.0007과 0.0051로 영(0)에 매우 근접한 값이기는 하나 양(+)의 값을 가져 2년간 일시적으로 비교우위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하락 추이를 보이면서 2005년부터는 다시 음(-)의 값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0.1098의 값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2000년 RSCA 지수 값이 -0.1991을 나타낸 뒤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다 2005년에 최소치인 -0.2471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006년 -0.1397로 상승한 뒤 회복하여 2009년에는 -0.1425를 기록하였다.

통신 부문의 RSCA 지수 값에서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은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앞서 IMS 값과 TSI 값에서도 보았듯이 2000년도에는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하여 RSCA 지수 값도 마찬가지로 0.3279의 높은 양(+)

의 값을 나타냈으나 이후의 모든 연도에 대해서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비교열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년도와 달리 2001년에 바로 급락하여 -0.4805를 기록하고 2002년에 다시 상승하여 -0.2275를 나타내었으나 다음해 다시 하락하여 2005년에 최저치인 -0.5670을 기록하였다.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08년에는 -0.4005를 나타내었으나 2009년에 다시 하락하여 -0.4830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RSCA 지수 값은 2000년에 -0.2840, 2001년에 -0.2667을 기록한 뒤 2005년에 -0.4432까지 하락하였다가 2006년에 -0.3661로 반등하는 듯하였으나 2007년에 최저치인 -0.5181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근소하게 상승하여 2009년에 -0.4553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2001년을 제외하고는 대상기간의 모든 연도에서 7개국 중 가장 낮은 RSCA 지수 값을 나타내고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연도의 첫째인 2000년에 -0.3123을 기록한 후 2006년에 -0.7373의 최저치를 나타낼 때까지 계속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0.6942, -0.6694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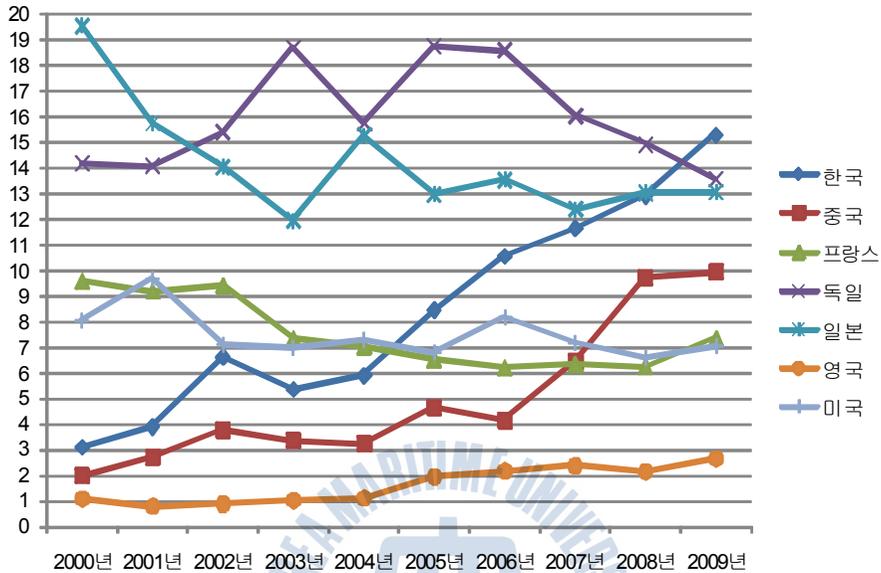
## 5. 건설 부문

건설 부문의 IMS 산출 결과를 보면 독일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출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2000년 약 14.20%를 기록한 뒤 약 14%~19% 사이에서 점유율이 변화하였으며 2009년에는 약 13.57%를 나타내었다. 일본은 2000년 약 19.56%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차츰 감소하여 2009년에는 약 13.08%를 기록하였다.

미국과 프랑스는 약 10%에서 6% 사이에서 IMS 값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2001년에 가장 높은 약 9.70%의 점유율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 약 6.60%, 2009년에는 약 7.07%를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2000년의 IMS 값이 약 9.60%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 약 6.26%, 2009년에는 약 7.35%를 기록하였다.

그림 4-15. 건설 부문 IMS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영국은 7개국 중에서 대상기간 모든 연도에서 가장 낮은 IMS 값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약 1.11%를 기록한 후 조금씩 증가하여 2009년에는 약 2.66%를 기록하였다.

나머지 2개국인 중국과 한국은 건설서비스 부문에 있어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의 IMS 값이 약 2.01%를 기록한 중국은 등락이 있긴 하였으나 상승 추세를 이어가 2009년에는 약 9.95%로 미국과 프랑스 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11월 현재 IMF BOP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건설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의 IMS는 2000년에 약 3.12%를 기록한 뒤 연평균 1% 이상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9년의 IMS 수치는 약 15.30%로 7개국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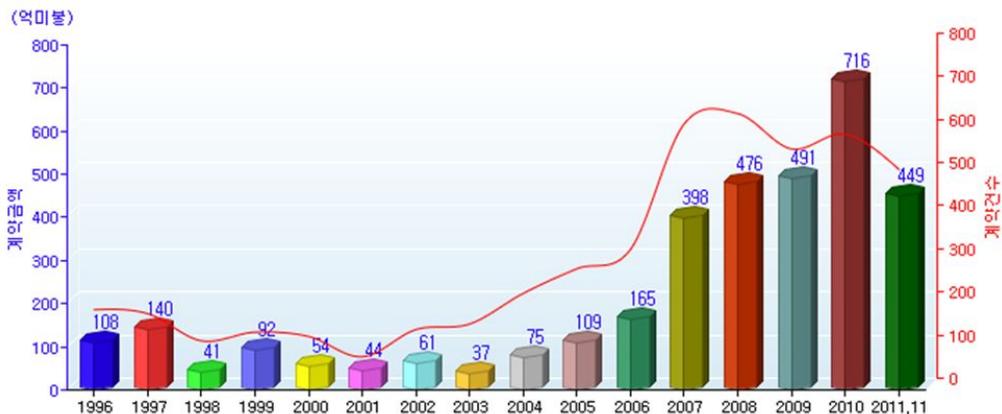
표 4-15. 건설 부문 IMS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3.1207	3.9135	6.6368	5.3642	5.9220	8.4656	10.5626	11.6560	12.9237	15.3027
중 국	2.0144	2.7303	3.7886	3.3938	3.2684	4.6636	4.1518	6.4629	9.7531	9.9504
프랑스	9.6007	9.1992	9.4319	7.3711	7.0573	6.5333	6.2289	6.3416	6.2646	7.3535
독 일	14.1955	14.0888	15.4105	18.7091	15.7657	18.7613	18.5940	16.0588	14.9318	13.5749
일 본	19.5615	15.7661	14.0579	11.9724	15.2896	12.9933	13.5462	12.4064	13.0442	13.0769
영 국	1.1127	0.8237	0.8998	1.0495	1.1327	1.9625	2.1926	2.3942	2.1645	2.6643
미 국	8.0903	9.7039	7.1419	6.9737	7.3379	6.8191	8.2077	7.2058	6.5974	7.0713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이 높은 IMS 값을 나타내는 것은 [그림 4-1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3년에 37억 달러에 불과했던 해외건설 수주금액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여 2010년에는 716억 달러에 이르러 해외건설서비스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요인도 있으나 앞서 언급한대로 IMF의 국제수지통계 매뉴얼의 개정<sup>48)</sup>으로 인한 건설서비스 부문의 계상방식 변경에 따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6. 해외건설 총괄 계약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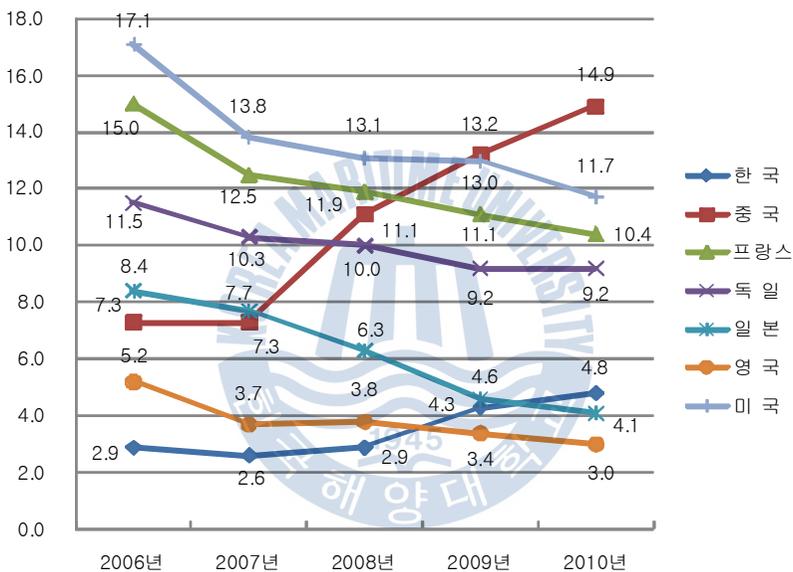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48) [부록 4. BPM6 1단계 이행에 따라 변경된 국제수지 체계] 참조

BPM6의 1단계 이행을 완료하여 IMF의 BOP통계에 반영된 한국에 비하여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BOP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건설 서비스 부문에서 IMS 값이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sup>49)</sup> 서비스 무역 건설 부문의 IMS 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 4-1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해외 건설 사업에서의 7개국 국제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약 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0)</sup>

그림 4-17. 해외 건설사업 점유율 추이



자료 : ENR.com, The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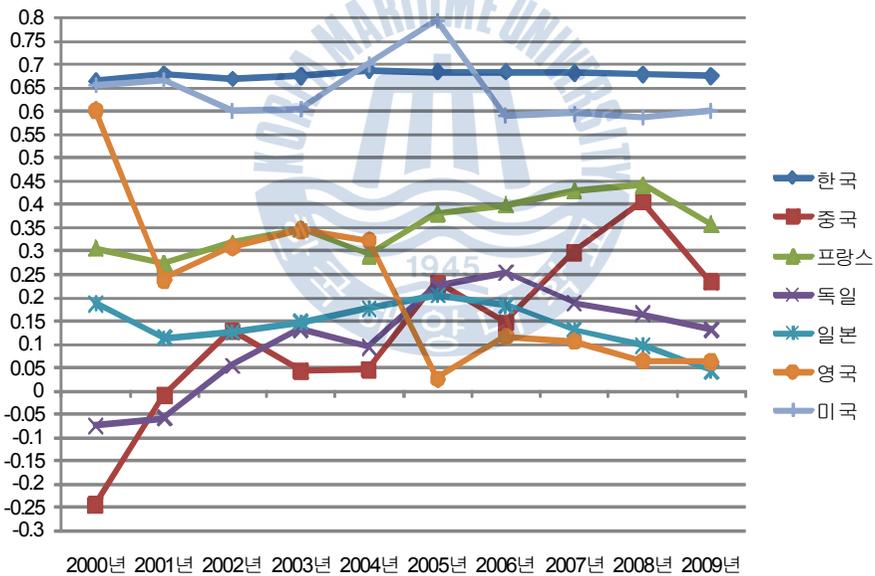
건설 서비스 부문의 TSI 수치를 보면 비교대상 7개국이 대상기간의 모든 연도에서 거의 계속해서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어 세계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부연한 바와 같이 BOP통계 매뉴얼 개정으

49) BPM6 1단계 이행으로 한국은 금융계정의 직접투자자로 분류되던 본사직영에 의한 장기건설공사를 건설 서비스에 계상함. 2011년 11월 기준 IMF BOP통계 수치를 과거 BOP통계 수치와 대조한 결과 비교대상 7개국 중 한국만 반영되어 변경되었고 다른 6개국은 변경되지 않고 과거 자료가 유지되고 있음.

50) [부록 5. 주요 국가 해외 건설사업 매출액 및 점유율 추이] 참조

로 인한 영향이 있겠지만 한국이 건설 부문 TSI 수치에서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04년과 200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7개국 중 가장 높은 TSI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에 약 0.6657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그 수준을 지속하여 2009년에는 0.6767을 기록하였다. 한국과 함께 TSI 수치에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은 2000년에 0.6557을 기록한 후 소폭 하락하였다가 2004년과 2005년에는 다시 상승하여 각각 0.7006, 0.7944를 기록해 2년간 7개국 중 가장 높은 TSI 값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6년에 0.5919를 기록한 후 2009년에 0.6007을 기록하기 까지 그 수준을 지속하였다.

그림 4-18. 건설 부문 TSI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프랑스는 2000년 TSI 값이 0.3054로 나타난 뒤 등락을 보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하여 0.4412를 기록한 뒤 2009년에는 0.3578로 다시 하락하였다. 2000년에는 0.6030으로 상위 그룹에 가까운 TSI 수치를 기록한 영국은

다음해에 급격히 하락하여 0.2383을 기록하고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듯하였으나 2005년에 0.0256으로 급락하였다. 이후에는 약간 상승하여 2009년에는 0.0628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2000년에 0.1877을, 조금 하락하여 2001년에는 0.1136을 기록한 후 2005년까지 점차 증가하여 0.2051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9년에는 0.0429의 수치를 나타냈다.

중국과 독일은 TSI 수치가 2000년과 2001년에는 음(-)의 값을 보여 2년간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0.2456, -0.0101을 기록하였고, 독일은 -0.0748, -0.0591을 나타냈다. 2002년부터는 두 나라 모두 계속해서 양(+)의 값을 가져 비교우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등락을 반복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유지하여 2008년에는 최대치인 0.4061을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다시 하락하여 0.2345를 기록하였다. 독일은 2006년 최대치인 0.2538을 기록하기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0.1318을 나타내었다.

표 4-16. 건설 부문 TSI 비교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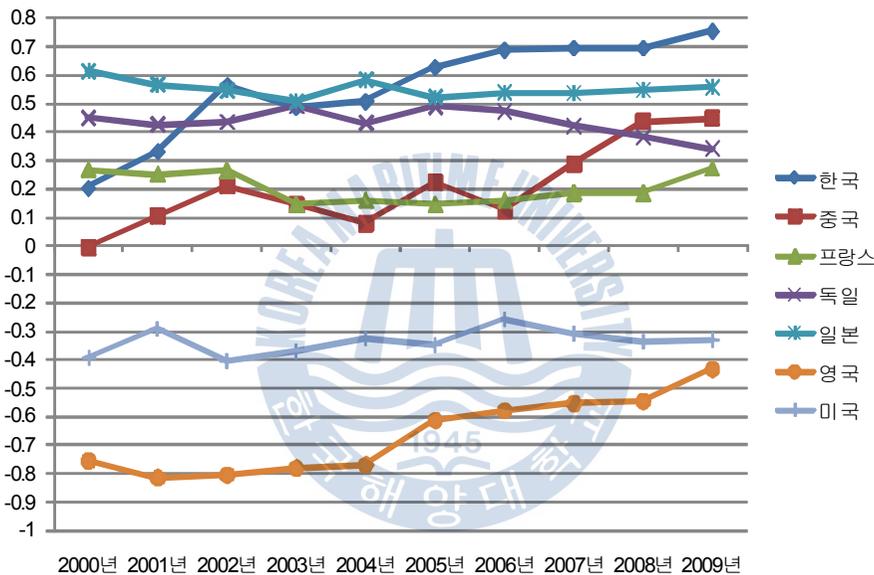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6657	0.6812	0.6704	0.6763	0.6890	0.6854	0.6852	0.6827	0.6799	0.6767
중 국	-0.2456	-0.0101	0.1279	0.0430	0.0458	0.2311	0.1464	0.2977	0.4061	0.2345
프랑스	0.3054	0.2735	0.3175	0.3474	0.2915	0.3808	0.3988	0.4296	0.4412	0.3578
독 일	-0.0748	-0.0591	0.0543	0.1325	0.0946	0.2253	0.2538	0.1880	0.1651	0.1318
일 본	0.1877	0.1136	0.1265	0.1476	0.1768	0.2051	0.1830	0.1306	0.0975	0.0429
영 국	0.6030	0.2383	0.3083	0.3448	0.3239	0.0256	0.1166	0.1061	0.0645	0.0628
미 국	0.6557	0.6657	0.6019	0.6056	0.7006	0.7944	0.5919	0.5963	0.5889	0.6007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건설 서비스 부문 RSCA 지수 산출 결과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 양(+)의 값을 가져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영국은 음(-)의 값을 가져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독일 3개국이 상위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먼저, 한국의 RSCA 지수는 2000년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보다 낮은 0.2016으로 나타난 후 2002년에 0.5649를 기록해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03년에는 0.4884를 기록하여 독일과 일본 보다 낮았고, 2004년에는 0.5073을 기록하여 일본 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부터는 계속적으로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2009년에는 최고치로 0.7546을 기록하였다.

그림 4-19. 건설 부문 RSCA지수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일본은 2000년, 2001년 RSCA 지수가 각각 0.6138, 0.5670을 기록하여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가졌으나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한국 보다 낮았고, 2003년에는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긴 하였으나 대상기간 중 일본에게는 최소치인 0.5068을 기록하였다. 2004년에 0.5835로 반등하였으나 2005년에는 한국보다 낮은 수치인 0.5212로 다시 하락하였고, 이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여 2009년에는 0.5572를 기록하였다. 독

일의 RSCA 지수 값은 2000년에 0.4510을 보인 후 2007년 0.4230을 기록하기까지는 계속해서 0.4에서 0.5사이를 횡보하며 유지하였으나 2008년, 2009년에는 연이어 하락하면서 각각 0.3833, 0.3412를 기록하였다.

표 4-17. 건설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2016	0.3309	0.5649	0.4884	0.5073	0.6277	0.6877	0.6954	0.6948	0.7546
중 국	-0.0045	0.1046	0.2122	0.1455	0.0802	0.2233	0.1250	0.2884	0.4380	0.4475
프랑스	0.2684	0.2521	0.2636	0.1452	0.1602	0.1462	0.1600	0.1865	0.1856	0.2737
독 일	0.4510	0.4262	0.4361	0.4928	0.4324	0.4893	0.4740	0.4230	0.3833	0.3412
일 본	0.6138	0.5670	0.5458	0.5068	0.5835	0.5212	0.5382	0.5379	0.5478	0.5572
영 국	-0.7557	-0.8131	-0.8047	-0.7799	-0.7695	-0.6129	-0.5783	-0.5532	-0.5448	-0.4335
미 국	-0.3903	-0.2906	-0.4045	-0.3717	-0.3272	-0.3488	-0.2574	-0.3064	-0.3364	-0.3306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중국과 프랑스가 중간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먼저 프랑스의 경우 RSCA 지수는 2000년에는 한국 보다 높은 0.2684를 기록하였다. 이후 횡보하다 2003년에 0.1452로 하락하였고 점점 상승하여 2009년에는 0.2737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경우 2000년 한 해에는 RSCA 지수가 -0.0045를 기록하여 음(-)의 값을 가져 비교열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였지만 상승하는 추이로 이어져 2008년과 2009년에는 프랑스와 독일 보다 우위를 점하며 각각 0.4380, 0.4475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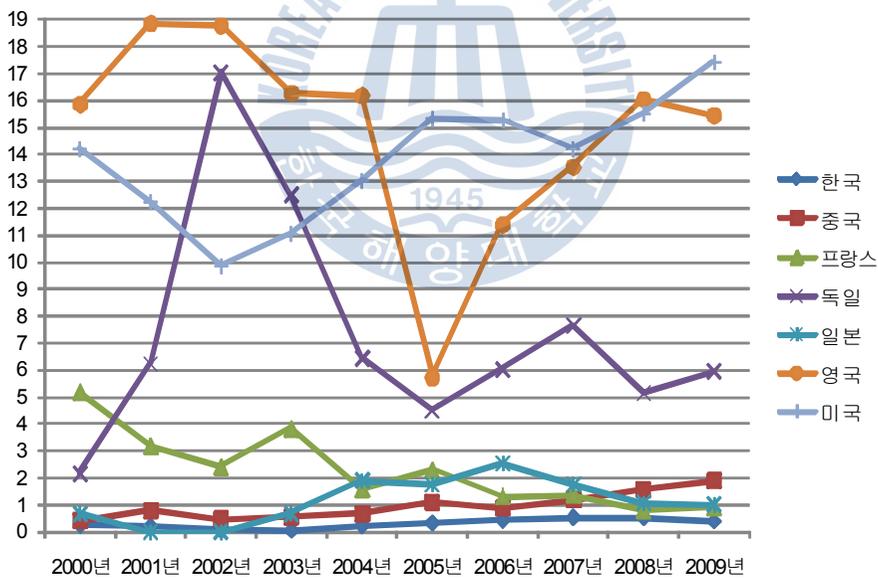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대상기간 모든 연도에 계속해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비교열위 상태에 있다. 미국은 2000년 -0.3903을 기록한 후 크지 않은 등락을 보이며 2009년에 -0.3306을 기록하였다. RSCA 지수에서 미국 보다 더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 영국의 경우 2000년 -0.7557을 기록한 후 200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5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미국과 차이가 크지 않은 -0.4335의 값을 기

록하였다.

## 6. 보험 부문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보험서비스 부문에서는, IMS 수치 변화의 등락폭이 크기는 하지만 영국, 미국, 독일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00년에 약 15.87%를 기록하고 2001년과 2002년에는 7개국의 대상연도 전체에서 가장 높은 IMS 값인 약 18.85%와 약 18.78%를 기록하였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5년에는 약 5.73%까지 하락하였지만 다시 상승하여 2008년, 2009년에 각각 약 16.04%, 약 15.45%를 나타내었다.

그림 4-20. 보험 부문 IMS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미국은 영국 보다 등락폭이 크진 않지만 2000년에 약 14.18%의 IMS 지수 값을 보인 뒤 2002년 약 9.88%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하여 2005년에는

약 15.35%의 점유율을 보였다. 2007년에 조금 하락세가 나타났으나 2008년, 2009년에 연속으로 상승하여 각각 약 15.53%, 약 17.42%를 기록하였다.

독일의 경우 2000년에 IMS 지수 값이 약 2.17%로 높은 편이 아니지만 2001년, 2002년 연속으로 급증하여 2002년에는 미국 보다 훨씬 높은 약 17.04%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급락하여 2005년에는 약 4.51%의 값을 나타냈으며 다시 2007년 약 7.67%로 증가하고 2009년에는 약 5.96%를 기록하였다.

표 4-18. 보험 부문 IMS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2664	0.2146	0.0826	0.0628	0.2472	0.3422	0.4422	0.5442	0.5347	0.4045
중 국	0.4211	0.8107	0.4674	0.5782	0.6788	1.1144	0.8856	1.1860	1.5857	1.8979
프랑스	5.1796	3.1830	2.4116	3.8280	1.5892	2.2930	1.3092	1.3723	0.8164	0.9184
독 일	2.1657	6.2345	17.0396	12.4958	6.4607	4.5077	6.0434	7.6678	5.1571	5.9598
일 본	0.6808	0.0000	0.0000	0.6892	1.9022	1.7716	2.5459	1.7628	1.0745	1.0232
영 국	15.8678	18.8534	18.7783	16.2834	16.1891	5.7253	11.3917	13.5273	16.0415	15.4496
미 국	14.1836	12.2300	9.8787	11.0412	13.0366	15.3469	15.2585	14.2270	15.5252	17.4209

주 : 1. 음의 수출은 국내 유입된 보험료 수입보다 해외 보상금 지출이 더 많은 경우.  
 2. 2001년 약 -1.0억 달러, 2002년 약 -3.8억 달러의 음의 수출을 보인 일본의 경우 해당 연도의 IMS 지수는 영(0)의 값으로 처리함.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프랑스는 2000년에 약 5.18%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1년, 2002년 연속으로 점유율이 감소하였고, 2003년에 다시 상승하여 약 3.83%의 IMS 지수를 나타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면서 2009년에는 약 0.92%의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2000년 약 0.68%의 낮은 IMS 지수를 보였고 2001년과 2002년에는 음의 수출을 기록하여 0%의 IMS 지수로 처리되었다.<sup>51)</sup>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06년에는 최대치인 약 2.55%의 IMS 지수를 기록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09년에는 약 1.03%의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보험 서비스 부문에서 중국과 한국은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먼저, 중국의 경우 2000년에 약 0.42%의 IMS 지수를 나타냈고 2004년까지 1% 미만의 점유율을 유지하다가 2005년에 약 1.11%의 IMS 지수를 기록하고 조금씩 상승하여 2009년에는 약 1.90%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한국은 7개국 중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 약 0.27%의 IMS 지수를 기록한 후 특별한 증가세 없이 2006년까지 점유율이 0.5%에 미달하였다가 2007년, 2008년에는 각각 약 0.54%, 0.53%의 수치를 기록하고 2009년에는 다시 하락하여 약 0.40%의 점유율을 보였다.

보험 서비스 부문의 TSI 산출 결과에서는 영국만 대상기간 모든 연도에서 양(+)의 값을 가지며 가장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0.5771을 기록한 영국은 2002년 0.7608, 2004년 0.7135의 수치를 보이며 높은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은 TSI 값이 0.2706로 많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0.7846을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다른 6개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TSI를 유지하였다.

독일은 2000년에 -0.2919의 TSI 값을 나타내어 음(-)의 값을 가져 비교열위에 있는 상태이나 2001년 0.2024, 2002년 0.7078로 급격히 양(+)의 값으로 증가해 비교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2004년, 2005년에는 다시 -0.1779, -0.3670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 약한 경쟁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 2006년부터는 다시 양(+)의 값을 회복하여 2007년, 2009년 각각 0.2878, 0.1880의 TSI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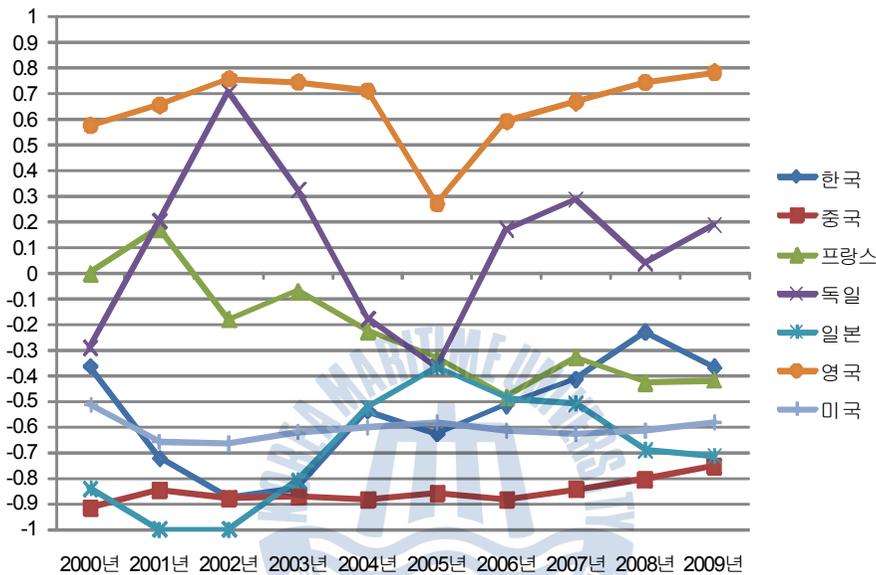
프랑스는 2000년에 음의 수입을 기록하여 TSI의 값이 영(0)으로 처리되었으며, 2001년에는 0.1729로 양(+)의 값을 가져 비교우위가 있는 듯하였다. 하지만, 2002년부터 다시 음(-)의 값을 기록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

---

51) 보험 서비스의 계상방법은, 수출(대변, Credit)에는 거주보험사가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뺀 금액을, 수입(차변, Debit)에는 거주자가 비거주보험사에게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급 받은 보험금을 뺀 금액을 계상한다.

이면서 2009년에는 -0.4190을 보였다. 대상기간이 10개 연도 중 최근 8개 연도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프랑스도 TSI 값으로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1. 보험 부문 TSI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은 대상기간의 모든 연도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TSI에서는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0.3632의 TSI 값을 기록한 뒤 2002년 -0.8785, 2003년 -0.8397까지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2008년에는 최대치인 -0.2293을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하여 -0.3671을 기록하였다. 미국의 TSI 값은 첫 해인 2000년에 -0.5131을 기록한 뒤로는 2001년에 -0.6598, 2005년에 -0.5829, 2009년에 -0.5807을 기록하며 등락 없이 -0.60 내외의 값을 유지하였다.

표 4-19. 보험 부문 TSI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3632	-0.7230	-0.8785	-0.8397	-0.5376	-0.6257	-0.5146	-0.4138	-0.2293	-0.3671
중 국	-0.9164	-0.8455	-0.8790	-0.8717	-0.8829	-0.8582	-0.8831	-0.8438	-0.8042	-0.7526
프랑스	0.0000	0.1729	-0.1802	-0.0711	-0.2255	-0.3321	-0.4842	-0.3289	-0.4259	-0.4190
독 일	-0.2919	0.2024	0.7078	0.3261	-0.1779	-0.3670	0.1710	0.2878	0.0401	0.1880
일 본	-0.8415	-1.0000	-1.0000	-0.8096	-0.5264	-0.3687	-0.4875	-0.5081	-0.6912	-0.7131
영 국	0.5771	0.6559	0.7608	0.7480	0.7135	0.2706	0.5930	0.6696	0.7456	0.7846
미 국	-0.5131	-0.6598	-0.6648	-0.6172	-0.5982	-0.5829	-0.6131	-0.6285	-0.6112	-0.5807

- 주 : 1. 음의 수출은 국내 유입된 보험료 수입보다 해외 보상금 지출이 더 많은 경우를 나타내며, 음의 수입은 해외로 유출된 보험료보다 해외로부터의 보상금 수입이 더 많은 경우.  
 2. 2000년 약 -3.3억 달러의 음의 수입을 보인 프랑스의 경우 해당 연도의 TSI는 영(0)의 값으로 처리하며, 2001년 약 -1.0억 달러, 2002년 약 -3.8억 달러의 음의 수출을 보인 일본의 경우 해당 연도의 TSI는 -1.0의 값으로 처리함.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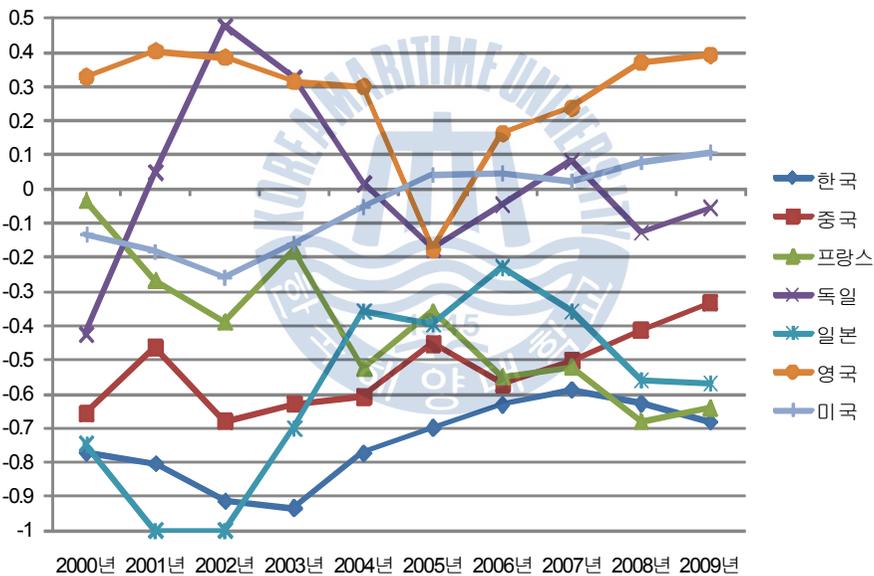
일본은 2000년에 -0.8415의 TSI 값을 보인 뒤 2001년과 2002년에는 음의 수출로 인하여 -1.0으로 처리되었고,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05년에는 최대치인 -0.3687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시 하락 추이를 보이며 감소하여 2009년에는 -0.7131을 나타내었다. 중국은 7개국 중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TSI 값을 보이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에 -0.9164의 매우 낮은 TSI를 기록한 뒤 2008년까지 계속 -0.8000 미만에서 횡보하다가 2009년에 -0.7526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보험 서비스 부문의 RSCA 지수의 산출 결과에서는 7개국 모두 대상기간 동안 최소 1개 연도는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개 연도를 제외하고 양(+)의 값을 나타낸 영국과, 5개 연도에서 양(+)이 값을 나타낸 독일, 미국 세 나라가 RSCA 지수 값에서는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경우 TSI 지수 값이 2000년에 0.3299를 기록한 후 2001년 0.4047, 2002년 0.3863, 2004년 0.3012를 기록하여 계속 비교우위를 보였지만 2005

년 한 해에는 -0.1764의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급격히 상승하여 2009년에는 최고치에 가까운 0.3924를 기록하였다. 독일은 2000년에는 -0.4253으로 매우 낮은 음(-)의 RSCA 지수 값을 보여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이후 2001년 0.0476을 기록하고 2002년에는 영국 보다 높은 0.4758을 기록하여 비교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3개 연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2005년에는 -0.1761으로 다시 음(-)의 값을 전환되었다. 2007년에 0.0815로 다시 양(+)의 값을 가지는 듯 했으나 2008년, 2009년 연속으로 다시 각각 -0.1270, -0.0560을 기록하며 음(-)의 값을 보였다.

그림 4-22. 보험 부문 RSCA지수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미국은 2000년에는 -0.1307로 독일보다 높은 경쟁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독일은 양(+)의 값을 보이는데 반면 미국은 계속해서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면서 2005년에 음(-)의 값으로 반전된 독일과는 달리 0.0414의 양(+)의 값을 기록

한 뒤 계속해서 양(+)<sup>1)</sup>의 값을 유지하였고 2009년에는 최대치인 0.1069를 기록하였다. 2005년 이후로 보면 미국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3개국을 제외한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은 모든 연도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해당 4개국은 TSI 값으로 판단 시 보험 서비스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프랑스는 2000년에는 -0.0334를 기록하여 음(-)의 값이기는 하나 영(0)에 가까운 값을 가졌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추세를 이어갔다. 결국 2008년에는 -0.6811을 기록하여 7개국 중 가장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에는 한국 다음으로 낮은 -0.6406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4-20. 보험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7723	-0.8033	-0.9144	-0.9341	-0.7735	-0.6996	-0.6310	-0.5875	-0.6263	-0.6821
중 국	-0.6568	-0.4638	-0.6809	-0.6282	-0.6079	-0.4531	-0.5696	-0.5012	-0.4124	-0.3336
프랑스	-0.0334	-0.2665	-0.3901	-0.1794	-0.5254	-0.3595	-0.5501	-0.5202	-0.6811	-0.6406
독 일	-0.4253	0.0476	0.4758	0.3257	0.0168	-0.1761	-0.0467	0.0815	-0.1270	-0.0560
일 본	-0.7461	-1.0000	-1.0000	-0.7009	-0.3578	-0.3955	-0.2300	-0.3579	-0.5601	-0.5685
영 국	0.3299	0.4047	0.3863	0.3148	0.3012	-0.1764	0.1626	0.2383	0.3718	0.3924
미 국	-0.1307	-0.1816	-0.2607	-0.1592	-0.0522	0.0414	0.0467	0.0236	0.0777	0.1069

- 주 : 1. 음의 수출은 국내 유입된 보험료 수입보다 해외 보상금 지출이 더 많은 경우.  
 2. 2001년 약 -1.0억 달러, 2002년 약 -3.8억 달러의 음의 수출을 보인 일본의 경우 해당 연도의 RSCA 지수는 -1.0의 값으로 처리함.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중국은 2000년 -0.6568을 기록한 후 다음해는 상승하여 -0.4638을 보였으나 2002년에 다시 하락하여 -0.6809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상승 추이를 보이면서 2005년에 -0.4531 수치를 기록하고 2006년 소폭 하락하여 -0.5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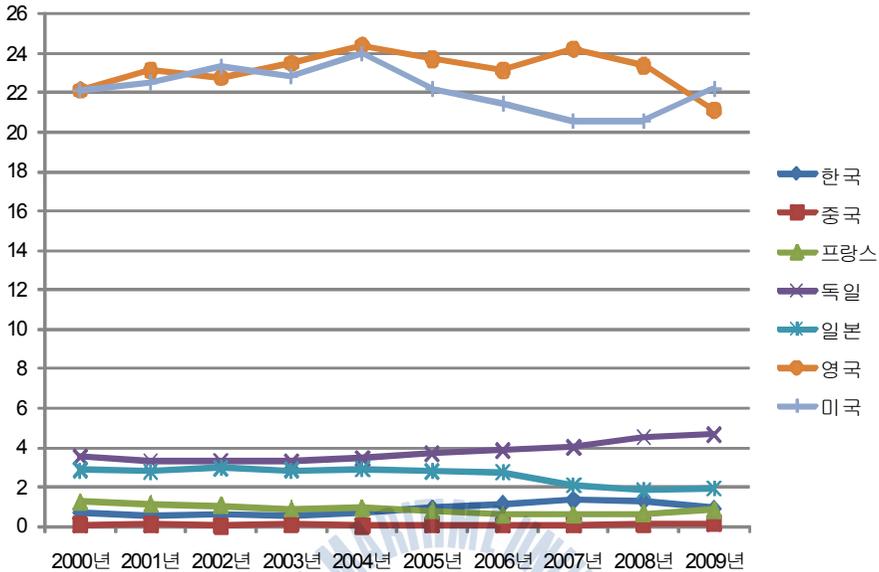
의 값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는 -0.3336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2000년 -0.7461의 RSCA 지수 값을 보였으나 2001년과 2002년에는 음의 수출로 -1.000으로 처리되었다. 이후 2003년에 -0.7009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에 -0.2300의 수치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추이를 보이여 2009년에는 -0.5685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7개국 중 가장 낮은 RSCA 지수 값을 보이고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0.7723을 기록하고 계속 하락하여 2003년에는 최저치인 -0.9341을 기록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에는 -0.5874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8년, 2009년에 각각 -0.6263, -0.6821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 7. 금융 부문

서비스 무역에서 금융 부문의 국제시장점유율은 미국과 영국이 압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국가들에서는 금융서비스의 특성상 금융서비스 수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를 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7개국 모두 대상기간의 각 연도별 점유율이 횡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IMS 수치에서 미국과 영국은 압도적인 점유율로 상위 그룹을 이루고 있다. 2000년에 영국과 미국 각각 약 22.144%, 약 22.139%로 거의 같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영국이 약간 우위를 보였고 2002년에는 다시 미국이 우위를 보인 뒤 2003년부터는 영국이 미국 보다 계속해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영국이 각각 약 24.24%, 약 23.38%, 미국이 각각 약 20.59%, 약 20.56%를 기록하면서 약 3%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미국이 약 22.21%, 영국이 21.12%로 미국이 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3. 금융 부문 IMS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영국,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 들은 대부분 점유율이 4% 미만에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2000년에 약 3.54%의 IMS 수치를 기록한 후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하다가 2003년을 지나면서 상승 추이를 보였고, 2006년에 약 3.85%의 IMS를 나타낸 뒤 2007년에는 약 4.02%로 점유율이 4%를 넘어섰다. 2008년, 2009년에도 계속 상승하여 각각 약 4.54%, 4.67%를 기록하였다.

독일을 이어서는 일본이 다소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2년 약 2.87%의 IMS 수치를 보인 뒤 계속 2%대의 점유율을 유지하였으나 2004년이 지나면서 하락 추이를 보였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약 1.84%와 1.92%를 기록하면서 1%대로 감소하였다.

나머지 3개국은 모두 대부분의 연도에서 1%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의 경우 2000년에 각각 약 0.71%, 약 1.27%를 기록하여 프랑스가 다소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두 나라 모두 거의 횡보하고 있는 형태의 점유

을이지만 2005년에는 한국이 약 0.92%, 프랑스가 약 0.80%로 한국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이후 계속해서 한국이 더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또한 한국은 2006년에 약 1.14%의 점유율을 보이던 1%대를 계속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약 0.91%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대상기간의 모든 연도에서 7개국 중 가장 낮은 IMS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소치는 2002년의 약 0.05%의 점유율이고 최대치는 2009년의 약 0.18%로 전 연도에서 0.2%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표 4-21. 금융 부문 IMS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7055	0.5475	0.6624	0.5740	0.7130	0.9197	1.1383	1.3497	1.2801	0.9136
중 국	0.0779	0.1017	0.0486	0.1249	0.0618	0.0809	0.0651	0.0778	0.1064	0.1751
프랑스	1.2667	1.1232	1.0759	0.8910	0.9531	0.7988	0.6008	0.6058	0.6633	0.8477
독 일	3.5394	3.3247	3.3191	3.2991	3.4643	3.6823	3.8494	4.0210	4.5376	4.6741
일 본	2.8676	2.7858	2.9810	2.8519	2.9011	2.8101	2.7532	2.0940	1.8414	1.9246
영 국	22.1437	23.1403	22.7753	23.5107	24.4328	23.7114	23.1443	24.2373	23.3815	21.1166
미 국	22.1391	22.5067	23.3518	22.8759	23.9559	22.2162	21.4333	20.5918	20.5607	22.2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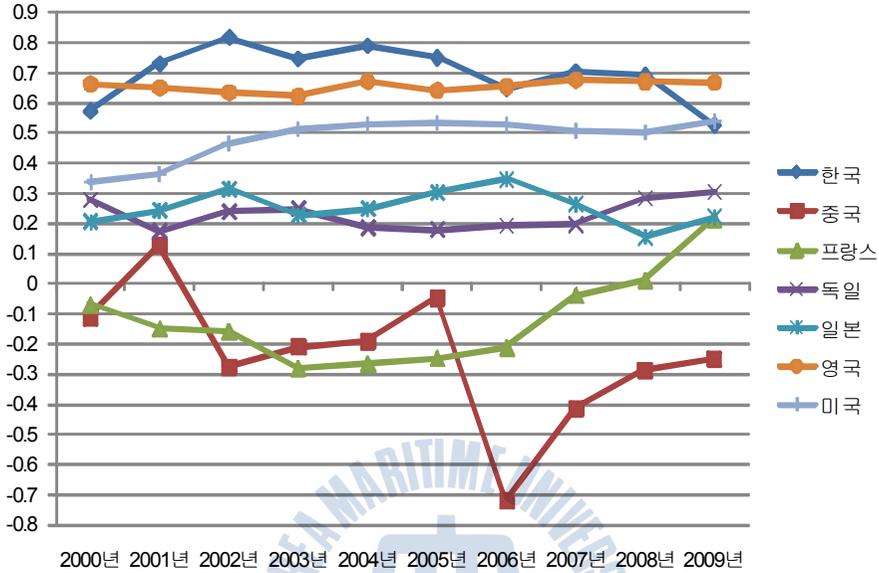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금융서비스 부문의 TSI 값의 산출 결과 한국,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5개국이 전체 연도에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영국이 가장 높은 TSI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2년 0.5732를 기록하고 2002년에 0.8182로 상승하다 다시 하락 추이를 보이며 2006년에는 0.6457의 수치를 보였다. 2007년 0.7036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2009년에는 0.5263을 기록했다.<sup>52)</sup> 영국은 2002년 0.6638을

52) 서비스 수지로 분류되어 국제수지에 계상되는 금융서비스는 금융산업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환거래, 수출신용장(L/C) 등과 관련된 금융중개수수료, 유가증권거래관련 수수료,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 거래업자의 수수료, 유가증권예탁서비스 등에 한하기 때문에, 소득수지나 자본수지의 고려없이 서비스 수지로 분류되는 금융서비스 수출입액만으로 산출된 TSI 등으로 우리나라 금융

기록한 뒤 거의 등락 없이 횡보하면서 2009년에는 0.6695를 기록하였다.

그림 4-24. 금융 부문 TSI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미국은 2000년 TSI 수치가 0.3383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에는 0.5337을 나타내었다. 이후에는 거의 횡보하는 수준에서 변화하였고 2009년에는 0.5423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2000년 0.2066의 TSI 값을 보인 뒤 상승하여 2002년에는 0.3145를 기록하였다. 2003년에 0.2280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0.3464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다시 감소하여 2009년에는 0.2224의 수치를 나타냈다. 독일은 2000년 0.2786의 수치를 보인 후 2001년에는 0.1744로 소폭 하락하고 2002년, 2003년에는 다시 소폭 상승한 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0.20 수준에서 횡보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상승하여 각각 0.2853, 0.3066을 기록하였다.

금융서비스 부문의 TSI 지표에서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과 프랑스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는 중국은 1개 연도, 프랑스는 2개 연도를 제외하고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0년 -0.1121을 기록하고 2001년에 0.1250으로 양(+)의 값을 보였으나 이후 크게 하락하여 2002년에는 -0.2757 기록하였다. 2005년까지는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06년 다시 -0.7195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 뒤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는 -0.2484를 기록하였다.

표 4-22. 금융 부문 TSI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5732	0.7307	0.8182	0.7471	0.7908	0.7507	0.6457	0.7036	0.6914	0.5263
중 국	-0.1121	0.1250	-0.2757	-0.2095	-0.1903	-0.0467	-0.7195	-0.4146	-0.2850	-0.2484
프랑스	-0.0687	-0.1481	-0.1585	-0.2801	-0.2650	-0.2476	-0.2132	-0.0392	0.0121	0.2140
독 일	0.2786	0.1744	0.2409	0.2492	0.1858	0.1801	0.1945	0.1986	0.2853	0.3066
일 본	0.2066	0.2437	0.3145	0.2280	0.2485	0.3048	0.3464	0.2644	0.1559	0.2224
영 국	0.6638	0.6502	0.6353	0.6222	0.6718	0.6428	0.6548	0.6765	0.6705	0.6695
미 국	0.3383	0.3663	0.4642	0.5135	0.5307	0.5337	0.5294	0.5102	0.5021	0.5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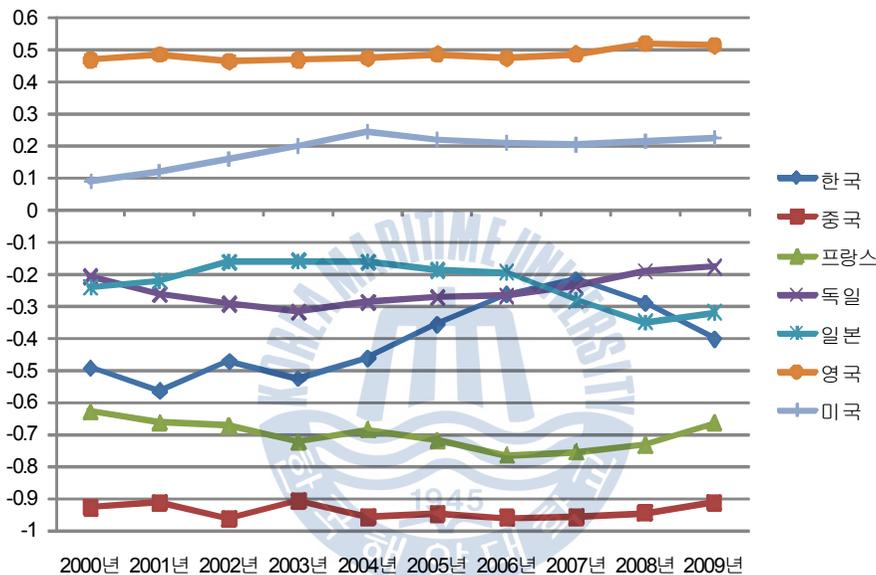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프랑스는 2000년에 -0.0687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에는 -0.2801의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계속된 상승 추이를 이어나가면서 2007년 -0.0392를 기록한 뒤,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0.0121, 0.2140으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프랑스의 금융서비스는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하겠으나 그 추이를 볼 때 향후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 부문의 RSCA 지수 산출 결과, 영국과 미국만이 양(+)의 값을 가지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상기간 중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영국의 경우 2000년에 0.4694의 RSCA 지수를 보인 뒤 거의 그 수준에서 RSCA 지수가 횡보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각각 0.5219, 0.5160을 기록했다. 영국 다음으로 모든

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은 2000년 0.0909의 RSCA 지수 값을 나타낸 뒤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 0.2467의 값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 하락 추이를 보이며 2007년에는 0.2055를 기록하였고 2008년과 2009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여 각각 0.2150, 0.2249를 기록하였다.

그림 4-25. 금융 부문 RSCA지수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대상기간 중 모든 연도에서 음(-)의 RSCA 지수를 보여주고 있어 비교열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5개국 중 독일은, 2000년 -0.2056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여 2003년에는 -0.3166의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상승 추이를 이어가면서 계속 증가하여 2009년에는 최고치인 -0.1758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2000년 -0.2403을 기록한 후 2003년 -0.1576을 기록할 때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하락 추이를 보이면서 계속 감소하여 2008년에는 최소치인 -0.3485의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0.3179를 기록

했다. 한국의 RSCA 수치는 2000년 -0.4923, 2001년 -0.5646, 2002년 -0.4717, 2003년 -0.525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이어 나갔다. 2007년에 최대치로 -0.2162를 기록한 후 다시 하락하여 2009년에는 -0.4017을 기록하였다.

표 4-23. 금융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4923	-0.5646	-0.4717	-0.5252	-0.4616	-0.3559	-0.2639	-0.2162	-0.2903	-0.4017
중 국	-0.9262	-0.9121	-0.9613	-0.9060	-0.9565	-0.9468	-0.9605	-0.9574	-0.9457	-0.9119
프랑스	-0.6277	-0.6606	-0.6726	-0.7213	-0.6855	-0.7180	-0.7649	-0.7554	-0.7329	-0.6637
독 일	-0.2056	-0.2606	-0.2916	-0.3166	-0.2866	-0.2720	-0.2657	-0.2365	-0.1893	-0.1758
일 본	-0.2403	-0.2199	-0.1616	-0.1576	-0.1619	-0.1854	-0.1927	-0.2807	-0.3485	-0.3179
영 국	0.4694	0.4867	0.4652	0.4695	0.4751	0.4871	0.4765	0.4888	0.5219	0.5160
미 국	0.0909	0.1208	0.1619	0.2009	0.2467	0.2226	0.2133	0.2055	0.2150	0.2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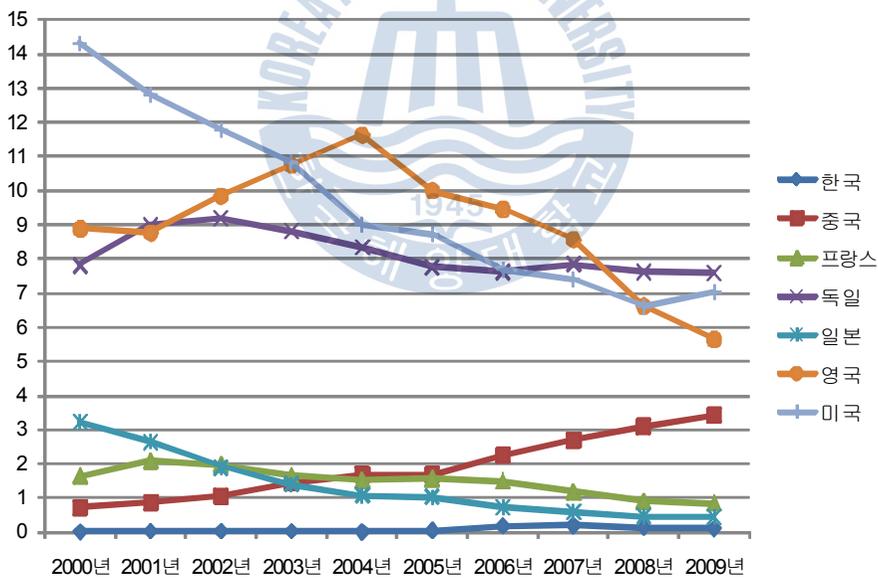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하위 그룹은 프랑스와 중국이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은 대상기간 중 모든 연도에서 7개국 중 가장 낮은 RSCA 지수를 나타내면서 매우 약한 경쟁력을 보였으며, 프랑스 또는 모든 연도에서 중국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는 2000년 -0.6277의 수치를 보인 후 2003년 -0.7213까지 하락한 뒤 2004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5년, 2006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가 2006년에 최소치인 -0.7649를 기록한 후에는 상승 추이가 이어져 2009년에는 -0.6637을 나타냈다. 중국은 2000년 -0.9262를 기록한 후 전체 연도에서 계속 -0.9000 미만의 RSCA 지수를 보이고 있어 그 비교열위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 8. 컴퓨터 및 정보 부문

컴퓨터 및 정보 부문의 IMS 값은 2000년에 미국이 약 14.3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영국 보다 낮은 약 9.00%를 차지하였으며 2007년에는 영국 및 독일 보다 낮은 약 7.43%를 차지하였다. 2008년까지 하락하다 2009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독일 다음으로 높은 7.03%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영국은 2000년에 약 8.89%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에는 7개국 중 가장 높은 약 11.63%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9년에는 독일, 미국 다음으로 약 5.65%를 기록하였다.

그림 4-26. 컴퓨터 및 정보 부문 IMS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독일은 2000년에 약 7.82%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한 미국이나, 2004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계속 감소한 영국과는 달리 큰 폭의 등락없이 지속되어 2009년에는 7개국 중 가장 높은 약 7.60%의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컴퓨터 및 정보 부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3개국이 상위그룹의 IMS 값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4개국 중 일본은 2000년에 약 3.23%의 점유율을 보여 하위 4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약 0.45%로 중국, 프랑스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2000년에 약 1.65%를 기록하고 2001년 약 2.10%, 2002년 약 1.98%를 차지한 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약 0.84%의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일본 보다 약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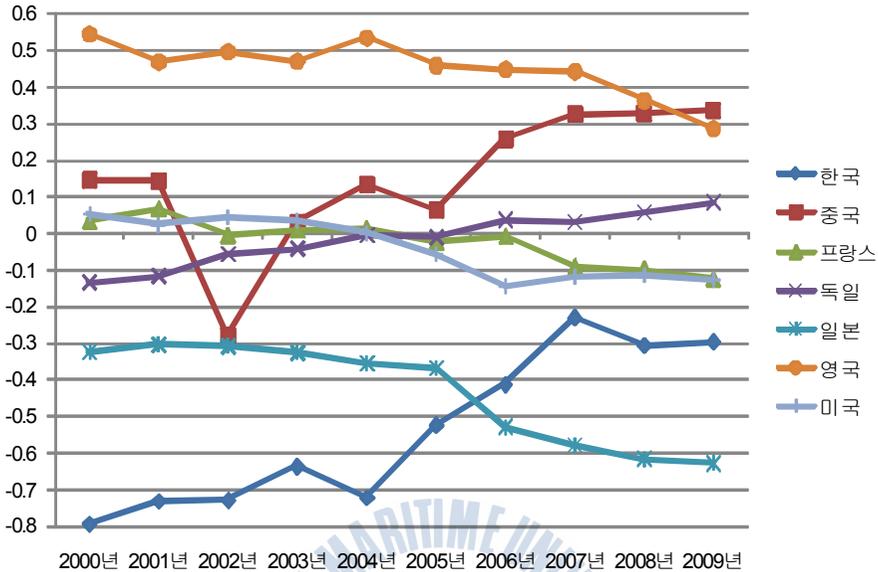
표 4-24. 컴퓨터 및 정보 부문 IMS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0218	0.0301	0.0324	0.0391	0.0262	0.0528	0.1898	0.2114	0.1508	0.1145
중 국	0.7324	0.8633	1.0601	1.4521	1.6948	1.7007	2.2612	2.7003	3.1043	3.4218
프랑스	1.6463	2.1003	1.9815	1.6655	1.5309	1.5746	1.4952	1.1849	0.9128	0.8424
독 일	7.8151	8.9981	9.1881	8.8237	8.3447	7.7776	7.6190	7.8403	7.6231	7.5964
일 본	3.2291	2.6463	1.8940	1.4171	1.0795	1.0407	0.7388	0.6005	0.4695	0.4534
영 국	8.8874	8.7694	9.8488	10.7500	11.6348	10.0109	9.4540	8.5705	6.6295	5.6479
미 국	14.2984	12.8221	11.7591	10.8208	8.9990	8.7190	7.7055	7.4291	6.6304	7.0300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중국은 2000년에 일본, 프랑스 보다는 낮은 약 0.73%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약 1.69%로 일본과 프랑스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하위 4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약 3.42%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2000년에 약 0.02%를 기록한 뒤 별다른 등락 없이 대상기간 모든 연도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2009년에는 약 0.11%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그림 4-27. 컴퓨터 및 정보 부문 TSI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컴퓨터 및 정보 부문의 TSI 값에서는 영국이 7개국 중 유일하게 대상기간 모든 연도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며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0.545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2009년에 0.287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1개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0.1464, 0.1439를 기록한 후 2002년에 -0.2793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003년에 0.0310으로 다시 양(+)의 값을 가진 뒤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영국 보다 높은 0.3365를 기록하였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은 대상기간 동안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2000년 0.0546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부터 음(-)의 값을 보이고 2009년에는 -0.1244의 값을 보였다. 프랑스는 2000년에 0.0361을 기록한 뒤 2002년에 -0.0040으로 음(-)의 값을 보였고

2003년, 2004년에는 다시 양(+)의 값을 가졌으나 2005년부터 또 음(-)의 값을 나타내어 2009년에는 -0.1234를 기록하였다. 독일은 2000년 -0.1337로 음(-)의 값을 가져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에 양(+)의 값을 보였고 2009년에 0.0863을 기록하였다.

표 4-25. 컴퓨터 및 정보 부문 TSI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7930	-0.7310	-0.7288	-0.6365	-0.7221	-0.5242	-0.4132	-0.2304	-0.3058	-0.2956
중 국	0.1464	0.1439	-0.2793	0.0310	0.1330	0.0629	0.2595	0.3261	0.3278	0.3365
프랑스	0.0361	0.0687	-0.0040	0.0100	0.0140	-0.0221	-0.0073	-0.0898	-0.0984	-0.1234
독 일	-0.1337	-0.1158	-0.0555	-0.0413	-0.0038	-0.0101	0.0376	0.0320	0.0575	0.0863
일 본	-0.3229	-0.3028	-0.3065	-0.3245	-0.3545	-0.3671	-0.5274	-0.5774	-0.6154	-0.6270
영 국	0.5455	0.4697	0.4971	0.4704	0.5357	0.4593	0.4492	0.4426	0.3631	0.2871
미 국	0.0546	0.0252	0.0430	0.0377	0.0031	-0.0580	-0.1427	-0.1167	-0.1144	-0.1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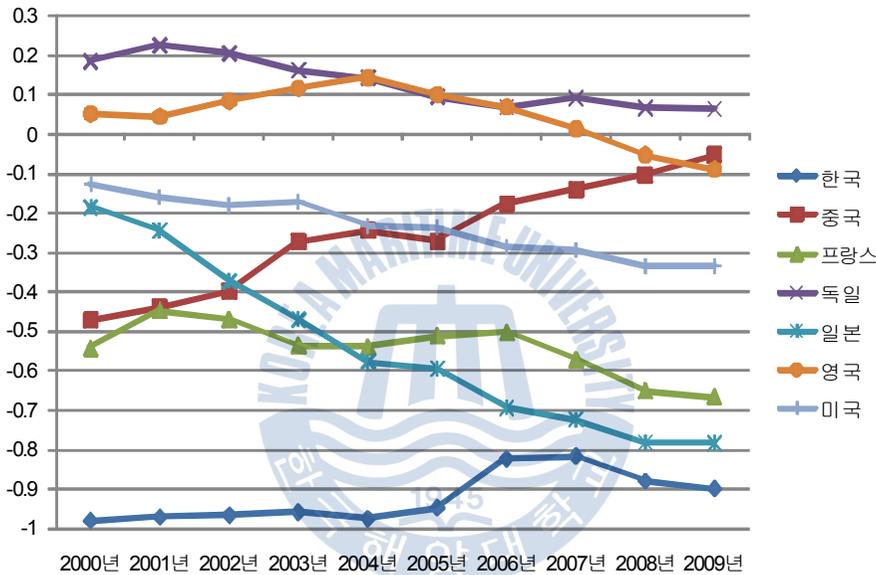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일본과 한국은 대상기간 동안 계속해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0년 -0.3229를 기록하고 계속 하락하여 2006년부터 7개국 중 가장 낮은 TSI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9년에 최저치인 -0.6270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2000년에 7개국 중 가장 낮은 -0.7930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3년에 -0.6365의 값을 보인 후 2004년에 다시 하락하여 -0.7221의 값을 나타냈다.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7년 최대치인 -0.2304를 기록하고 2009년에는 -0.2956을 기록하였다.

RSCA 지수에서는 독일이 대상기간 모든 연도에서 양(+)의 값을 보이면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00년, 2001년 각각 0.1853, 0.2270을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0.0651의 값을 나타냈다. 또한 2004년~2006년 3개 연도에서 영국 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나머지 연도에서는 모두 독일이 7개국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났다. 독일과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영국은 2007년까지는 양(+)<sup>1)</sup>의 값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2000년, 2001년에 각각 0.0529, 0.0465를 기록한 후 계속 상승하여 2004년에 최대치인 0.1446의 값을 보인 뒤 2006년까지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점차 하락하여 2009년에는 -0.0882를 기록하였다.

그림 4-28. 컴퓨터 및 정보 부문 RSCA지수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나머지 5개국은 대상기간 모든 연도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00년 -0.1268의 음(-)의 값을 나타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0.3332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2000년에 -0.4703으로 하위 5개국 중 미국, 일본 다음의 값을 가졌으나 이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전체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면서 계속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영국 보다 높은 -0.0521을 기록하였다.

표 4-26. 컴퓨터 및 정보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9792	-0.9698	-0.9655	-0.9584	-0.9733	-0.9469	-0.8230	-0.8166	-0.8783	-0.8985
중 국	-0.4703	-0.4387	-0.3981	-0.2710	-0.2431	-0.2704	-0.1763	-0.1386	-0.1022	-0.0521
프랑스	-0.5416	-0.4470	-0.4700	-0.5353	-0.5388	-0.5111	-0.5021	-0.5717	-0.6500	-0.6654
독 일	0.1853	0.2270	0.2058	0.1626	0.1437	0.0945	0.0690	0.0926	0.0676	0.0651
일 본	-0.1836	-0.2442	-0.3712	-0.4688	-0.5767	-0.5943	-0.6925	-0.7225	-0.7807	-0.7827
영 국	0.0529	0.0465	0.0846	0.1177	0.1446	0.1008	0.0707	0.0147	-0.0512	-0.0882
미 국	-0.1268	-0.1586	-0.1778	-0.1690	-0.2332	-0.2367	-0.2866	-0.2925	-0.3342	-0.3332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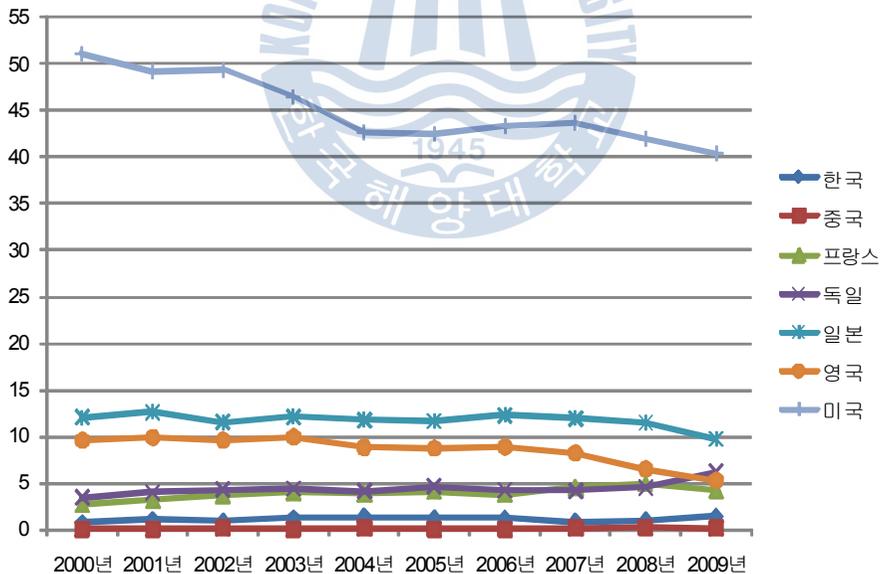
## 9.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서비스 무역 대부분의 부문에서 가장 높은 국제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은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에서 특히 가장 높은 IMS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는 IMS 값이 약 51.10%로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후 단계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에 약 42.61%의 점유율을 기록한 후 다시 소폭 상승하여 2007년에 약 43.62%를 기록하고 2009년에는 2000년 보다 10% 이상 감소한 약 40.50%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10년간 큰 하락폭을 보이긴 하였으나 다른 6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여전히 큰 격차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이 약 10% 전후의 국제시장점유율을 나타내면서 미국에 뒤따르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약 12.09%의 IMS 수치를 보였고 이후 큰 등락 없는 점유율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 약 12.31%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약 9.79%의 IMS 값을 나타냈다. 영국은 2000년 약 9.64%의 점유율을 차지한 후 2003년 약 9.98%의 IMS 값을 가질 때 까지 1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는 약 6.56%로 하락하였고, 2009년에는 독일 보다 낮은 약 5.35%의 IMS 수치를 기록하였다.

미국에 이어 일본과 영국, 그리고 다음 그룹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약 4~5%의 국제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2000년 약 3.44%의 점유율을 기록한 후 다음해 약 4.03%로 2001년부터는 계속해서 4%를 상회하고 있는 수치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에서 소폭의 등락이 반복하는 형태를 유지하다 2008년에 약 4.53%의 IMS 값을 보인 후 2009년에는 영국 보다 높은 약 6.19%의 IMS 수치를 나타내었다. 프랑스 또한 독일과 유사한 점유율을 보였다. 2000년에는 약 2.74%의 IMS 수치를 보이며 이후 연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1년 약 3.15%, 2002년 약 3.70%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3년부터는 2004년과 2006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4%를 상회하였다. 2008년에 최고치인 약 4.96%의 IMS를 기록하고 2009년에는 소폭 하락한 약 4.24%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4-29.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IMS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국제시장점유율에 있어 7개국 중 한국과 중국이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

다. 한국은 약 1% 전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은 약 0.1%~0.2% 전후로 매우 낮은 IMS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에 0.81%의 IMS 값을 기록한 한국은 다음해에는 약 1.12%로 1%를 상회하였으나 2002년에 다시 약 0.93%로 1%를 하회하였고, 이후에는 2007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1%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 최고치인 약 1.44%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2000년 약 0.10%, 2001년 0.13% 등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큰 등락 없이 7개국 중 최하위의 IMS 수치를 지속하였다. 2008년에 최고치인 약 0.25%를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약 0.19%를 기록하였다.

표 4-27,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IMS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8134	1.1180	0.9271	1.2957	1.3983	1.2588	1.2527	0.8948	1.0637	1.4430
중 국	0.0950	0.1332	0.1474	0.1057	0.1776	0.1038	0.1252	0.1767	0.2548	0.1937
프랑스	2.7408	3.1506	3.7017	4.0262	3.8575	4.1139	3.8157	4.5620	4.9637	4.2365
독 일	3.4392	4.0250	4.3006	4.4548	4.1448	4.6643	4.2636	4.1794	4.5319	6.1884
일 본	12.0889	12.6654	11.5668	12.1252	11.7966	11.6460	12.3059	11.9797	11.4786	9.7871
영 국	9.6352	9.8878	9.6345	9.9803	8.8441	8.7754	8.9010	8.2856	6.5622	5.3522
미 국	51.1028	49.2688	49.3984	46.4308	42.6108	42.4769	43.3111	43.6204	41.9473	40.5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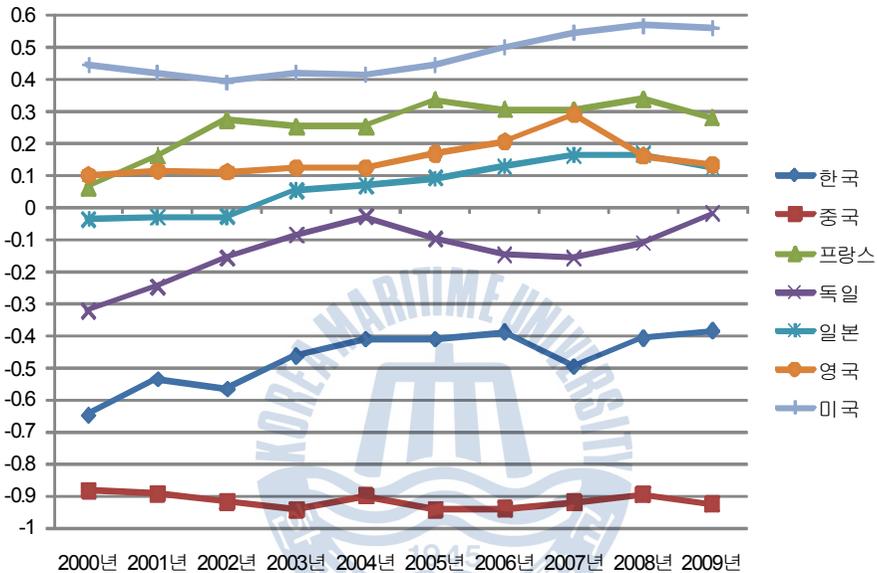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국제시장점유율에서 큰 격차로 대상기간 모든 연도에서 높은 IMS 값을 기록한 미국은 TSI 수치에서도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 프랑스, 영국 3개국이 모든 연도에서 TSI 수치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이 3개 연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이상 4개국이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00년 TSI 값으로 0.4483을 기록한 후 2002년 0.3939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8년에 최고치인 0.5692를 기록하고 2009년에 0.5613을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2000년에 0.0636으로 영국 보다 낮은

TSI 수치를 보였으나 2001년 0.1610, 2002년 0.2753으로 영국 보다 높은 값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영국을 상회하였다. 2003년, 2004년에 각각 0.2535, 0.2547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5년에 상승하여 0.3370을 기록하고 소폭 하락한 뒤 2008년에 최고치인 0.3389, 2009년에는 0.2816을 기록했다.

그림 4-30.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TSI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영국은 2000년에만 프랑스 보다 높은 0.1024를 기록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004년에 0.1247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07년에는 최고치로 프랑스와 비슷한 0.2919의 TSI 값을 나타냈다. 그러다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0.1338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2000년, 2001년, 2002년에는 각각 -0.0367, -0.0295, -0.0279로 음(-)의 값을 보여 비교열위에 있는 형국이었으나 2003년 처음 0.0545로 양(+)의 값을 나타낸 뒤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여 2008년에 최고치인 0.1679를 기록하였다. 다음해인 2009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0.1262를 나타냈다.

독일, 한국, 중국 3개국은 대상기간 모든 연도에서 계속해서 TSI 수치가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에서 비교열위 상태가 고착화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개국 모두 음(-)의 값이기는 하지만 독일, 한국, 중국 순으로 그 TSI 값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28.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TSI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6480	-0.5355	-0.5647	-0.4628	-0.4098	-0.4100	-0.3890	-0.4948	-0.4074	-0.3840
중 국	-0.8820	-0.8926	-0.9182	-0.9415	-0.9001	-0.9425	-0.9402	-0.9197	-0.8952	-0.9253
프랑스	0.0636	0.1610	0.2753	0.2535	0.2547	0.3370	0.3066	0.3043	0.3389	0.2816
독 일	-0.3220	-0.2470	-0.1563	-0.0839	-0.0284	-0.0956	-0.1458	-0.1562	-0.1102	-0.0178
일 본	-0.0367	-0.0295	-0.0279	0.0545	0.0701	0.0929	0.1291	0.1642	0.1679	0.1262
영 국	0.1024	0.1159	0.1121	0.1246	0.1247	0.1688	0.2076	0.2919	0.1628	0.1338
미 국	0.4483	0.4221	0.3939	0.4234	0.4182	0.4470	0.5009	0.5447	0.5692	0.5613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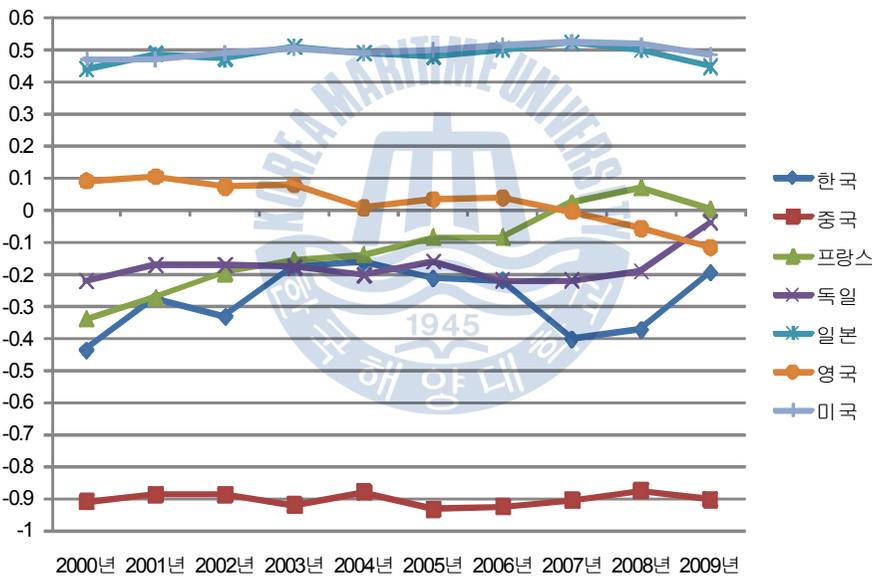
독일은 2000년 -0.3220의 TSI 값을 보인 후 수치가 빠르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영(0)에 가까운 -0.028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2007년에는 -0.1562의 수치를 보였고, 2008년에는 다시 상승한 -0.1102를 기록하고 2009년에는 최고치인 -0.0178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2000년 독일 보다 0.3 이상 작은 -0.6480을 기록하고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06년에 -0.3890의 수치를 나타낸 뒤 2007년에 -0.4948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 -0.4074, 2009년 -0.3840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중국은 2000년에 한국 보다 0.2 이상 작은 -0.8820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최하위 값으로 -0.9000 상하로 유지되었고, 2009년에는 -0.9253을 나타내었다.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의 RSCA 지수는 미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으로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영국도 3개 연도를 제외하고 양(+ )의 RSCA 지수 값을 보이고 있어 이상 3개국이 RSCA 지수에서 비교우위를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2000년에 각각 0.4695, 0.4417의 수치를 기록한 후 큰 등락 없이 계속해서 0.5000 상하의 값을 유지하였다. 2009년에는 미국이 0.4847, 일본이 0.4493의 값을 기록하였다.

영국은 2000년 0.0930의 값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에는 영(0)에 가까운 0.0085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2005년, 2006년까지는 양(+)의 값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다음해부터 음(-)의 값을 기록하여 2007년, 2008년, 2009년 각각 -0.0022, -0.0563, -0.1149의 수치를 나타내어 최근 3개 연도에서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1.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RSCA지수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비교열위에 있는 나머지 4개국 중 프랑스, 독일, 한국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 -0.3378로 독일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상승하여 -0.1549를 기록한 2003년부터는 계속해서 독일 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프랑스는 2007년부터 음

(-)의 값으로 전환된 영국과는 달리 같은 해부터 양(+)의 값으로 전환되어 2007년, 2008년, 2009년 각각 0.0240, 0.0713, 0.0052를 기록하였다.

표 4-29.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4365	-0.2753	-0.3312	-0.1746	-0.1612	-0.2120	-0.2189	-0.4013	-0.3727	-0.1946
중 국	-0.9107	-0.8865	-0.8870	-0.9198	-0.8800	-0.9323	-0.9253	-0.9057	-0.8747	-0.9029
프랑스	-0.3378	-0.2712	-0.1951	-0.1549	-0.1395	-0.0839	-0.0834	0.0240	0.0713	0.0052
독 일	-0.2193	-0.1695	-0.1691	-0.1759	-0.2024	-0.1595	-0.2176	-0.2182	-0.1899	-0.0373
일 본	0.4417	0.4881	0.4738	0.5115	0.4915	0.4802	0.5032	0.5253	0.5015	0.4493
영 국	0.0930	0.1062	0.0737	0.0809	0.0085	0.0352	0.0407	-0.0022	-0.0563	-0.1149
미 국	0.4695	0.4724	0.4914	0.5062	0.4929	0.5009	0.5142	0.5254	0.5189	0.4847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2000년 -0.2193을 기록한 독일은 이후 별다른 등락 없이 약 -0.2000 상하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이례적으로 영(0)의 값에 가까운 -0.0373으로 상승하였다. 한국은 2000년 -0.4365를 기록하여 프랑스, 독일 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나 2003년, 2004년에는 독일 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7년에 큰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0.1946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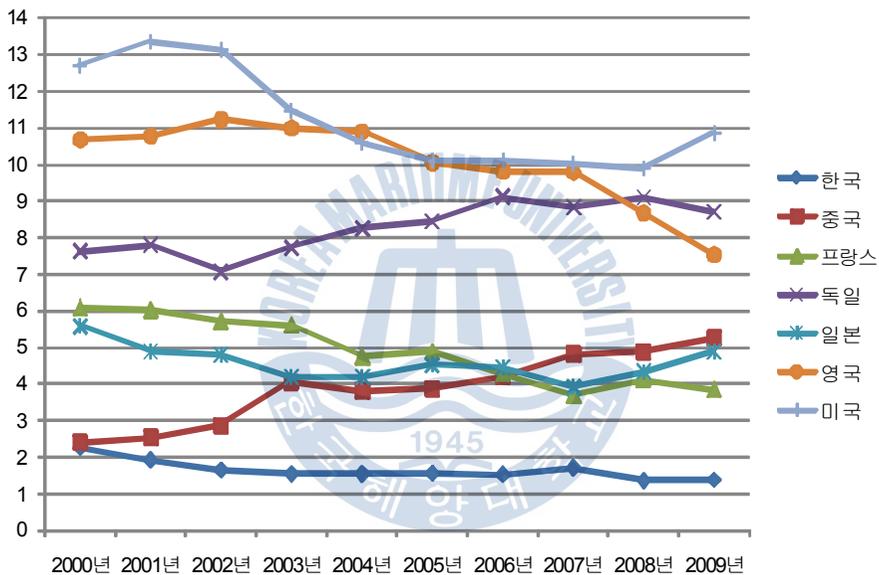
대상기간 모든 연도에서 최하위의 기록을 나타낸 중국은 2000년 -0.9107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약 -0.9000 수준에서 유지가 되었고 2009년에 -0.9029를 기록하였다.

## 10.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도 미국과 영국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약 12.6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후 2001년, 2002년에는 13%를 상회하는 약 13.35%, 약 13.14%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4년에는 영국 보다 낮은 점유율을 보였고 다음해부터는 다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였으나 등락 없이 약 10%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다시 상승하여 약 10.87%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2000년에 약 10.68%의 점유율을 기록한 영국은 약 11%의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다가 2004년 이후로 하락폭이 커지면서 2005년~2007년에는 약 10%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는 크게 하락한 약 8.69%, 약 7.55%를 기록하였다.

그림 4-32.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IMS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독일은 2000년에 약 7.63%의 점유율을 보인 뒤 2002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약 7.08%를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에는 최고치인 약 9.12%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09년에는 약 8.71%를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2000년 약 6.09%, 2001년 약 6.04%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약 4.75%, 2007년 약 3.70%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3.86%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일본도 2000년에는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인 약 5.58%의 IMS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3년까지 계속 하락하여 약 4.20%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05년 약 4.53%를 기록하고 2007년에는 하락하여 약 3.92%를 나타내었다가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약 4.90%로 프랑스보다 약 1%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표 4-30.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IMS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2.2705	1.9271	1.6608	1.5563	1.5550	1.5659	1.5322	1.7184	1.3687	1.3951
중 국	2.4166	2.5484	2.8813	4.0556	3.8185	3.8695	4.2148	4.8150	4.8927	5.2652
프랑스	6.0862	6.0361	5.7102	5.6154	4.7538	4.8913	4.2943	3.6989	4.1257	3.8590
독 일	7.6326	7.8062	7.0779	7.7366	8.2628	8.4456	9.1161	8.8399	9.1058	8.7116
일 본	5.5847	4.9003	4.8122	4.1986	4.1936	4.5336	4.4627	3.9226	4.3423	4.9032
영 국	10.6836	10.7912	11.2378	11.0071	10.8953	10.0538	9.8271	9.8026	8.6856	7.5475
미 국	12.6793	13.3526	13.1363	11.4638	10.5941	10.0974	10.0974	10.0319	9.8864	10.8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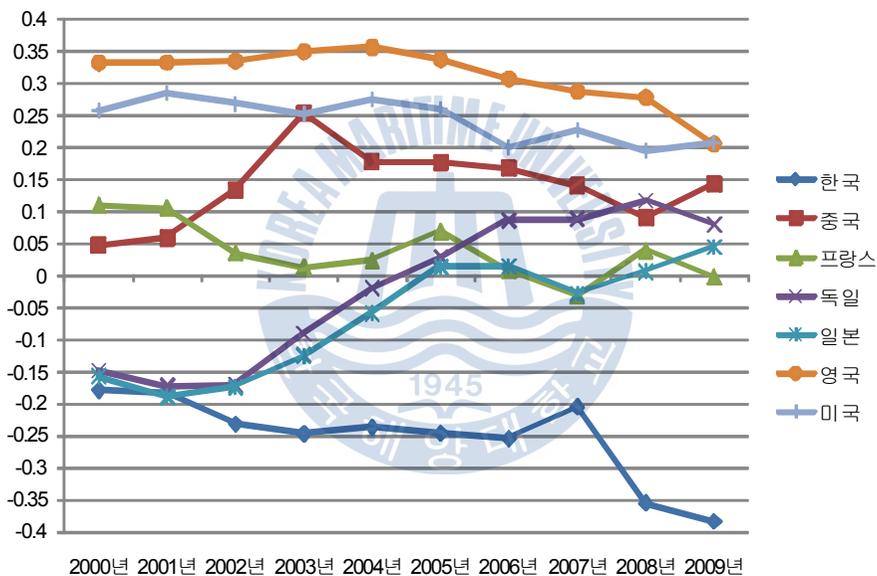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2000년에는 중국과 한국이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유사한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중국이 약 2.42%, 한국이 2.2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중국은 이 부문에서 IMS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약 4.06%를 기록하고 2007년에는 약 4.82%를 기록하여 일본, 프랑스 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최고치인 약 5.27%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국제시장점유율에서 7개국 중 대상기간의 모든 연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0년에만 2%를 상회하였고 이후에는 모든 연도에서 2%를 하회하였다.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 최저치인 약 1.37%를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약 1.40%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의 TSI 수치에서는 영국이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영국, 미국, 중국이 대상기간 모든 연도

에서 TSI 값이 양(+)의 값을 기록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2000년 0.3332를 기록한 후 점증하여 2004년 0.3572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여 2008년 0.2789의 수치를 보인 뒤 2009년에는 미국 보다 낮은 0.2063을 기록하였다. 미국은 2000년 0.2576을 기록한 후 2005년까지 0.2500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다 이후 하락하여 2006년에는 0.2003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하락한 상태지만 0.2071로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4-33.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TSI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중국은 2000년에는 프랑스 보다 하회하는 0.0481의 수치에 있었으나 이후 급증하여 2003년에는 일시적으로 미국 보다 높은 0.2538을 기록하였다. 이후로는 감소하여 2008년에는 독일 보다 낮은 0.0913의 수치를 보였고 2009년에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이어지는 0.1439의 TSI 값을 나타냈다.

프랑스는 2000년 0.1104로 중국 보다 높은 수치였으나 2002년부터는 중국

보다 낮은 TSI 값을 나타내었다. 2003년에 0.0138을 기록하고 2005년에는 소폭 상승한 0.0692를 기록했으나 2007년에는 -0.0313으로 음(-)의 값을 보였고, 2008년 0.0399로 다시 양(+)의 값을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2009년에 다시 -0.0021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표 4-31.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TSI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1785	-0.1823	-0.2307	-0.2459	-0.2366	-0.2450	-0.2540	-0.2044	-0.3551	-0.3830
중 국	0.0481	0.0592	0.1340	0.2538	0.1784	0.1768	0.1688	0.1408	0.0913	0.1439
프랑스	0.1104	0.1061	0.0361	0.0138	0.0239	0.0692	0.0080	-0.0313	0.0399	-0.0021
독 일	-0.1474	-0.1720	-0.1704	-0.0902	-0.0195	0.0281	0.0867	0.0883	0.1179	0.0804
일 본	-0.1568	-0.1888	-0.1737	-0.1240	-0.0580	0.0145	0.0150	-0.0283	0.0072	0.0450
영 국	0.3332	0.3333	0.3356	0.3499	0.3572	0.3377	0.3080	0.2883	0.2789	0.2063
미 국	0.2576	0.2855	0.2694	0.2519	0.2747	0.2611	0.2003	0.2275	0.1954	0.2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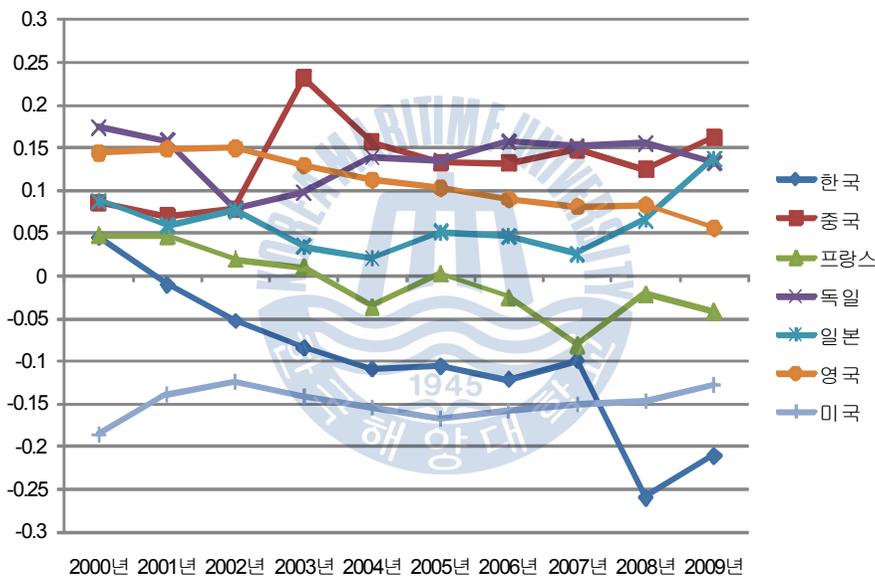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독일은 2000년에 -0.1474, 2001년에 -0.1720을 기록한 뒤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05년부터는 양(+)의 값을 기록하였다. 2004년까지는 음(-)의 값으로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부터는 양(+)의 값을 계속 나타내어 비교우위 부문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에는 중국 보다 높은 0.1179를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0.0804의 수치를 보였다. 일본도 독일과 비슷하게 2000년에 -0.1568, 2001년에 -0.1888을 기록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 2006년에는 각각 0.0145, 0.0150으로 양(+)의 값을 보였다. 2007년에 잠시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2008년, 2009년에 다시 0.0072, 0.0450의 양(+)의 값을 가져 2005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 부문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SI 값의 추이를 보면 선진국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제조업 수출에 우위를 보였던 독일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는 약세에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지

속적으로 해당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개국 중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국제경쟁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은 2000년에 TSI 값이 -0.1785를 기록하고 계속 하락하였다. 2006년에 -0.2540을 기록하고 2007년에 잠시 상승하여 -0.2044를 나타내었으나 2008년, 2009년에 다시 하락하여 각각 -0.3551, -0.3830을 기록하였다. 7개국 중 유일하게 모든 대상연도에서 음(-)의 값을 기록하고 그 값 또한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 한국의 비교열위가 고착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4.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RSCA지수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RSCA 지수에서 독일, 중국, 영국, 일본 등 4개국이 대상기간 모든 연도에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00년 0.1739로 가장 높은 RSCA 지수 값을 기록한 뒤 2002년에는 0.0782로 하락하였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6년에 0.1575를 기록하고 2009년에 중국, 일본에 이어 0.1329를 기록했다. 중국은 2000년, 2002년에 0.0863,

0.0784를 기록한 후 2003년에 급증하여 0.2314의 값을 나타냈으나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 2008년에 0.1242를 기록한 뒤 2009년에는 0.1619의 값을 보였다. 영국은 2000년에 0.1439, 2002년에 0.1496의 RSCA 지수 값을 보인 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0.0564를 기록하였다. 일본은 2000년에 0.0880을 기록하고 하락세를 보이며 2004년에 0.0209의 수치를 나타냈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9년에는 중국에 이어 0.1374를 기록하였다.

표 4-32.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0453	-0.0103	-0.0527	-0.0845	-0.1091	-0.1057	-0.1212	-0.0986	-0.2594	-0.2108
중 국	0.0863	0.0704	0.0784	0.2314	0.1568	0.1330	0.1324	0.1485	0.1242	0.1619
프랑스	0.0472	0.0469	0.0191	0.0102	-0.0359	0.0025	-0.0246	-0.0807	-0.0211	-0.0415
독 일	0.1739	0.1587	0.0782	0.0980	0.1389	0.1352	0.1575	0.1516	0.1554	0.1329
일 본	0.0880	0.0587	0.0763	0.0345	0.0209	0.0515	0.0464	0.0254	0.0651	0.1374
영 국	0.1439	0.1492	0.1496	0.1293	0.1123	0.1029	0.0899	0.0817	0.0836	0.0564
미 국	-0.1854	-0.1388	-0.1237	-0.1409	-0.1548	-0.1663	-0.1583	-0.1500	-0.1467	-0.1278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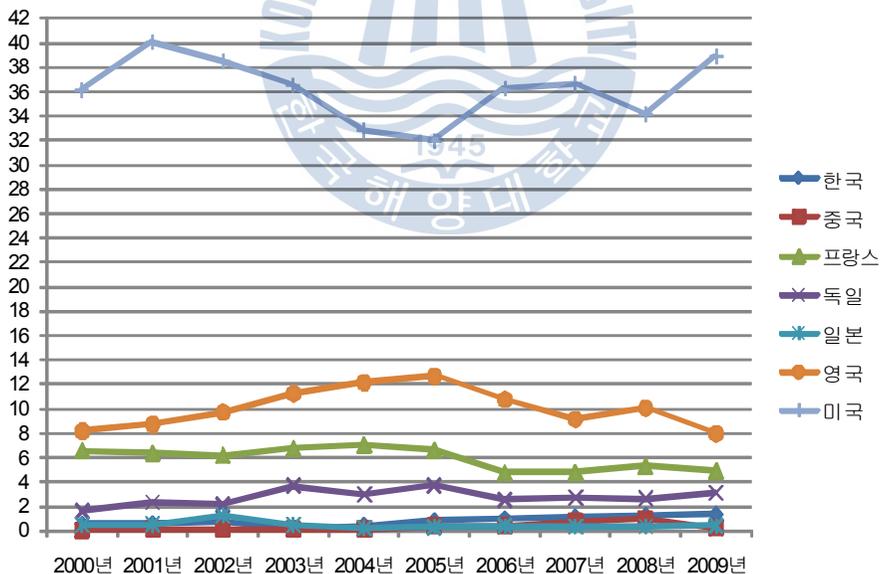
나머지 4개국 중 프랑스는 2000년에 0.0472 수치를 기록해 양(+)의 값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에는 -0.0359로 음(-)의 값을 기록하였고, 2005년에 0.0025의 수치를 보였으나 2006년부터는 계속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2003년까지는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2004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에는 0.0453으로 양(+)의 값을 보였으나 다음해부터 계속해서 음(-)의 값을 기록하면서 하락 추이를 나타냈다. 2008년에는 급락하여 -0.2594로 7개국 중 가장 낮은 경쟁력을 보였다. 2009년에도 -0.210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TSI 수치와는 달리 RSCA 지수에는 2007년까지 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순수출비율은 높으나 미

국의 서비스 전체 수출에서 사업서비스 부문의 수출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미국의 RSCA 지수는 대상기간 동안 큰 등락 없이 -0.1500 상하를 유지하고 있다.

## 11. 개인·문화·오락 부문

개인·문화·오락 부문에서는 다른 서비스 부문과는 달리 비교대상 7개국의 연도별 IMS 값의 추이를 산출한 결과 국제시장점유율 값에 따른 국가별 순위가 대체적으로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문화·오락 부문의 경우 국가별 수출액 규모가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 4-35. 개인·문화·오락 부문 IMS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개인·문화·오락 부문에서도 미국이 다른 6개국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로 높

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최고치가 약 12%에 이르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최고치가 40%에 이르러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큰 폭의 차이로 대상기간 중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IMS 값을 보이고 있는 미국은 2000년에 약 36.18%를 기록하고 다음해에 최고치인 40.05%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약 31.99%를 기록하고 난 뒤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약 38.92%를 차지하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이 대상기간 중 모든 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IMS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에 약 8.19%의 수치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하여 2005년에 최고치인 약 12.6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다시 하락하여 2009년에는 약 7.94%를 기록하였다.

표 4-33. 개인·문화·오락 부문 IMS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5668	0.6174	0.7482	0.2781	0.3963	0.8317	1.0099	1.0893	1.2680	1.3658
중 국	0.0469	0.1250	0.1201	0.1221	0.1269	0.4157	0.3765	0.7695	1.0047	0.2540
프랑스	6.5963	6.3940	6.1706	6.8028	7.0426	6.6351	4.7945	4.7753	5.3206	4.9184
독 일	1.6371	2.3347	2.1614	3.6758	2.9869	3.7115	2.5571	2.7340	2.6303	3.1338
일 본	0.4813	0.5270	1.2767	0.5116	0.2239	0.3008	0.3835	0.3790	0.3715	0.4269
영 국	8.1856	8.7231	9.7581	11.2629	12.1499	12.6685	10.7686	9.1384	10.0559	7.9427
미 국	36.1784	40.0491	38.5425	36.5803	32.8050	31.9876	36.3123	36.6371	34.1404	38.9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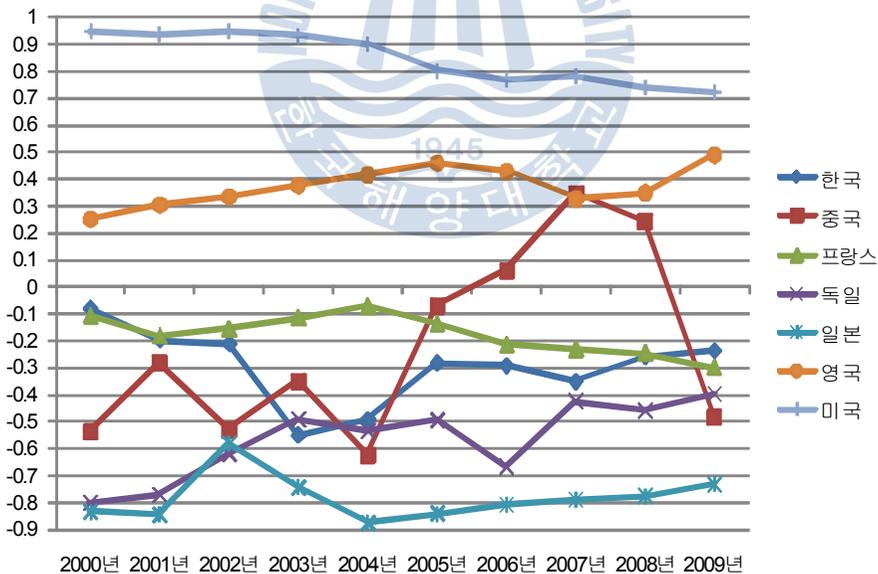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영국에 이어 모든 연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2000년에 약 6.60%의 점유율을 보인 뒤 2005년까지 6~7% 사이를 유지하였으나 2006년에 약 4.79%로 하락하여 이후 4~5% 사이의 IMS 값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역시 모든 연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은 2000년에 약 1.64%의 IMS 수치를 기록한 뒤 소폭 상승하여 2003

년과 2005년에 각각 약 3.68%, 약 3.7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이후 약 2.6%를 유지하다 2009년에는 약 3.13%의 점유율을 보였다.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3개국은 나머지 4개국에 비해 매우 낮은 IMS 값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 약 0.57%를 기록하고 2005년까지 계속해서 1%에 못 미치는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6년부터는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약 1.37%로 3개국 중에서는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2000년 약 0.05%로 영(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고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08년에는 대상연도 중 유일하게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일본은 2002년에 약 1.28%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1%를 상회하였으나 나머지 연도에서는 모두 1%에 미치지 못하는 기록을 나타내었다.

그림 4-36. 개인·문화·오락 부문 TSI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TSI 값에서도 큰 폭의 차이로 최고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던 미국이 모든 연도

에서 가장 높은 TSI 수치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만 모든 연도에서 TSI 값이 양(+)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계속해서 +1의 값에 근접한 0.9를 초과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 완전수출특화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0.7197의 값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07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특화지수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0.2510을 기록한 뒤 점차 상승하여 2005년에 0.4593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2007년, 2008년에는 각각 0.3272, 0.3504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09년에 최고치인 0.4905를 기록하였다.

표 4-34. 개인·문화·오락 부문 TSI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0786	-0.1971	-0.2104	-0.5484	-0.4922	-0.2809	-0.2905	-0.3497	-0.2565	-0.2360
중 국	-0.5361	-0.2821	-0.5279	-0.3505	-0.6219	-0.0698	0.0616	0.3459	0.2428	-0.4822
프랑스	-0.1053	-0.1816	-0.1544	-0.1141	-0.0701	-0.1349	-0.2125	-0.2303	-0.2451	-0.2987
독 일	-0.8004	-0.7704	-0.6196	-0.4916	-0.5319	-0.4934	-0.6670	-0.4245	-0.4567	-0.3956
일 본	-0.8332	-0.8436	-0.5810	-0.7420	-0.8745	-0.8401	-0.8055	-0.7887	-0.7742	-0.7318
영 국	0.2510	0.3046	0.3358	0.3771	0.4163	0.4593	0.4278	0.3272	0.3504	0.4905
미 국	0.9503	0.9370	0.9488	0.9334	0.9022	0.8026	0.7719	0.7845	0.7395	0.7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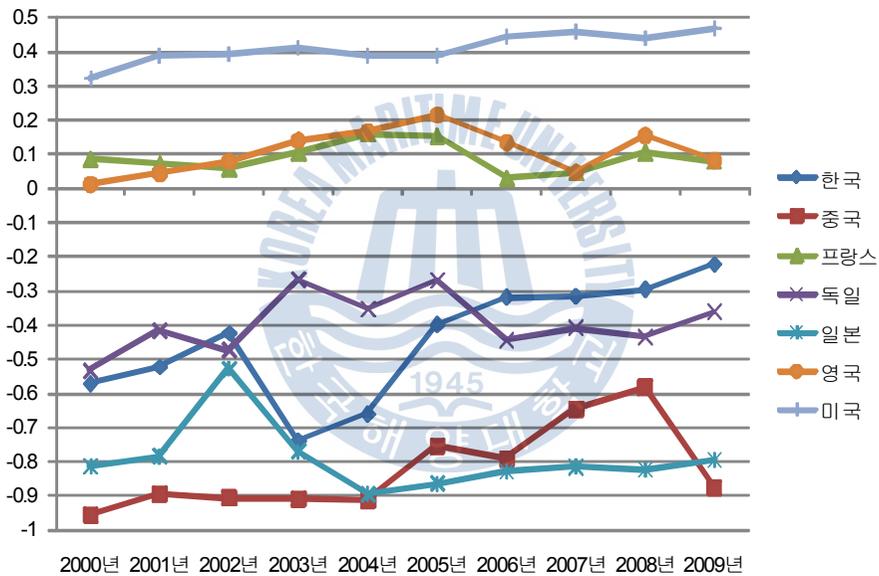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계속해서 큰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05년까지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2006년, 2007년, 2008년에는 각각 0.0616, 0.3459, 0.2428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2009년에는 다시 -0.4822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나머지 4개국은 모든 연도에서 음(-)의 값을 보이며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에 -0.1053, 2004년에 -0.0701을 기록하고 점차 하락하여 2009년에는 -0.2987을 기록했다. 한국은 2000년에 -0.0786의 수치를 보

인 뒤 2003년 -0.5484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상승하여 2009년에는 -0.2360을 기록하였다. 독일은 2000년에 -0.8004로 매우 낮은 경쟁력을 보인 뒤 점차 상승하여 2005년에 -0.4934를 기록했으나 2006년에 -0.6670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9년에는 -0.3956을 기록했다. 일본은 2002년에 -0.5810으로 독일 보다 높은 TSI 값을 기록하였고 나머지 연도에서는 모두 7개국 중 가장 낮은 TSI 수치를 보였다. 2004년에는 -0.874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09년에는 -0.7318을 나타내었다.

그림 4-37. 개인·문화·오락 부문 RSCA지수 추이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IMS와 TSI에서와 마찬가지로 RSCA 지수에서도 미국이 대상기간 중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RSCA 지수는 2000년에 0.3245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0.4693의 값을 나타내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치가 높은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0.0118을 기록한 영국의 RSCA 지수는 점차 상승하여 2005년에

최고치인 0.1658의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락하여 2009년에 0.0818의 수치를 보였다. 2000년에 0.0873을 기록한 프랑스도 영국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고 2009년에는 0.0769를 기록했다.

표 4-35. 개인·문화·오락 부문 RSCA지수 비교 (연도별)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0.5707	-0.5223	-0.4231	-0.7379	-0.6602	-0.3991	-0.3187	-0.3157	-0.2946	-0.2209
중 국	-0.9549	-0.8931	-0.9070	-0.9080	-0.9128	-0.7538	-0.7912	-0.6453	-0.5828	-0.8747
프랑스	0.0873	0.0756	0.0578	0.1057	0.1592	0.1537	0.0305	0.0468	0.1057	0.0796
독 일	-0.5328	-0.4165	-0.4737	-0.2672	-0.3531	-0.2684	-0.4436	-0.4086	-0.4336	-0.3605
일 본	-0.8135	-0.7842	-0.5277	-0.7691	-0.8945	-0.8630	-0.8277	-0.8155	-0.8224	-0.7940
영 국	0.0118	0.0439	0.0800	0.1406	0.1658	0.2154	0.1351	0.0468	0.1558	0.0818
미 국	0.3245	0.3881	0.3917	0.4123	0.3877	0.3874	0.4464	0.4594	0.4397	0.4693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모든 연도에서 양(+)의 값을 보여 비교우위를 보여준 상기 3개국외의 4개국은 모든 연도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0.5328을 기록한 독일은 등락을 반복하다 2009년에 -0.3605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2000년에 -0.5707을 기록한 뒤 상승하다 2003년에 -0.7379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0.2209를 기록하였다. 2000년에 -0.8135의 값을 보인 일본은 2002년에 -0.5277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다시 크게 하락하여 2004년에 -0.8945를 기록했다. 이후 계속해서 점증하여 2009년에 -0.7940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2004년까지는 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에는 -1의 값에 가까운 -0.9549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0.9000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상승 추이를 보이며 2005년부터는 일본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2008년에는 최고치인 -0.5828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여 -0.8747을 값을 나타냈다.

### 제3절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

3절에서는 2절에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7개국에 대하여 서비스 무역 부문별로 산출한 IMS, TSI, RSCA 지수 값을 바탕으로 평균값을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MS, TSI, RSCA 지수와 함께 서비스 수지도 함께 제시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지표들의 10년간 단순평균값은 최근의 추세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연도별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어 비교평가 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상기간의 연도별 지표값에 대하여 중위연도인 2004년과 2005년에 0.1의 평균 가중치를 부여하고 나머지 연도에 대하여서는 최근 연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대칭적 구성을 통해 10년간의 가중평균값으로 각 지표들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표 4-36. 연도별 부여 가중치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가중치	0.06	0.07	0.08	0.09	0.1	0.1	0.11	0.12	0.13	0.1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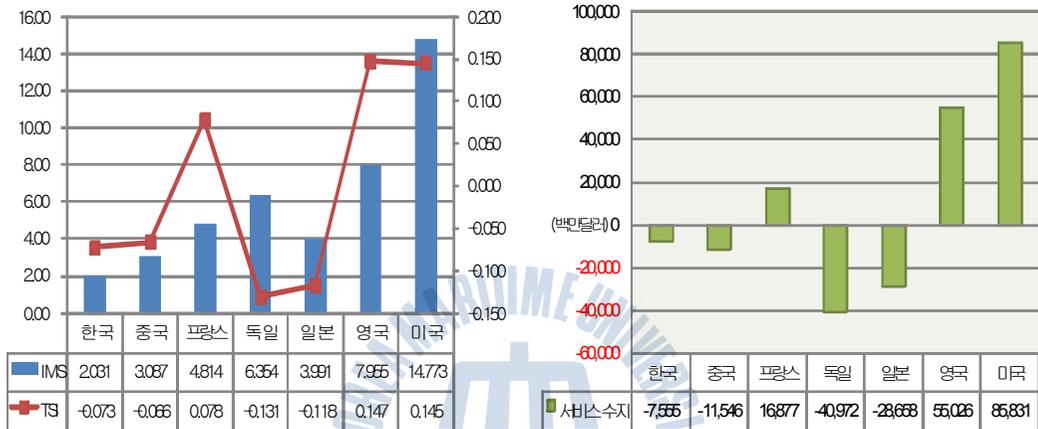
#### 1. 서비스 무역 전체

서비스 무역 전체에서 미국은 비교대상국들에 비하여 가장 높은 서비스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IMS 값도 약 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도 미국에 이어 높은 서비스 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IMS 값도 약 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영국과 함께 서비스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 또한 TSI 수치에서 양(+ )의 값을 나타내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SI 값도 영국과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 무역 전체에서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은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IMS 값도 약 2% 수준에 불과하며, TSI 수치도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 무역 전체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38. 서비스 전체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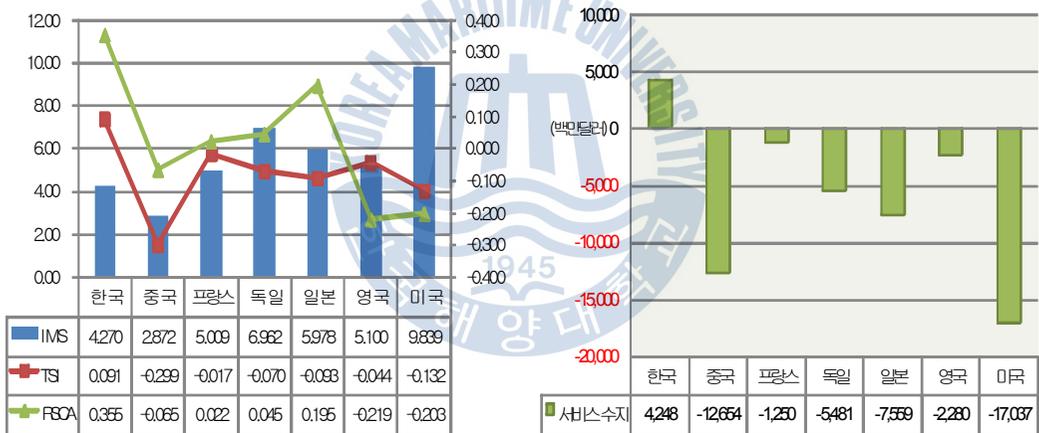
## 2. 운송 서비스 부문

운송 서비스 부문에서는 한국만 유일하게 서비스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IMS 수치는 약 4.3%로 나타나 7개국 중 6번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RSCA 지수와 TSI 수치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다른 6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송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은 비교대상국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IMS 수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 수지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TSI 수치와 RSCA 지수 값 모두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IMS 값을 보인 독일도 RSCA 지수는 양(+)의 값 나타냈으나 TSI 수치는 음

(-)의 값을 기록하고 서비스 수치 또한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은 RSCA 지수가 양(+)의 값을 보이며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역시 TSI 수치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서비스 수치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상품 수출에서 가장 높은 국제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운송 서비스 부문에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낮은 IMS 값을 나타냈고, 두 번째로 큰 서비스 수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음(-)의 값을 가지면서 동시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TSI 값과 RSCA 지수도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경쟁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39. 운송 서비스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3. 여행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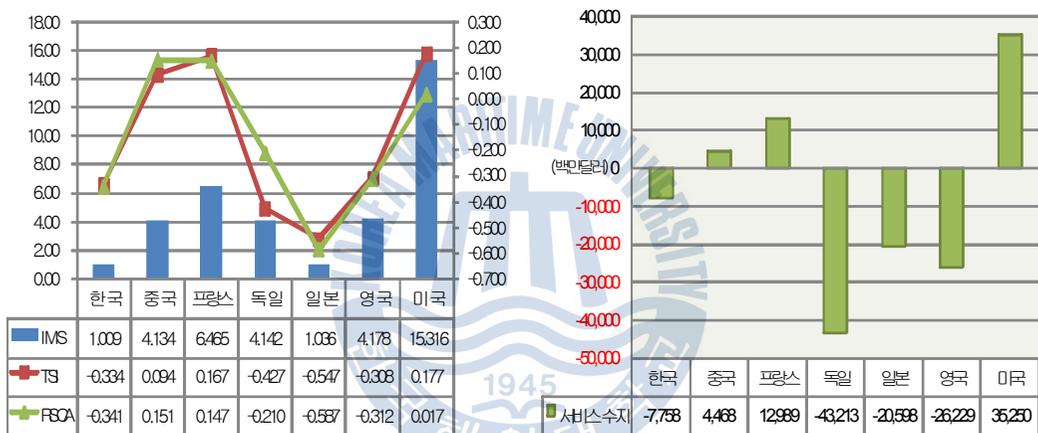
한국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여행 부문에서는 미국이 약 15.3%로 매우 높은 IMS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TSI 수치 및 RSCA 지수 값 모두 양(+)의 값을 가져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수치에서도 비교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서비스 수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은 여행 부

문에서 비교적 강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약 6.5%의 IMS 값을 차지한 프랑스와 약 4.1%의 IMS 값을 차지한 중국 양국 모두 TSI 값과 RSCA 지수 값이 양(+)의 값을 보이고 있고, 서비스 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2개국 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7개국 중 가장 낮은 약 1%의 IMS 수치를 보였고, TSI 및 RSCA 지수도 음(-)의 값을 기록하였으며, 서비스 수지도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여행 부문에서 한국은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40. 여행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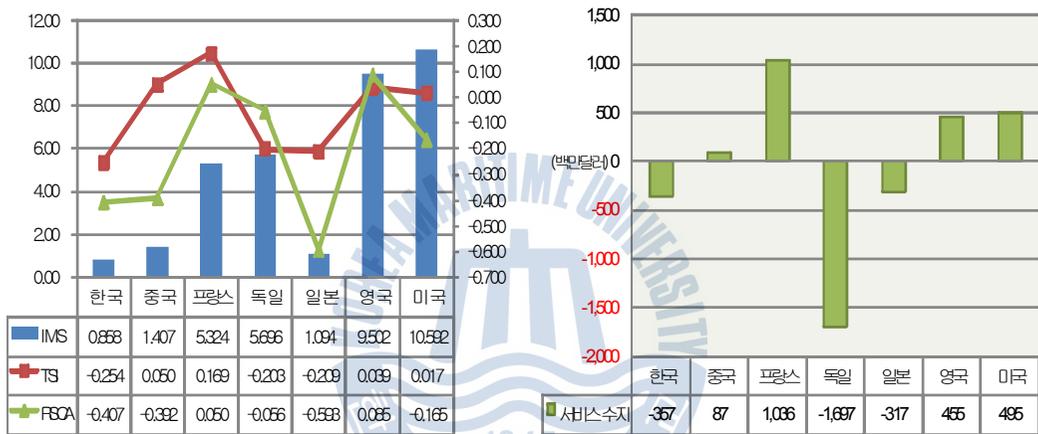
#### 4. 통신 부문

통신 부문에서도 서비스 무역에서 전체적으로 강한 국제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각각 약 10.6%, 9.5%의 높은 IMS 값을 나타내고 있다. 두 나라는 모두 서비스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은 TSI 수치와 RSCA 지수 값 모두 양(+)의 값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TSI 값은 양(+)의 값을, RSCA 지수 값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양국은 통신 부문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약 5.3%의 IMS 값을 기록한 프랑스도

비교대상국들 중 가장 높은 서비스 수치 흑자를 보이고, TSI 값도 7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SCA 지수도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어 통신 부문에서 프랑스 또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약 0.9%에 불과한 IMS 수치와 서비스 수지의 적자,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 TSI 수치와 RSCA 지수 값으로 판단할 때 통신부문에서 경쟁력이 약한 비교열위 상태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41. 통신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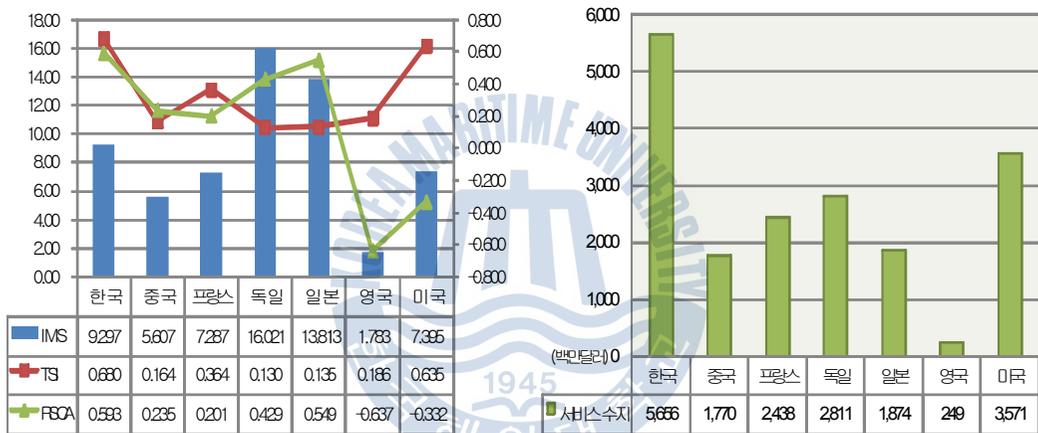
## 5. 건설 부문

건설 부문의 경우 한국이 매우 높은 서비스 수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IMS 값도 약 9.3%로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TSI 값과 RSCA 지수 값이 각각 0.680, 0.593으로 높은 양(+)의 수치를 보이면서 7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건설 부문에서 한국은 국제경쟁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BOP 통계 매뉴얼의 개정에 따라 한국의 경우 지표들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여지가 있으나 해외 건설에서 높은 성장률과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한국이 비

교우위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높은 IMS 값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도 TSI 값과 RSCA 지수 값 모두 양(+)의 값을 보이고 있고, 서비스 수지 또한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건설 부문에서 양국 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와 중국도 독일과 일본에 비해 IMS 수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TSI 및 RSCA 지수 모두 양(+)의 값을 기록하고 서비스 수지도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42. 건설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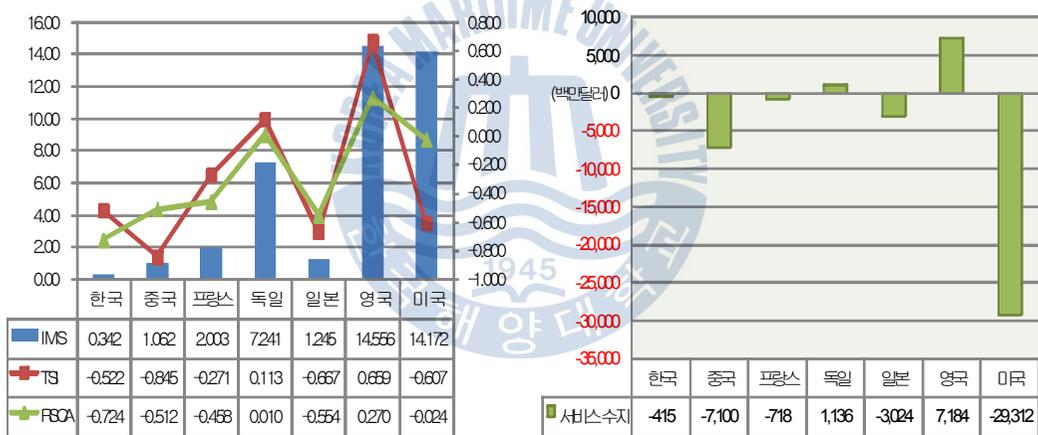
## 6. 보험 부문

보험 부문에서도 서비스 무역 강국인 영국과 미국이 각각 약 14.6%, 약 14.2%로 가장 높은 IMS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부문에서 미국은 높은 IMS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매우 큰 폭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TSI 수치 및 RSCA 지수도 모두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가장 높은 IMS 값과 함께 비교대상국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TSI 값과 RSCA

지수 값 모두 7개국 중 가장 높은 양(+)<sup>1)</sup>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다른 서비스 무역 부문과는 달리 보험 부문에서는 영국이 미국을 제치고 가장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영국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역시 서비스 수지에서 영국과 함께 흑자를 기록한 독일도 TSI 값과 RSCA 지수 값 모두 양(+)<sup>1)</sup>의 값을 보여 어느 정도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약 0.3%의 매우 낮은 IMS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지에서도 적자를 나타냈고 TSI 값과 RSCA 지수 값 모두 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음(-)<sup>1)</sup>의 값을 보이고 있어 보험 부문에서 한국은 비교열위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43. 보험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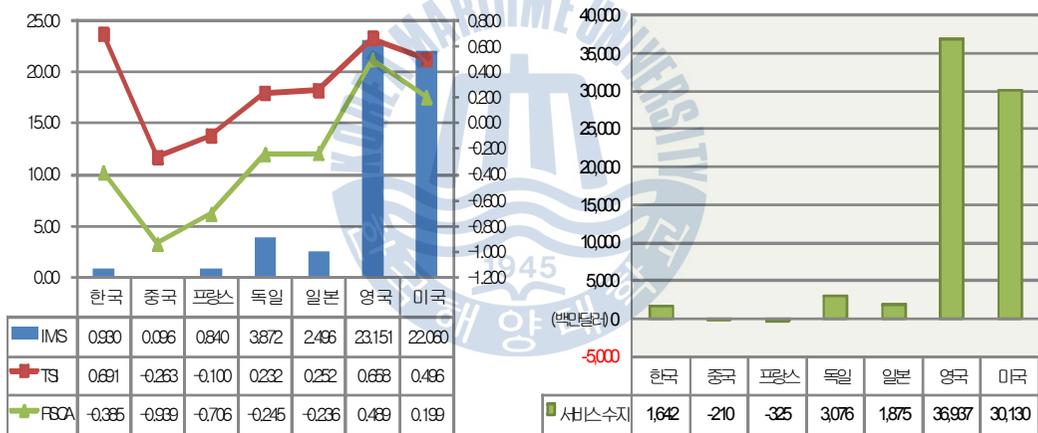
## 7. 금융 부문

금융 부문에서도 영국과 미국이 각각 약 23.2%와 22.1%의 IMS 수치를 기록하며 서비스 무역 강국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서비스 수지에서도 매우 높은 흑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TSI 값 및 RSCA 지수 값에도 매우 높은 수준의 양(+)<sup>1)</sup>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금융 부문에서 매우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험 부문과 마찬가지로 금융 부문에서도 영국이 미국 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약 0.9%의 미미한 IMS 수치를 보여 그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서비스 수지에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RSCA 지수 값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SI 수치가 7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수지에 나타난 금융 부문은 금융 산업 전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표로 한국 금융 산업 전체를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림 4-44. 금융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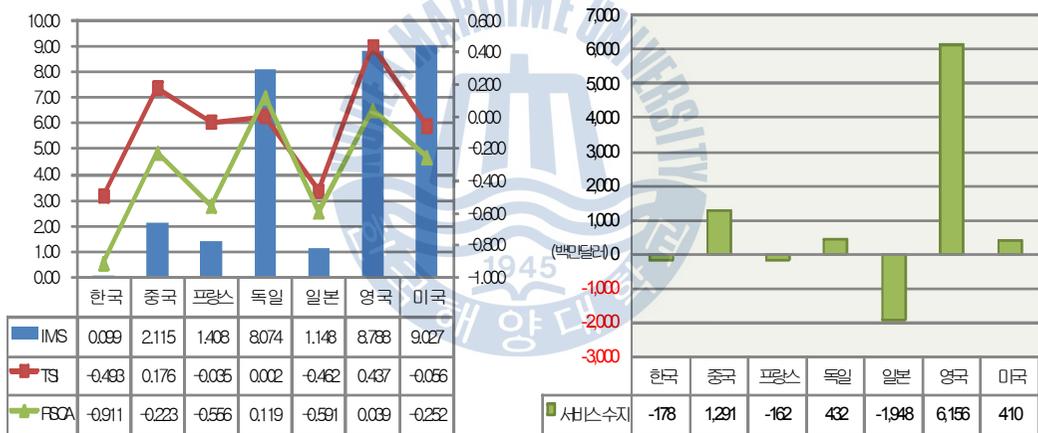
## 8. 컴퓨터 및 정보 부문

컴퓨터 및 정보 부문에서도 서비스 무역 강국인 미국과 영국이 각각 약 9.0%, 8.8%의 비교적 높은 IMS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 또한 약 8.1%로 비교적 높은 IMS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수지에서는 영국이 미국·독일과 비교해 약 15배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7개국 중 가장 높은 양

(+)의 값을 가지는 TSI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RSCA 지수도 독일 다음으로 높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영국이 가장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도 비교적 높은 IMS 수치와 함께 서비스 수지의 흑자, 그리고 TSI 및 RSCA 지수에서 모두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 및 정보 부문에서 한국은 7개국 중 가장 낮은 0.09%의 IMS 값을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수지 또한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 TSI 수치 및 RSCA 지수 값도 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 한국은 비교열위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45. 컴퓨터 및 정보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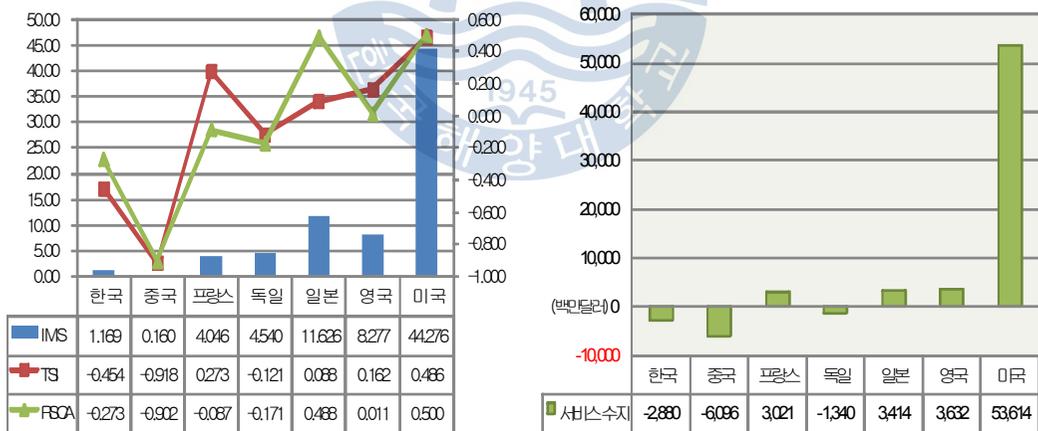
## 9.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에서는 특히 강국인 미국이 세계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45%의 IMS 수치를 보이면서 이 부문의 서비스 무역에서 미국은 절대적 강자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수지도 다른 6개국들에 비해 20배 가까이 높은 흑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TSI 수치 및 RSCA 지수에서도 7개국 중 가장

높은 양(+ )의 값을 기록하고 있어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에서 미국의 국제경쟁력은 가장 강력한 우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에서 서비스 수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IMS 수치는 한국이 약 1.2%이고 중국은 영(0)에 가까운 0.1%를 기록하여 양국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양국의 TSI 수치 및 RSCA 지수 값도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은 TSI와 RSCA 지수 모두 -1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허권이란 것이 상품에 체화되는 기술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닌 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품 무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 모두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기술상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의 서비스 수치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46.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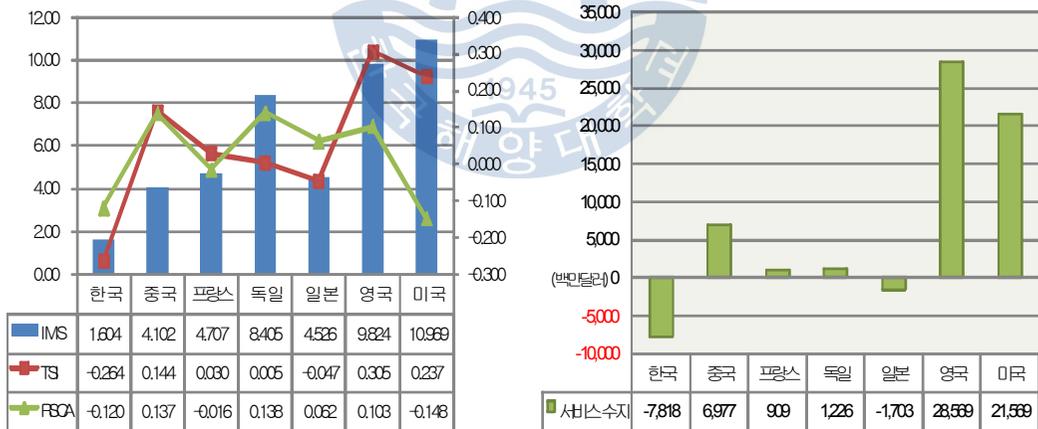
## 10.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사업서비스에서도 미국과 영국이 각각 약 11%, 약 10%의 IMS 수치를 보이

며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수치에서는 영국이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도 그 뒤를 이어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경우 TSI와 RSCA 지수에서 모두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매우 큰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TSI에서는 양(+)의 값, RSCA 지수에서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IMS의 값도 7개국 중 가장 낮은 약 1.6%에 불과하며 서비스 수치에서도 제일 큰 폭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TSI 수치와 RSCA 지수 값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서비스도 광고, 회계, 법률 등 제조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인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업서비스 아웃소싱 업체들의 영세성이나 전문성이 낮아 선진국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47.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11. 개인·문화·오락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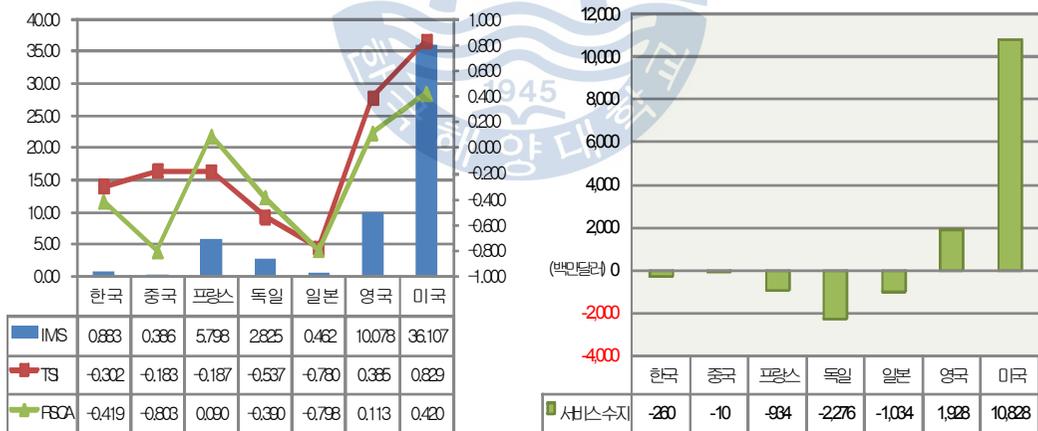
개인·문화·오락 부문의 경우에도 미국이 매우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IMS 수치가 약 36%로 약 10%인 2위국 영국과 비교했을 때도 3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미국은 서비스 수지에서도 영국 보다 약 5배 이상의 흑자 규모를 보이고 있다. TSI 수치 및 RSCA 지수 값에서도 양(+)의 값을 보이며 두 지표 모두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문화·오락 부문은 미국이 매우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영국도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약 10%의 IMS와 서비스 수지 흑자, 양(+)의 값을 보이고 있는 TSI 수치와 RSCA 지수의 값을 볼 때 역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이 부문에서도 역시 약 0.9%의 IMS 수치를 보이며 매우 낮은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지에서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TSI 수치 및 RSCA 지수 값 모두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이 부문의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48. 개인·문화·오락 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가중평균)



## 제5장 요약 및 결론

과거 서비스는 산업특성상 제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도 비교역재로 인식되어져 왔었다. 그러나 상품의 일부로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점차 독립적인 상품으로 공급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원거리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1990년대 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전 세계 무역량은 2000년대 들어 그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 상품 무역량은 1994년에 비해 2008년에는 380% 이상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무역량도 마찬가지로 약 300% 이상 증가하였다. 동 기간 상품 무역은 연평균 10.3% 증가하였고, 서비스 무역은 연평균 9.49%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무역자유화의 기조와 함께 세계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서비스 무역의 위상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무역(상품+서비스)에서 서비스 무역은 약 20%를 차지하지만, 2007년도를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경우 서비스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평균 68.7%에 이르며, 고용에서도 전체 고용 인구에서 서비스 산업이 평균 6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경제의 산출과 고용측면에서 서비스 산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점차 국제무역에서 서비스의 비교역재에서 교역재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는 단기적으로 내수시장에서의 충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수출의 동력으로써 그 위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서비스 무역에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탈피하지 못하고 상품무역에 있어서는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비스 무역에서는 적자기조를 면치 못

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1990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고 2000년 이후로 서비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어 왔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연평균 21.6억 달러였으나, 이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적자폭은 연평균 116.6억 달러에 이르러 서비스 수지에 있어 적자가 심화되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무역순위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상품 무역에서는 수출 7위, 수입 10위를 차지한 반면 서비스 무역에서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서비스 수출 15위, 수입 12위에 그치고 있어 제조업 중심의 성장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 산업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국제무역에 있어 서비스 무역의 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서비스 무역에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품 무역과는 달리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요인이 서비스 무역규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무역연구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경쟁력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및 선진 5개국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먼저 서비스 무역에 있어 교역규모가 증대되는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무역결정요인을 중력모형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OECD 34개 회원국 간 쌍무적 서비스 무역 자료와 무역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인 GDP, 1인당 GDP, 경제자유도, 거리 및 문화적·지리적 요인들을 변수로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GDP는 모두 서비스 무역에 양(+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1인당 GDP도 모두 서비스 무역에 양(+ )의 영향을 보이고 있지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있어 수출국의 그것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무역이 제품의 차별화에 따른 독점적

경쟁모형에 부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출국의 소득에 더 의존하는 자국시장편향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로 인한 이득이 이미 서비스 산업에서 큰 시장규모를 가진 국가에 더 많은 이득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선진화 정책의 추진과 서비스 무역의 개방을 통한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변수인 경제자유도 또한 서비스 무역에 양(+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사국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교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비스 산업에 자유도를 높이고 서비스 무역장벽도 낮추는 등 시장의 개방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력모형에서 대표적인 무역장벽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역국간 거리는 예상대로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지리적 장애요인이 서비스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타 더미변수로 분석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들 또한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 근접성도 서비스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서비스 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문화적 근접성을 높이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국가들과 비교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수출입액을 IMF의 BOP 통계로부터 추출하여, 한국과 중국 및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서비스 수지와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시장점유율(IMS)과 무역특화지수(TSI) 및 변형된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대용치(Proxy)로 보아 비교분석하였다.

7개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비스 산업 전

체적으로 미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도 뒤를 이어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부문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여행 부문,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금융 부문, 개인·문화·오락 부문 등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금융 부문,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컴퓨터 및 정보 부문, 보험 부문 등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상품 무역에서는 꾸준히 국제경쟁력을 높여 왔으나 이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독일과 일본, 중국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7개국 중 가장 낮은 서비스 수출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독일과 일본에 비해 점유율이 각각 1/3, 1/2 수준에 불과하고,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후발 개도국인 중국 보다 서비스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서비스 무역에서 독일과 일본의 경우 TSI 값이 영(0) 미만으로 비교열위 상태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TSI 값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TSI 값이 개선되는 모습 없이 계속해서 비교열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결국 비교대상 7개국 중 한국의 비교열위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제조업 강국이었던 미국과 영국은 7,80년대에 제조업의 하락세로 경제의 활력을 상실하였으나 90년대 들어 서비스 산업으로의 무역패턴 및 비교우위 변화를 이루어내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제조업 강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90년대에 서비스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조업이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 서비스 산업에서 점차 경쟁력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경쟁력 이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상승기 이후에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이 제조업에서 상승기를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후발 개도국들이 제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계속해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물론 한국은 제조업에서도 성장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 수지의 적자와 서비스 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그대로 둘 순 없으며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전체는 경쟁력이 매우 약한 상태이나 서비스 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운송 부문과 금융 부문 및 건설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서비스 무역 부문 중에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부문은 운송 부문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운송 부문의 경우에도 순수한 서비스 산업으로서 경쟁력이 높다고 하기 보다는 상품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의 특성상 운송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운송 부문은 제조업처럼 시설이나 장비 같은 물적 투자가 중요한 산업으로 향후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경쟁력 이행에 적합하다고 보기 힘든 면이 있다. 현재 한국이 운송 부문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비교대상 7개국 중 국제시장 점유율이 중국 보다 높을 뿐이며 나머지 선진 5개국 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무역흑자도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영국도 운송 부문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운송 부문, 금융 부문, 건설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무역 부문에서 한국은 모두 국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 부문,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이 무역적자가 크고 적자구조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의 경우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의 경우 국제경쟁력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이나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의 경우 상품의 공급 또는 수출과정에 투입되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약하다면 상품을 수출하면 할수록 서비스 적자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 서비스 무역 부문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여행 부문의 경우에도 한국은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열 또한 높은 반면 국토가 좁고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쇄적 교육 시스템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유학이나 외국 어학연수 수요가 지속되거나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서비스 부문에서도 무역적자가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서비스 무역에서의 국제시장점유율 등 그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경제의 서비스화 또는 산업의 서비스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무역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의 수출지원 여력이 상품 수출에 집중되어 왔으며, 서비스 산업에서의 대내외적 진입장벽 및 규제로 인하여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로 수입특화 되어 서비스 수지의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해소하고, 서비스 무역의 자국시장편향 특성에 따른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서비스 산업도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분석모형에서도 서비스 무역 교역당사국의 경제자유도 증가는 서비스 무역규모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제조업이나 서비스 무역 부문 중 운송 부문, 금융 부문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부문은 이미 개방되어 있고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반면에

다른 많은 서비스 무역 부문의 경우 시장개방이 안 된 경우가 많으며, 부문별로 시장 개방도에 큰 차이가 있겠지만 경쟁력이 낮을수록 시장 개방도가 낮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 부문에서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학 및 연수도 개방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서비스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률·회계·연구·의료 서비스 등 한국의 많은 서비스 산업 부문이 국제경쟁 뿐만 아니라 국내경쟁 까지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해당 산업에 높은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그렇게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기조 속에서 그러한 산업들도 결국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sup>53)</sup> 시장개방은 단기적으로는 무역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한국의 여러 산업에서 그러한 경험을 목격한 적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시장개방을 유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

53) 유창근, 전게서(각주 39), p.18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경훈, “신무역 패러다임으로서의 서비스와 서비스무역”, 「문화무역연구」, 창간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01.2
- 강준구,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12
- 기성래, “서비스 무역의 공급형태와 통계”, 「지역발전연구」, 제5권 제2호,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원, 2001.1
- 김미정, “중국 서비스산업 전략과 한중협력 방안”,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6.3
- 김민우,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한국은행 보고서」, 2008.9
- 김성재 외,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08-017,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2008.6
- 김영환,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
- 김우규, “서비스무역과 그 유형”,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2
- 김우중, 최용민, “서비스산업 지원체제 혁신방안 - 서비스수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Trade Focus」, Vol.10 No.45, 국제무역연구원, 2011.8
- 김정수, 「NEW 무역정책론」, 서울: (주)박영사, 2009.10
- 김주훈, 안상훈, 이재형,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6-01, 한국개발연구원, 2006.12
- 김주훈, 차문중,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7-04, 한국개발연구원, 2007.12

- 김학민, 김진학, 이호형, “서비스무역 연구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9
- 김희철, “한국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제29권 1호, 한국상품학회, 2011.1
- 나 영, 박상규, 「통계적 연구방법론의 이해」, 서울: 신영사, 2009.3
- 문병철, “FTA의 교역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 서비스교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2
- 박명섭역, 사자나미 요오코, 우라다 슈지로, 「서비스 무역 - 이론·현상·과제」, 서울: 비봉출판사, 1993.4
- 박문서, “서비스무역 거버넌스 분석과 리모델링 전략”, 「통상정보연구」, 제11권 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6
- 박문수, 이경희, “국가 간 서비스 무역패턴 분석 - 자국시장 및 요소부존 효과를 중심으로 -”, 「ISSUE PAPER」, 2010-254, 산업연구원, 2010.6
- 박순찬, “서비스 교역과 경제성장”, 「대외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6
- 박순찬, 강문성, “한·ASEAN FTA에서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영향 분석”, 「대외경제연구」, 제9권 제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6
- 박순찬, 박명호, “한·중·일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 CGE모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02.4
- 박정수, 이진우, 박문수, 이경희, 유현선,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전략”, 「연구보고서」, 제557호, 산업연구원, 2009.12
- 박 준, “2010년 서비스 수출의 국민경제효과 분석”, 「Trade Focus」, 국제무역연구원, 2011.10
- \_\_\_\_\_, “주요 서비스 무역수지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 운송, 여행(교육), 사업, 지적권 서비스를 중심으로-”, 「Trade Focus」, Vol.10 No.34, 국제무역연구원, 2011.7
- 박진우, 최용민,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고용 비교 - 지식서비

- 스산업 및 기반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 「Trade Focus」, Vol.10 No.21, 국제무역연구원, 2011.5
- 박추환, 김기승,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통한 대(對)BRICs 무역구조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2006.6
- 서 현, “A Study on the Status and Causes of Growing Service Trade Deficit - Focused on Korean Tourism Industry”, 「통상정보연구」, 제9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3
- 서환주, 이영수, “서비스업 국제무역특화 패턴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OECD국가의 생산성향상효과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56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08.3
- 성일석, 「국제서비스통상론」,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11.5
- \_\_\_\_\_,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 무역구조”, 「무역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5
- 손찬현, 윤진나,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기초한 韓國의 교역패턴 및 지역 경제권의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 2000년 여름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송영관, 강준구, 금혜윤,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9-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12
- 신창목, “한국 서비스 교역의 경쟁력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제338호, 삼성경제연구소, 2011.5
- 원태연, 정성원, 「통계조사분석 SPSS 18.0」, 서울: 한나래출판사, 2010.12
- 유일선, 김영환, “한·중 서비스 무역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2009.6
- 유장희,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연구」, 09-12, 한국경제연구원, 2009.7
- 유창근, “비교우위 변화와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사회과학연구」,

- Vol.33 No.3,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 \_\_\_\_\_,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 「영산논총」, Vol.16, 영산대학교, 2006
- 윤광운, 최종수, 노현수, 「최신 무역실무」, 서울: 삼영사, 2007.3
- 윤창인, “한·중·일 FTA :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
- 이건우, “한국산업의 연관구조 변화 분석 - 서비스화가 산업간 연관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ISSUE PAPER」, 2011-266, 산업연구원, 2011.3
- 이경희, 박문수, “한·미·일 서비스 무역구조 비교 분석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11.6
- 이남구,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6.11
- 이성준,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0.1
- 이영수, 김형국,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실태 분석”, 「무역학회지」, 제35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0.11
- 이장규, 이준규, 이승신, 여지나, 배승빈,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03-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
- 이창재,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
- 이 철, “중력모형을 적용한 한국무역(1996-2000)의 실증적 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6.2
- 이춘삼, 이재영, “서비스무역과 FTA”, 「산업경영연구」, 제29권 1호,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6.2

- 이학식, 임지훈, 「SPSS 12.0 매뉴얼」, 경기: 법문사, 2008.6
- 임상수, “한국 서비스산업의 7대 취약점 - OECD 국가 비교 분석 -”, 「(국내외 경제)현안과 과제」, 10-24, 현대경제연구원, 2010.9
- 정분도, 윤봉주, 전우근, “한국의 주요 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한 현 시비교우위지수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무역연구」, 제5권 제3호, 한국무역연구원, 2009.12
- 정홍열, 「경제통합론」,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11.2
- 조인택,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2
- 조충제, “인도경제의 서비스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
- 조현승, 박문수, 이경희, 김천곤, “서비스산업 무역구조 및 무역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제550호, 산업연구원, 2009.12
- 최봉현, 김홍석, 조현승, 하봉찬, “서비스산업의 미래와 경쟁전략”, 「연구보고서」, 제529호, 산업연구원, 2007.12
- 최용민 외,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 「Trade Focus」, Vol.9 No.46, 국제무역연구원, 2010.9
- 하태정,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와 기업의 대응”,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5.3
- 한국은행,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의 이해」, 서울: 한국은행, 2009.8
- 함시창, “한국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교역 형태 분석 - 중력 모형(Gravity model)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1997.8
- 황윤진, “서비스산업의 산업특성별 산업내 무역패턴 결정요인 -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의 보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제26권 3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0.9

## 외국문헌

- Anderson, James E., “A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Gravity Equ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9, 1979
- Anderson, James E. and Eric Van Wincoop.,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The America Economic Review*, Vol.93. No.1, 2003
- Balasa, B., “Trade Liberalis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Vol.33 No.2, 1965
- Bergstrand, Jeffrey H., “The Generalized Gravity Equation,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the Factor Proportions Theory in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1, No.1, 1989
- \_\_\_\_\_, “The Gravity Model in International Trade: some Microeconomic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7, 1985
- Biessen, G., “Is the Impact of Central Planning on the Level of Foreign Trade Really Negativ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15, 1991
- Bikker, J. A., “An International Trade Flow Model with Substitution: An Extension of the Gravity Model.”, *Kyklos*, Vol.40, 1987
- CAI, *The World Factbook: 2011 Edition (CIA's 2010 Edition)*, 2011
- Deardorff, Alan V. and Robert M. Stern., “Empirical Analysis of Barriers to International Services Transactions and the Consequences of Liberalization.” *Discussion Paper*, No.505,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04

- Deardorff, Alan V., "Determinants of Bilateral Trade: Does Gravity work in a Neoclassical World?", *NBER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5377, 1995
- Dihel, N., F. Eschenbach and B. Shepherd, "South-South Services Trade.",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39, 2006
- Evenett, Simon and Wolfgang Keller, "On Theories Explaining the Success of the Gravity Equation.", *NBER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6259, 1998
- \_\_\_\_\_, "On Theories Explaining the Success of the Gravity Equ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pril, 2002
- Freund, C. L. and D. Weinhold, "The Effect of the Internet on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62, 2004
- \_\_\_\_\_, "The Internet an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2, No.2, 2002
- Fuchs. Victor R., "Economic growth and the rise of service employment.", *NBER Working Paper*, No.486, 1980
- Grünfeld, L. A. and A. Moxnes, "The Intangible Globalisation: Explaining the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Paper*, No.657, 2003
- Helpman, E. and P. Krugman,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Increasing Returns, Imperfect Competition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MIT Press, Cambridge Mass, 1985
- Helpman, E., "Imperfect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Evidence from fourteen industrial Countries.", *Journal of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Vol.1 No.1, 1987
- Hoekman, B. and C. P. Braga, "Protection and Trade in Services: A

- Survey.”, *Open economies Review*, 8, 1997
- Hoekman, Bernard, “Liberalizing Trade in Services: A Survey.”, *Working Paper 4030*, World Bank, 2006
- Hummels, D. and James A. Levinshon,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Reconsidering the Evid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0, No.3, 1995
- IMF, *World Economic Outlook(September 2011)*,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9
- Jansen, M. and R. Piermartini, “The Impact of Mode 4 on Trade in Goods and Services,”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04-07, 2004
- Joscelyn Magdeleine, Andreas Maurer, “Measuring GATS Mode 4 Trade Flows”,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08-05, 2008
- Juan A. Marchetti,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TO Services Negotiations”,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04-06, 2004
- Kim, Jong-Il and June-Dong Kim,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Working Paper*, 00-10, KIEP, 2000
- Kimura, F. and H. H. Lee, “The Gravity Equation i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142, No.1, 2006
- Konan, Denise Eby and Keith E. Maskus, “Quantifying the Impact of Services Liberalization in a Developing Country.”, *Working Paper*, 3193, World Bank, 2001
- Lejour, A. M. and J. W. De P. Verheijden, “Services Trade Withi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What do They Have in Common?”,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Discussion Paper No.42, 2004

- Linnemann, H., *An Econometrics Study in International Trade Flows*, North-Holland, Amsterdam, 1966
- Martin Roy, Juan Marchetti, Hoe Lim, “Services Liberalization in the New Generation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PTAs): How Much Further than the GATS?”,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06-07, 2006
- Mirza, D. and G. Nicoletti, “What is so Special About Trade in Services?”, *University of Nottingham Research Paper*, No.2004/02, 2004
- OECD, *OECD in Figures 2009 Edition*, Paris: OECD Publishing, 2009
- \_\_\_\_\_,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DETAILED TABLES BY PARTNER COUNTRY 2004-2008) Volume 2010/2*, USA: OECD Publishing, 2011
- \_\_\_\_\_,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Volume I(DETAILED TABLES BY SERVICE CATEGORY 2000-2008) 2010*, Lexington: OECD Publishing, 2011.10
- Rose, Andrew K., “Do We Really Know that the WTO Increases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4, Iss.1, 2004
- \_\_\_\_\_, “Does the WTO Make Trade More Stable?”, *Draft*, 2004
- Posner, M. V., “International Trade and Technical Change”, *Oxford Economic Papers*, Vol.13, 1961
- Pöynönen, P., “A Tentative Model for the Volume of Trade between Countri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90, 1963
- Tinbergen, J., *Shaping the World Economy: Suggestion for an International Trade Policy*, The Twentieth Century Fund, New York, 1962
- WTO, “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S/L/92, 2001.3  
\_\_\_\_\_,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2011  
\_\_\_\_\_, *Measuring Trade in Services*,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2006  
\_\_\_\_\_,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MTN.GNS/W/120, 1991  
\_\_\_\_\_, *World Trade Report 2011*,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2011



## 웹사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ttp://www.oecd.org/>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http://scholar.ndsl.kr/>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ge.go.kr/>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국제부흥은행(IBRD,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  
국제연합(UN), <http://www.un.org/>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http://www.unctad.org/>  
국제통화기금(IMF), <http://www.imf.org/>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포스코경영연구소, <http://www.posri.re.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http://www.riss4u.net/index.jsp>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http://tri.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ENR.com(Engineering News-Record),  
[http://enr.construction.com/engineering/pdf/top\\_lists/InternationalContractors/2011-Top\\_225\\_International\\_Contractors.pdf](http://enr.construction.com/engineering/pdf/top_lists/InternationalContractors/2011-Top_225_International_Contractors.pdf)  
Fraser Institute, <http://www.freetheworld.com/release.html>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kr/>  
Heritage Foundation, <http://www.heritage.org/index/>  
IMF eLibrary Data, <http://elibrary-data.imf.org/DataExplorer.aspx>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KOSIS(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http://www.kosis.kr/>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OECD 대한민국 대표부, <http://oecd.mofat.go.kr/korean/eu/oecd/main/index.jsp>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  
OECD iLibrary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statistics>  
Rose, Andrew K., <http://faculty.haas.berkeley.edu/arose/StabData.zip>  
World Bank,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bank/download/WDIandGDF\\_excel.zip](http://databank.worldbank.org/databank/download/WDIandGDF_excel.zip)  
WTO List of all RTAs, <http://rtais.wto.org/WebControl/exportgrid.aspx>

# 부 록

## 부록 1.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대분류별 주요개정내용

KSIC 8	KSIC 9
A. 농업 및 임업	→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어업	→ A. 농업, 임업 및 어업
C. 광업	→ B. 광업
D. 제조업	→ C. 제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G. 도매 및 소매업	→ F. 건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 G. 도매 및 소매업
I. 운수업	→ H. 운수업
J. 통신업	→ I. 숙박 및 음식점업
K. 금융보험업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 K. 금융 및 보험업
M. 사업서비스업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O. 교육 서비스업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P. 교육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S. 가사서비스업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 U.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

부록 2. 세계 주요 상품 무역국 순위 (2009년)

(단위 : 10억 달러, %)

수출국				수입국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1	중국	1,202	9.6	1	미국	1,605	12.7
2	독일	1,126	9.0	2	중국	1,006	7.9
3	미국	1,056	8.5	3	독일	938	7.4
4	일본	581	4.6	4	프랑스	560	4.4
5	네덜란드	498	4.0	5	일본	552	4.4
6	프랑스	485	3.9	6	영국	482	3.8
7	이탈리아	406	3.2	7	네덜란드	445	3.5
8	벨기에	370	3.0	8	이탈리아	413	3.3
9	<b>대한민국</b>	<b>364</b>	<b>2.9</b>	9	홍콩	352	2.8
10	영국	352	2.8	10	벨기에	352	2.8
11	홍콩	329	2.6	11	캐나다	330	2.6
12	캐나다	317	2.5	12	<b>대한민국</b>	<b>323</b>	<b>2.5</b>
13	러시아	303	2.4	13	스페인	288	2.3
14	싱가포르	270	2.2	14	인도	250	2.0
15	멕시코	230	1.8	15	싱가포르	246	1.9
16	스페인	219	1.7	16	멕시코	242	1.9
17	대만	204	1.6	17	러시아	192	1.5
18	사우디아라비아	192	1.5	18	대만	174	1.4
19	아랍에미리트	175	1.4	19	호주	165	1.3
20	스위스	173	1.4	20	스위스	156	1.2
세계 전체		12,490	100.0	세계 전체		12,682	100.0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0*, p.13

부록 3. 세계 주요 서비스 무역국 순위 (2009년)

(단위 : 10억 달러, %)

수출국				수입국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1	미국	474	14.1	1	미국	331	10.5
2	영국	233	7.0	2	독일	253	8.1
3	독일	227	6.8	3	영국	161	5.1
4	프랑스	143	4.3	4	중국	158	5.0
5	중국	129	3.8	5	일본	147	4.7
6	일본	126	3.8	6	프랑스	126	4.0
7	스페인	122	3.6	7	이탈리아	115	3.6
8	이탈리아	101	3.0	8	아일랜드	103	3.3
9	아일랜드	97	2.9	9	스페인	87	2.8
10	네덜란드	91	2.7	10	네덜란드	85	2.7
11	싱가포르	88	2.6	11	싱가포르	81	2.6
12	인도	87	2.6	12	인도	80	2.5
13	홍콩	86	2.6	13	캐나다	78	2.5
14	벨기에	79	2.4	14	<b>대한민국</b>	<b>75</b>	<b>2.4</b>
15	스위스	69	2.1	15	벨기에	74	2.4
16	스웨덴	61	1.8	16	러시아	59	1.9
17	룩셈부르크	61	1.8	17	덴마크	51	1.6
18	캐나다	58	1.7	18	스웨덴	46	1.5
19	<b>대한민국</b>	<b>57</b>	<b>1.7</b>	19	사우디아라비아	46	1.4
20	덴마크	55	1.6	20	홍콩	44	1.4
세계 전체		3350	100.0	세계 전체		3145	100.0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0*, p.15

### 부록 4. BPM6 1단계 이행에 따라 변경된 국제수지 체계

현 행	변 경	비 고
경 상 수 지	경 상 수 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상품 및 서비스수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상 품 수 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FOB)</li> <li>• 수입(FOB)</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재화수리수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서 서비스수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 수</li> <li>• 여 행</li> <li>• 통신서비스</li> <li>• 건설서비스</li> <li>• 보험서비스</li> <li>• 금융서비스</li> <li>• 컴퓨터및정보서비스</li> <li>• 특허권등사용료</li> <li>• 사업서비스</li> <li>•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li> <li>• 정부서비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상 품 수 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FOB)</li> <li>• 수입(FOB)</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서 서비스수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 송</li> <li>• 여 행</li> <li>• 통신서비스</li> <li>• 건설서비스</li> <li>• 보험서비스</li> <li>• 금융서비스</li> <li>• 컴퓨터및정보서비스</li> <li>• 지적재산권등사용료</li> <li>• 유지보수서비스</li> <li>• 사업서비스</li> <li>•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li> <li>• 정부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 (분류체계 단순화)</li> <li>• 단, 선박수출의 경우 인도기준에서 건조진행기준으로 변경</li> <li>• 명칭 변경</li> <li>• 직접투자로 분류되던 본사직영에 의한 장기건설공사를 건설서비스에 계상</li> <li>• 명칭 변경</li> <li>• 신설 (상품수지 중 재화수리를 유지보수서비스로 계상)</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소 득 수 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경 상이전수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본 원소득수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이 전소득수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변경</li> <li>• 명칭 변경</li> </ul>
자 본 계 정	자 본 · 금 융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변경</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투 자 계 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투자 (장기건설공사)</li> <li>• 증권투자</li> <li>• 파생금융상품</li> <li>• 기타투자</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기 타자본수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자 본 수 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금 융 계 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투자</li> <li>• 증권투자</li> <li>• 파생금융상품</li> <li>• 기타투자</li> <li>• 준비자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및 위치 변경</li> <li>• 명칭 및 위치 변경</li> <li>• 분류 변경 (IP 기준체계와 일치)</li> </ul>
준비자산증(-)감		
오 차 및 누 락	오 차 및 누 락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서울, 2011.3

부록 5. 주요 국가 해외 건설사업 매출액 및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국 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점유율								
한 국	6,452.5	2.9	8,015.8	2.6	11,409.8	2.9	16,343.8	4.3	18,392.5	4.8
중 국	16,289.4	7.3	22,677.7	7.3	43,202.5	11.1	50,573.3	13.2	57,062.4	14.9
프랑스	33,682.9	15.0	38,694.7	12.5	46,348.0	11.9	42,722.5	11.1	40,020.8	10.4
독 일	25,890.1	11.5	32,088.3	10.3	38,866.8	10.0	35,245.9	9.2	35,455.6	9.2
일 본	18,753.5	8.4	23,858.4	7.7	24,612.0	6.3	17,574.1	4.6	15,568.7	4.1
영 국	11,702.6	5.2	11,310.4	3.7	14,852.2	3.8	12,912.5	3.4	11,563.5	3.0
미 국	38,297.6	17.1	42,797.5	13.8	51,116.2	13.1	49,732.8	13.0	44,903.2	11.7
소 계	151,068.6	67.4	179,442.8	57.9	230,407.5	59.1	225,104.9	58.8	222,966.7	58.1
네덜란드	6,055.0	2.7	7,136.0	2.3	7,144.0	1.8	7,849.0	2.0	7,954.6	2.1
스페인	12,750.6	5.7	25,160.8	8.1	28,433.2	7.3	28,378.9	7.4	35,652.0	9.3
이탈리아	6,789.8	3.0	25,341.7	8.2	31,322.1	8.0	28,409.1	7.4	32,505.2	8.5
터 키	6,069.7	2.7	8,506.2	2.7	14,046.8	3.6	14,114.3	3.7	14,583.3	3.8
기 타	41,694.1	18.5	64,659.5	20.8	78,654.1	20.2	83,876.1	20.7	71,849.5	18.2
총 계	224,427.8	100.0	310,247.0	100.0	390,007.7	100.0	387,732.3	100.0	385,511.3	100.0

주 : ENR.com에서 세계 225대 기업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된 자료임.

자료 : Engineering News-Record, 「The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각년도 수치로 작성